*Jthink* 2010-PR-22

# 전라북도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2010

Jthink
전북발전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 김진석, 유태우.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0
p. ; cm. -- (Jthink ; 2010-PR-22)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6612-026-0 93320 : 비매품

투자 유치[投資誘致]
지역 경제[地域經濟]

322.1191-KDC5
338.9519-DDC21 CIP2011001261

## 연 구 진


| | | |
|---|---|---|
| 연 구 책 임 | 김 진 석 |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 연 구 원 | 유 태 우 |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
| 연 구 자 문 | 조 혜 영 |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정책팀장 |
| | 홍 성 훈 | •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 김 용 만 | • 새만금군산경제자유청 투자기획부장 |
| | 노 홍 석 | •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 |
| | 최 재 용 | • 전라북도 식품산업과장 |


연구관리 코드 : 10JU1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연구의 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새만금산업단지, 김제자유무역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투자유치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주요 연구내용

### ❑ 전북지역 산업용지 수급전망 분석

○ 전북지역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수요전망을 보면 2010~2020년까지 총 2.8~13.3㎢의 신규 산업용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09년 말 현재 전북지역에서 기 지정된 산업단지 중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의 면적은 18.1㎢로 2020년까지의 수요 추정면적을 4.8~15.3㎢ 초과하고 있음. 이러한 산업용지 수급전망을 고려할 때 향후 산업용지 수요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 한 새만금산업단지, 김제자유무역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산업단지는 주변 산업단지와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미분양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 전북지역 투자유치 환경

○ 전북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해 생산요소환경, 산업집적환경, 인프라환경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북의 투자환경은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북의 투자환경을 전북과 투자유치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충남, 충북, 강원, 경남, 경북, 전남 등 지방의 6개 도지역과 비

교하면 경북과 충북을 제외한 4개 도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자환경 구성 분야별로는 생산요소 환경에 있어서는 전북이 유리하나, 산업집적환경은 불리하며, 인프라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전북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방의 6개 도지역과 비교하면 전북은 산업집적 및 시장환경을 제외한 인력, 토지, 금융, 물적인프라 및 생활인프라 등 대부분의 투자환경지표에서 비교적 우수함. 특히 광역교통망의 개통과 함께 물적인프라의 여건이 개선된 반면, 산업집적환경은 다른 도지역에 비해 취약함

## ❑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 전북의 새만금산업단지, 김제자유무역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이들 산업단지와 투자유치 경쟁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소재 6개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을 비교분석함. 분석지표는 생산요소, 산업집적, 인프라, 정주환경 등 4개 분야의 21개 지표를 사용함

○ 분석결과 전북의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자유무역지역 등 3개 산업단지는 6개 비교대상 산업단지에 비해 비교적 산업입지여건이 유리하였음. 전체적으로 3개 산업단지 모두 용지취득이 용이하고 지가가 저렴한 강점을 지니고 있음. 또한 인력여건과 정주여건도 대체로 양호하며 유치대상 업종의 특화도도 높은 이점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주요 수출입 항만과의 접근성이 불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방향: 전북지역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여건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장점은 저렴한 지가, 산업용지 취득의 용이성, 낮은 임금수준, 안정적인 노사관계, 양호한 정주환경, 광역접근성의 개선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에 대한 기업홍보를

강화하여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반면, 전북지역의 투자유치여건에 있어서 산업집적의 부족, 시장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및 사업서비스 부족 등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①전략산업 특화지역 조성, ②생산기반기업 육성, ③산학연협력을 통한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④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보조금 지원, ⑤공동물류센터 조성, ⑥지역이미지 구축 및 홍보, ⑦핵심 유치대상기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3. 정책제언

## ❑ 산업용지 공급시기 조정

○ 전북지역 산업용지 수급전망을 보면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기지정된 산업단지의 조성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조성이 미착수된 산업단지에 대해 조성시기를 새만금산업단지 1단계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로 연기하고 산업용지 수급추이를 반영하여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 지정되었으나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성이 지연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장기적인 조성지연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선 토지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토지 매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투자보조금액 비공개제도 도입

○ 전북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대규모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기여도 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역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에 대한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액을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투자유치 펀드 조성

○ 전북의 취약한 산업집적수준을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역 내·외의 유망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투자유치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생산기반기업, 전략산업분야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지원을 담당하는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투자유피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산학연 협력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도입

○ 지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여 전북의 부족한 투자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학 및 기업지원기관의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지만 전북의 산학연 협력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따라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 산학연 협력성과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 ❑ 투자유치 애로해소 사례집 발간

○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애로해소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이 필요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지역의 지가, 인프라, 산업환경, 정주환경 등 투자여건뿐만 아니라 투자지역 지자체의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도 중요시하고 있음. 이러한 지자체의 지원은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제도적 지원도 투자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요소로 작용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으나, 비제도적 지원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된 애로해소 사례들을 유형별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목 차


제 1 장 서 론 ····· 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 3 절 보고서의 구성 ····· 5

제 2 장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과 수급 전망 ····· 9
제 1 절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 ····· 9
1. 전북 제조업의 입지 동향 ····· 9
2. 전북의 산업입지 현황 ····· 14
제 2 절 전북의 산업입지 수급전망 ····· 22
1. 산업입지 수요 전망 ····· 22
2. 산업입지 수급 전망 ····· 25
제 3 절 소 결 ····· 29

제 3 장 전북지역 투자환경 분석 ····· 33
제 1 절 지역투자환경 결정요인 ····· 33
제 2 절 분석방법 ····· 37
1. 지역투자환경 측정지표 구성 ····· 37
2. 분석방법 ····· 38
제 3 절 전북지역 투자환경 분석 결과 ····· 43
1. 연도별 투자환경 ····· 43
제 4 절 소 결 ····· 49

제 4 장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분석 ····· 53
제 1 절 전북 주요산단 현황 ····· 53
1. 새만금 산업단지 ····· 53
2.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 55
3. 김제자유무역지역 ····· 58

제 2 절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 60
1. 분석방법 ····· 60
2. 주요 입지요인 비교 ····· 65
3. 종합비교 ····· 76

**제 5 장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 83**
제 1 절 전북 이전기업의 입지환경 인식 ····· 83
1. 분석자료 ····· 83
2. 전북의 입지환경 인식 ····· 83
제 2 절 전북지역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 88
1.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과 개선방향 ····· 88
2.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 90

**제 6 장 요약 및 정채제언 ····· 97**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97
1. 전북지역 산업용지 수급전망 ····· 97
2. 전북지역 투자유치 환경 ····· 97
3.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 98
4.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 98
제 2 절 정책제언 ····· 100
1. 산업용지 수급시기 조정 ····· 100
2. 투자보조금액 비공개제도 도입 ····· 100
3. 투자유치 펀드 조성 ····· 100
4. 산학연 협력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도입 ····· 101
5. 투자유치 애로해소집 발간 ····· 101

**■ 참고문헌 ····· 105**

**■ 부 록 ····· 109**

# 표 목 차

〈표 2-1〉 전북의 지역별 제조업 현황 ····· 9
〈표 2-2〉 전북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2008) ····· 10
〈표 2-3〉 전북의 10대 제조업 현황(2008) ····· 11
〈표 2-4〉 전북 제조업 규모별 현황(2008) ····· 11
〈표 2-5〉 2000년대 이후 전북 기업유치 현황 ····· 12
〈표 2-6〉 전북 제조업의 변화(2000~2008) ····· 13
〈표 2-7〉 전국 시·도별 공장용지 현황 ····· 14
〈표 2-8〉 입지유형별 공장입지 현황(2009) ····· 16
〈표 2-9〉 산업단지 개발현황 ····· 17
〈표 2-10〉 전북 국가산업단지 개발현황 ····· 17
〈표 2-11〉 전북 일반산업단지 개발현황 ····· 18
〈표 2-12〉 전북 농공단지 개발현황 ····· 19
〈표 2-13〉 전북 시군별 공장용지 변화 추이 ····· 20
〈표 2-14〉 전북 공장용지의 시군별 비중 추이 ····· 21
〈표 2-15〉 전북 주요 산업지역의 공장용지 증가면적 추이 ····· 21
〈표 2-16〉 산업연구원의 산업입지관련 지표전망 결과 ····· 22
〈표 2-17〉 국토해양부의 산업용지 전망치 ····· 23
〈표 2-18〉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용지 수요전망 ····· 23
〈표 2-19〉 전라북도의 전북 산업용지 공급면적 추정(2010~2020) ····· 24
〈표 2-20〉 전북 산업용지 수요추정 종합 ····· 24
〈표 2-21〉 전라북도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향후 공급가능면적 (2009년말 현재) ····· 25
〈표 2-22〉 전북지역 기 지정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 (2009년말 현재) ····· 26
〈표 2-23〉 전라북도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안) ····· 27
〈표 2-24〉 전북 시·군별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수급전망 ····· 28
〈표 3-1〉 Roger(1998)의 기업의 입지결정요인 ····· 34
〈표 3-2〉 대우경제연구소(1992)의 입지결정요인 ····· 34
〈표 3-3〉 산업별 입지요인 특성(대우경제연구소, 1992) ····· 35

〈표 3-4〉 산업별 입지요인 특성(국토연구원 2005) ····· 36
〈표 3-5〉 투자환경지수 구성요소 ····· 39
〈표 3-6〉 투자환경 측정지표 및 자료 원천 ····· 40
〈표 3-7〉 측정지표의 가중치 ····· 42
〈표 3-8〉 2000년도 지역별 투자환경지수 ····· 44
〈표 3-9〉 2008년도 지역별 투자환경지수 ····· 46
〈표 4-1〉 산업단지 비교 요인 및 측정지표 ····· 62
〈표 4-2〉 비교대상 산업단지 선정 결과 ····· 64
〈표 4-3〉 산업단지별 조성면적 및 분양가(임대료) ····· 66
〈표 4-4〉 산업단지별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 ····· 67
〈표 4-5〉 산업단지별 구직배율 ····· 67
〈표 4-6〉 통근권역별 잠재 노동력현황 ····· 68
〈표 4-7〉 통근권역별 주요 유치대상 업종의 특화도 ····· 69
〈표 4-8〉 통근권역별 식품제조업 산업집적 ····· 70
〈표 4-9〉 소비시장 접근성 ····· 71
〈표 4-10〉 항만 및 공항 접근성 ····· 72
〈표 4-11〉 산업단지별 교육환경 ····· 74
〈표 4-12〉 의료환경 ····· 74
〈표 4-13〉 산업단지 입지 시·군의 아파트매매가 ····· 75
〈표 4-14〉 산업단지 입지 시 · 도의 1인당 월평균 가계최종소비지출액 ····· 76
〈표 4-15〉 산업단지 입지여건 종합 비교 ····· 78
〈표 5-1〉 전북으로 이전 동기 ····· 84
〈표 5-2〉 전북의 기업유치 여건에 대한 만족도 ····· 85
〈표 5-3〉 전북 주요산단의 투자유치여건 설명자료(예시) ····· 94

# 그림목차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 5
〈그림 2-1〉 전북의 공장용지 증가율 ····· 15
〈그림 3-1〉 2000년도 지역별 투자환경지수 ····· 43
〈그림 3-2〉 2000년도 투자환경 분야별 지수 ····· 44
〈그림 3-3〉 지방 6개 지역과 비교한 전북의 투자유치환경(2000) ····· 45
〈그림 3-4〉 2008년도 지역별 투자환경지수 ····· 47
〈그림 3-5〉 2008년도 투자환경 분야별 지수 ····· 47
〈그림 3-6〉 지방 6개 지역과 비교한 전북의 투자유치환경(2008) ····· 48
〈그림 3-7〉 전북의 투자유치환경 구성요소별 순위 변화 ····· 48
〈그림 4-1〉 새만금산업단지 위치 ····· 53
〈그림 4-2〉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위치 ····· 56
〈그림 4-3〉 김제자유무역지역 위치 ····· 58
〈그림 4-4〉 순차적 입지결정과정 모형(산업연구원, 1987) ····· 61
〈그림 4-5〉 비교대상 산업단지의 입지 ····· 64
〈그림 5-1〉 이전기업의 입지선정 정보획득(다중응답) ····· 86
〈그림 5-2〉 제반 이전절차에 소요된 기간 ····· 87

# 제 1 장

#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3 절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촉진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전북에서도 그 동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전북지역에는 2000년대 중반이후 LS엠트론, 현대중공업, OCI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의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전북지역에서는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산업단지 공급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조성이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0~2013년 사이에만도 신규로 공급될 예정인 산업단지의 분양면적이 약 13.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지역의 투자유치 확대는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들 신규 공급예정인 산업단지 면적에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개발중인 새만금 산업지구 및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제외된 것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전북지역의 산업단지 투자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전북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규 조성예정인 산업단지 가운데 규모가 크고 전북지역 발전에 미치는 정책적 함의가 큰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자유무역지역 등 전북지역의  3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여건에 대해 분석하여 이들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전북지역에서 신규 조성되고 있는 3개 주요 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자유무역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투자유치 여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북지역 3개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은 지역 수준과 산업단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입지결정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점차 범위를 축소하여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탐색과정을 거치므로 특정 산업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투자유치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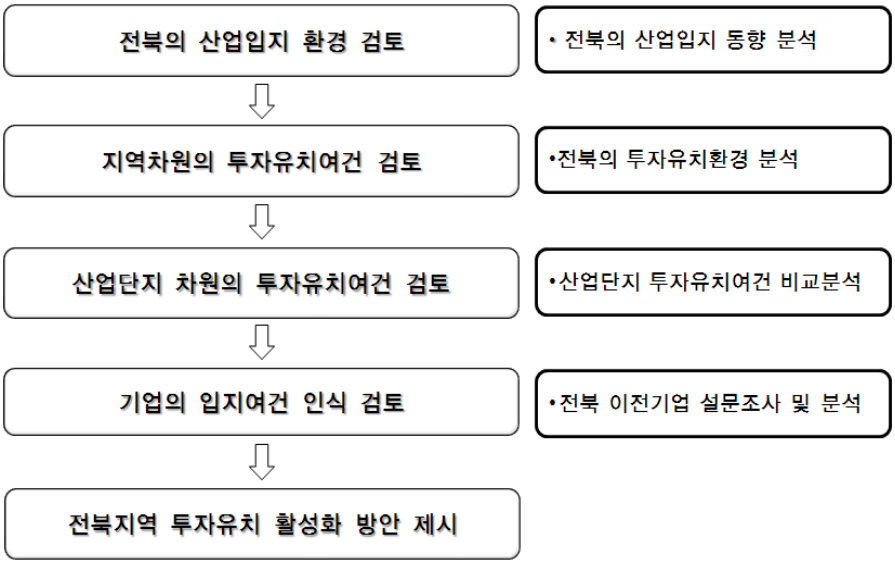
지역수준에서의 투자유치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산업단지가 속해 있는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북지역의 투자유치환경에 대한 분석은 기업의 주요 입지결정요인인 생산요소 요인, 산업집적요인, 인프라 요인 등을 중심으로 관련 지표를 선정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북지역 3개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해서는 문헌조사 및 투자유치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에 중요한 핵심 입지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여건은 여타의 투자유치 경쟁지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것이므로 전북과 투자유치 경쟁관계에 있는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등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대상 산업단지의 선정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식품산업특화전문단지 등 전북의 3개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비교대상 산업단지의 특성 및 투자유치 여건에 대한 분석을 위해 문헌자료 조사와 함께 현장방문을 통한 관계자 면담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 제 3 절 보고서의 구성

보고서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을 개관하였다. 2장은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에 대해 분석하여 전북의 투자유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및 전망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지역차원의 투자유치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북의 투자유치환경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전북의 분석대상 3개 산업단지를 개관하고 전국의 6개 비교대상 산업단지와 핵심 입지결정요인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전북의 3개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에서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전북으로 이전하여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한 정성적 측면의 여건을 분석하고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전북 및 3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과 수급전망

제 1 절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
제 2 절 전북의 산업입지 수급전망
제 3 절 소결

# 제 2 장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과 수급 전망

## 제 1 절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

### 1. 전북 제조업의 입지 동향

#### 1) 일반적 현황

전북의 제조업은 2008년 현재 업체 수는 9,148개, 종사자수는 약 8만5천명으로, 각각 전국의2.9%와 2.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김제, 정읍 등에 집중되어 있다. 사업체수는 전주, 익산, 군산, 김제의 순으로, 종사자수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의 순으로 분포해 있다.

〈표 2-1〉 전북의 지역별 제조업 현황

(단위 : 개, 명, %)

| 구 분 | 제조업 | | | |
|---|---|---|---|---|
|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전 북 | 9,148 | 100.0 | 84,633 | 100.0 |
| 전주시 | 2,057 | 22.5 | 11,155 | 13.2 |
| 군산시 | 1,213 | 13.3 | 17,163 | 20.3 |
| 익산시 | 1,871 | 20.5 | 20,076 | 23.7 |
| 정읍시 | 663 | 7.2 | 5,747 | 6.8 |
| 남원시 | 580 | 6.3 | 3,182 | 3.8 |
| 김제시 | 710 | 7.8 | 6,906 | 8.2 |
| 완주군 | 467 | 5.1 | 13,139 | 15.5 |
| 진안군 | 185 | 2.0 | 831 | 1.0 |
| 무주군 | 125 | 1.4 | 305 | 0.4 |
| 장수군 | 126 | 1.4 | 657 | 0.8 |
| 임실군 | 197 | 2.2 | 1,165 | 1.4 |
| 순창군 | 240 | 2.6 | 1,097 | 1.3 |
| 고창군 | 378 | 4.1 | 1,688 | 2.0 |
| 부안군 | 336 | 3.7 | 1,522 | 1.8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8.

업종별로는 사업체수로는 음식료, 자동차, 비금속, 의복, 조립금속의 순으로, 종사자수로는 자동차, 음식료, 화학, 비금속, 전자의 순으로, 생산액으로는 자동차, 화학, 음식료, 1차금속, 종이의 순으로 비중이 높다. 전북 제조업 가운데 입지계수가 2.0 이상으로 특화된 업종은 음식료, 목재 및 나무제품, 종이, 화학제품, 의약품, 비금속광물, 자동차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산업을 거쳐 IT,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비추어 산업발전이 지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 전북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2008)

(단위: %)

| | 전국 | | | 전북 | | | 입지계수 | | |
|---|---|---|---|---|---|---|---|---|---|
| | 사업체 | 종사자 | 생산액 | 사업체 | 종사자 | 생산액 | 사업체 | 종사자 | 생산액 |
| 제조업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 식료품 | 6.5 | 6.0 | 4.2 | 16.9 | 17.0 | 13.9 | 2.6 | 2.8 | 3.3 |
| 음료 | 0.4 | 0.5 | 0.7 | 1.7 | 1.6 | 2.2 | 3.7 | 3.1 | 3.1 |
| 담배 | 0.0 | 0.1 | 0.3 | - | - | - | - | - | - |
|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 5.3 | 3.7 | 1.5 | 3.7 | 3.3 | 1.0 | 0.7 | 0.9 | 0.7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 4.9 | 3.2 | 1.3 | 8.6 | 3.7 | 0.9 | 1.7 | 1.1 | 0.7 |
| 가죽, 가방 및 신발 | 1.3 | 0.8 | 0.4 | 0.1 | - | - | 0.1 | - | - |
|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 1.3 | 0.7 | 0.4 | 3.0 | 1.7 | 1.2 | 2.2 | 2.4 | 3.2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2.5 | 2.0 | 1.6 | 3.5 | 3.9 | 4.4 | 1.4 | 1.9 | 2.8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2.3 | 1.2 | 0.4 | 0.7 | 0.2 | 0.1 | 0.3 | 0.2 | 0.2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 0.2 | 0.4 | 10.5 | 0.2 | 0.1 | 0.1 | 1.0 | 0.2 | 0.0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 3.9 | 4.0 | 8.9 | 6.6 | 8.6 | 18.0 | 1.7 | 2.1 | 2.0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0.7 | 1.1 | 1.0 | 0.9 | 1.3 | 2.1 | 1.3 | 1.2 | 2.0 |
| 비금속광물제품 | 8.4 | 7.0 | 3.9 | 5.8 | 3.8 | 2.4 | 0.7 | 0.5 | 0.6 |
| 제1차 금속산업 | 4.0 | 3.2 | 2.4 | 10.4 | 7.2 | 4.2 | 2.6 | 2.3 | 1.8 |
|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 4.0 | 4.9 | 11.6 | 2.7 | 4.5 | 11.2 | 0.7 | 0.9 | 1.0 |
| 기타 기계 및 장비 | 13.7 | 9.1 | 4.9 | 8.4 | 4.1 | 1.5 | 0.6 | 0.4 | 0.3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 6.5 | 14.5 | 15.6 | 1.7 | 5.1 | 3.1 | 0.3 | 0.4 | 0.2 |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 2.9 | 2.3 | 1.0 | 0.6 | 0.3 | 0.1 | 0.2 | 0.1 | 0.1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6.1 | 5.7 | 4.2 | 2.5 | 1.9 | 1.9 | 0.4 | 0.3 | 0.5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13.7 | 10.7 | 7.0 | 6.4 | 5.8 | 3.9 | 0.5 | 0.5 | 0.6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5.2 | 10.6 | 10.5 | 12.2 | 23.2 | 26.5 | 2.4 | 2.2 | 2.5 |
| 기타 운송장비 | 2.2 | 6.0 | 6.5 | 0.5 | 0.4 | 0.2 | 0.2 | 0.1 | 0.0 |
| 가구 및 기타 제품 | 2.2 | 1.4 | 0.7 | 1.7 | 1.4 | 0.7 | 0.7 | 1.0 | 1.0 |
| 재생용 가공원료 | 1.5 | 0.9 | 0.3 | 1.2 | 0.6 | 0.3 | 0.7 | 0.7 | 1.0 |

주) 10인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2008.

〈표 2-3〉 전북의 10대 제조업 현황(2008)

(단위: %)

| 사업체수 기준 | | 종사자수 기준 | | 부가가치 기준 | |
|---|---|---|---|---|---|
| 업종 | 비중 | 업종 | 비중 | 업종 | 비중 |
| 식료품 | 16.9 | 자동차・트레일러 | 23.2 | 자동차・트레일러 | 21.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12.2 | 식료품 | 17.0 | 화학물질・화학제품 | 18.3 |
| 비금속 광물제품업 | 10.4 | 화학물질・화학제품 | 8.6 | 1차 금속 | 12.2 |
| 의복・악세서리・모피 | 8.6 | 비금속 광물제품 | 7.2 | 식료품 | 11.8 |
| 금속가공제품 | 8.4 | 기타 기계・장비 | 5.8 | 비금속 광물제품 | 5.5 |
| 화학물질・화학제품 | 6.6 | 전자・영상・음향・통신 | 5.1 | 기타 기계・장비 | 5.1 |
| 기타 기계・장비 | 6.4 | 1차 금속 | 4.5 | 펄프・종이・종이제품 | 4.2 |
| 고무・플라스틱제품 | 5.8 | 금속가공제품 | 4.1 | 음료 | 4.1 |
| 섬유제품 | 3.7 | 펄프・종이・종이제품 | 3.9 | 의료용 물질・의약품 | 3.0 |
| 펄프・종이・종이제품 | 3.5 | 고무・플라스틱제품 | 3.8 | 전자・영상・음향・통신 | 2.9 |
| 계 | 82.6 | 계 | 83.2 | 계 | 89.1 |

주) 10인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2008.

종사자 규모별 업체수는 소기업이 97.3%, 중기업이 2.5%, 대기업이 0.2%이며, 종사자수로는 소기업이 50.4%, 중기업이 28.3%, 대기업이 21.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기업의 비중이 낮고 중기업 및 대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 전북 제조업 규모별 현황(2008)

| 구분 | 전국 | | 전북 | |
|---|---|---|---|---|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 제조업 | 100.0 | 100.0 | 100.0 | 100.0 |
| 50인 미만 | 97.2 | 54.3 | 97.3 | 50.4 |
| 50~299인 | 2.6 | 25.7 | 2.5 | 28.3 |
| 300인 이상 | 0.2 | 20.1 | 0.2 | 21.2 |

주) 소기업: 50인 미만,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8.

전북 제조업의 업종구조 변화와 대기업의 높은 비중은 2005년 이후 활발해진 기업유치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00년 이후 전라북도에 이전해온 국내기업은 총 603개 업체로 이중 87%에 달하는 546개 기업이 2005년 이후 이전해 왔다.

2005년 이후 전북이전기업의 총 투자액은 6조 2,152억 원이다. 또한 2005년 이후 전북에 투자한 외국 기업 수는 22개이며 투자액은 4억 1,971만 달러로 이 중 신규투자기업이 13개이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전북지역에 입지한 1,000인 이상 대기업으로 현대자동차, 지엠대우테크놀로지, 현대중공업 등이 있다.

〈표 2-5〉 2000년대 이후 전북 기업유치 현황

(단위 : 기업유치 - 개, 억원, 명, 외자유치 - 개, 천$, 개)

| 연 도 | 국내기업 | | | 외국기업 | | | |
|---|---|---|---|---|---|---|---|
| | 업체수 | 투자액 | 종업원수 | 업체수 | 투자액 | 투 자 유 형 | |
| | | | | | | 신 규 | 증 설 |
| 계 | 603 | 63,694 | 41,559 | 22 | 419,707 | 13 | 9 |
| 2000 | 3 | 0 | 0 | | | | |
| 2001 | 14 | 0 | 0 | | | | |
| 2002 | 26 | 0 | 0 | | | | |
| 2003 | 14 | 718 | 730 | | | | |
| 2004 | 22 | 824 | 797 | | | | |
| 2005 | 71 | 16,096 | 7,900 | 3 | 44,010 | 1 | 2 |
| 2006 | 101 | 9,504 | 8,988 | 5 | 38,053 | - | 5 |
| 2007 | 165 | 11,221 | 3,566 | 10 | 332,244 | 8 | 2 |
| 2008 | 96 | 18,091 | 12,510 | 3 | 3,400 | 3 | |
| 2009 | 91 | 7,240 | 7,068 | 1 | 2,000 | 1 | |

주: 시·군 공장설립 승인과 도의 MOU체결 시점 기준으로 예상 투자 및 고용계획임.
자료 : 전라북도, 도정현황통계시스템(고객센터 > 전북통계월보 > 통계로 본 전북)

## 2) 변화추이

전북 제조업은 2000~2008년간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사업체수는 1,285개에서 1,388개로, 종사자수는 67,378명에서 66,754명으로, 생산액은 약 15조 942억원에서 29조 771억원으로 변화하였다. 동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사업체수가 1.0%, 종사자수가 -0.1%, 생산액이 8.5%로 생산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종사자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산업구조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북의 제조업 성장률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모두 전국 평균 성장률 1.7%, 0.8%, 9.7%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북 제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표 2-6〉 전북 제조업의 변화(2000~2008)

(단위: %)

| | 전국(연평균성장률) | | | 전북(연평균성장률) | | |
|---|---|---|---|---|---|---|
| | 사업체 | 종사자 | 생산액 | 사업체 | 종사자 | 생산액 |
| 제조업 전체 | 1.7 | 0.8 | 9.7 | 1.0 | -0.1 | 8.5 |
| 식료품 | 2.3 | 0.5 | 6.7 | 4.9 | 4.1 | 8.6 |
| 음료 | -0.2 | -2.8 | 3.7 | 3.9 | 2.3 | 5.9 |
| 담배 | -2.1 | -1.6 | -1.5 | - | - | - |
|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 -4.8 | -8.8 | -3.4 | -2.8 | -6.5 | 0.4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 -5.8 | -6.7 | 5.0 | -10.1 | -15.5 | -8.4 |
| 가죽, 가방 및 신발 | -7.1 | -9.4 | -2.5 | 9.1 | - | - |
|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 0.1 | -0.9 | 6.4 | -2.2 | -1.0 | 4.1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1.7 | 0.6 | 4.3 | -1.5 | -3.5 | 0.3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2.1 | 1.5 | 6.1 | 22.3 | - | -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 3.5 | -1.4 | 14.5 | 5.2 | - | -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 4.2 | -0.2 | 9.4 | 6.5 | 1.3 | 10.8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3.2 | -0.9 | 9.3 | 8.0 | 9.2 | 18.0 |
| 비금속광물제품 | 3.1 | 2.7 | 10.3 | 0.6 | 2.2 | 8.5 |
| 제1차 금속산업 | 0.9 | -0.3 | 6.4 | 0.5 | -0.6 | 3.1 |
|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 6.9 | 2.9 | 15.3 | 11.9 | 3.8 | 21.3 |
| 기타 기계 및 장비 | 5.8 | 4.5 | 13.1 | 6.6 | 3.5 | 10.6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 1.3 | 1.3 | 6.6 | -3.3 | -5.8 | -2.7 |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 4.3 | 3.8 | 11.1 | 1.5 | -10.5 | 0.6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0.9 | -0.2 | 8.2 | 1.9 | -0.1 | 14.0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3.2 | 2.8 | 11.6 | 2.0 | 5.0 | 18.0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4.3 | 3.3 | 10.4 | 7.4 | 4.3 | 10.0 |
| 기타 운송장비* | 6.9 | 5.5 | 18.2 | 17.0 | 17.7 | 20.6 |
| 가구 및 기타 제품 | 2.8 | 2.2 | 10.0 | 6.4 | 12.8 | 22.8 |
| 재생용 가공원료 | -2.9 | -6.3 | -0.6 | -9.0 | -12.3 | -4.7 |

* 2000~2008년의 연평균성장률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각년도

한편, 생산액의 증가에 비해 종사자수는 감소하여 거의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북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의 양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북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와 함께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성장이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지역의 고용으로 연결되는 속도는 늦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조립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 중화학 분야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식료품을 제외한 경공업 분야는 성장이 침체 내지는 둔화되고 있다.

## 2. 전북의 산업입지 현황

지식경제부의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FEMIS)자료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장용지는 640㎢에 달하고 있으며, 경기, 경북, 경남, 충남, 전남, 충북, 울산의 순으로 공장용지 절대규모가 크다. 전북의 경우는 총 36.7㎢로 전국 공장용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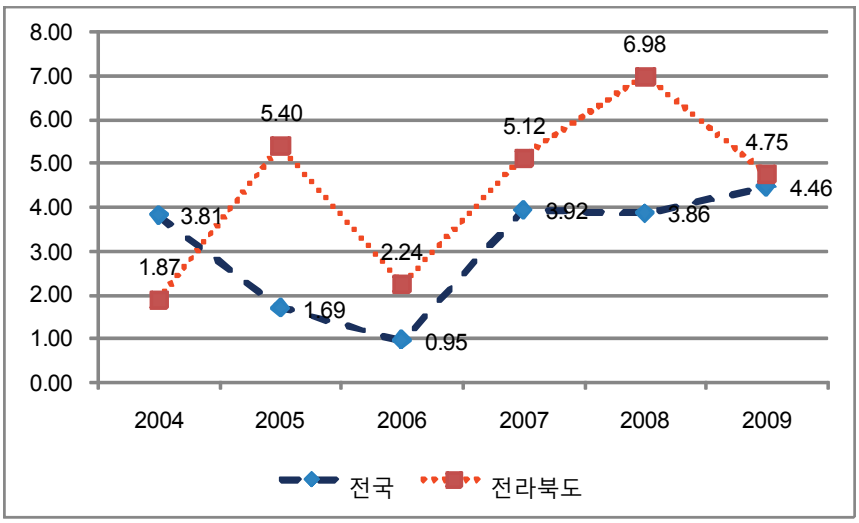
〈표 2-7〉 전국 시·도별 공장용지 현황

(단위: 천㎡)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연평균 증가율 |
|---|---|---|---|---|---|---|---|---|
| 전국 | 533,089 | 553,400 | 562,735 | 568,069 | 590,348 | 613,111 | 640,475 | 3.11 |
| 서울특별시 | 5,403 | 5,186 | 4,532 | 4,325 | 4,134 | 3,932 | 3,735 | -5.97 |
| 부산광역시 | 17,022 | 19,061 | 19,232 | 17,457 | 18,119 | 19,274 | 19,775 | 2.53 |
| 대구광역시 | 13,622 | 13,582 | 12,573 | 13,423 | 13,000 | 13,628 | 13,907 | 0.35 |
| 인천광역시 | 22,781 | 22,543 | 22,424 | 20,306 | 20,065 | 20,042 | 20,134 | -2.04 |
| 광주광역시 | 10,018 | 10,459 | 10,784 | 12,319 | 12,364 | 11,363 | 11,417 | 2.20 |
| 대전광역시 | 7,535 | 7,703 | 7,572 | 6,807 | 7,126 | 7,508 | 7,551 | 0.04 |
| 울산광역시 | 41,325 | 41,821 | 42,110 | 42,142 | 42,850 | 44,212 | 45,784 | 1.72 |
| 경기도 | 100,893 | 108,736 | 111,713 | 112,651 | 120,809 | 124,558 | 129,804 | 4.29 |
| 강원도 | 17,880 | 19,189 | 18,319 | 18,346 | 17,038 | 17,145 | 17,597 | -0.27 |
| 충청북도 | 38,830 | 39,206 | 40,580 | 42,237 | 44,300 | 45,715 | 48,874 | 3.91 |
| 충청남도 | 54,059 | 56,734 | 58,283 | 60,177 | 62,923 | 68,650 | 73,186 | 5.18 |
| 전라북도 | 28,375 | 28,907 | 30,468 | 31,151 | 32,746 | 35,032 | 36,695 | 4.38 |
| 전라남도 | 48,716 | 49,655 | 51,149 | 50,836 | 52,602 | 55,820 | 59,249 | 3.32 |
| 경상북도 | 65,989 | 67,945 | 68,457 | 69,939 | 72,054 | 73,687 | 76,515 | 2.50 |
| 경상남도 | 58,499 | 60,450 | 62,235 | 63,601 | 67,800 | 70,028 | 73,720 | 3.93 |
| 제주도 | 2,143 | 2,226 | 2,303 | 2,352 | 2,423 | 2,515 | 2,529 | 2.80 |

자료: 지식경제부,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FEMIS), 각년도

전북의 공장용지는 산업생산의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과는 달리 2000년대 중반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전국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공장용지 증가율은 2003~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3.1% 수준으로 1981~2003년까지 연평균 3.8%씩 증가하던 것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2003~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4.4%로 충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 기간 동안 전북의 공업용지 면적은 8.3㎢가 증가하였다.




〈그림 2-1〉 전북의 공장용지 증가율

입지유형별 전북의 공장용지 현황을 보면, 전북의 계획입지 비율은 69.1%인 반면, 전국은 48.0%로 전국에 비해 계획입지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의 계획입지 비율은 9개 도 가운데 전남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전북의 산업단지 개발현황을 보면 2009년말 현재 국가산업단지 3개, 일반산업단지 1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46개가 있다. 분양률은 97.3%로 전국의 99.3%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2009년말 현재 미분양 면적은 0.7㎢이나 2010년 1분기 말에는 0.5㎢로 감소하여 전체 분양률이 98.1%로 증가하는 등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표 2-8〉 입지유형별 공장입지 현황(2009)

(단위 : ㎡, %)

| 시도 | 개별입지 | | 계획입지 | | 합계 | |
|---|---|---|---|---|---|---|
| 서울특별시 | 2,986,678 | 80.0 | 748,771 | 20.0 | 3,735,449 | 100.0 |
| 부산광역시 | 11,262,636 | 57.0 | 8,512,292 | 43.0 | 19,774,928 | 100.0 |
| 대구광역시 | 4,013,736 | 28.9 | 9,893,015 | 71.1 | 13,906,751 | 100.0 |
| 인천광역시 | 12,086,708 | 60.0 | 8,048,235 | 40.0 | 20,134,942 | 100.0 |
| 광주광역시 | 2,831,261 | 24.8 | 8,586,143 | 75.2 | 11,417,403 | 100.0 |
| 대전광역시 | 2,242,372 | 29.7 | 5,309,096 | 70.3 | 7,551,468 | 100.0 |
| 울산광역시 | 4,581,569 | 10.0 | 41,202,901 | 90.0 | 45,784,471 | 100.0 |
| 경기도 | 96,724,067 | 74.5 | 33,080,211 | 25.5 | 129,804,278 | 100.0 |
| 강원도 | 12,511,176 | 71.1 | 5,085,885 | 28.9 | 17,597,060 | 100.0 |
| 충청북도 | 32,875,584 | 67.3 | 15,999,248 | 32.7 | 48,874,831 | 100.0 |
| 충청남도 | 51,450,726 | 70.3 | 21,735,513 | 29.7 | 73,186,239 | 100.0 |
| 전라북도 | 11,334,276 | 30.9 | 25,360,576 | 69.1 | 36,694,852 | 100.0 |
| 전라남도 | 14,570,640 | 24.6 | 44,677,927 | 75.4 | 59,248,567 | 100.0 |
| 경상북도 | 35,103,544 | 45.9 | 41,411,024 | 54.1 | 76,514,568 | 100.0 |
| 경상남도 | 36,025,589 | 48.9 | 37,694,551 | 51.1 | 73,720,141 | 100.0 |
| 제주도 | 2,313,467 | 91.5 | 215,715 | 8.5 | 2,529,182 | 100.0 |
| 전국 | 332,914,028 | 52.0 | 307,561,101 | 48.0 | 640,475,129 | 100.0 |

자료: 지식경제부,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FEMIS).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는 군산, 군장, 익산1국가단지가 있으며, 군장단지와 익산단지 내에 자유무역지역이 일부 조성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군산, 김제 순동, 익산 제2, 전주 제1, 전주 제2, 정읍 제 1, 2, 3단지, 완주, 전주과학단지가 조성 완료된 상태이며, 전주친환경첨단복합단지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 중에 있다. 그 외에도 새만금, 김제지평선, 익산, 익산종합의료과학, 정읍첨단과학단지가 지정은 되었으나 미개발상태에 있다. 농공단지의 경우 총 46개 중 4개가 현재 조성중이며, 익산 금마, 정읍 태인 농공단지 2개가 미개발된 것을 제외하면 40개가 조성 완료된 상태이다.

지역별로는 군장국가산단과 군산국가산단이 위치한 군산시의 산업단지 면적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익산시, 완주군의 순으로 이들 3개 시·군의 산업단지가 전북 전체의 65.0%인 23.9㎢를 차지한다. 이들 3개 시·군과 함께 전주시, 김제시, 정읍시가 전북 산업단지 면적의 86.5%인 36.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9〉 산업단지 개발현황

(단위 : 개, 천㎡, %)

| 시도 | 유형 | 단지수 | 지정면적 | 관리면적 | 산업시설구역 | | | | |
|---|---|---|---|---|---|---|---|---|---|
| | | | | | 전체면적 | 분양대상 | 분양 | 미분양 | 분양률 |
| 전국 | 국가 | 40 | 862,681 | 556,132 | 268,244 | 234,883 | 233,172 | 1,711 | 99.3 |
| | 일반 | 368 | 422,461 | 416,440 | 251,548 | 125,036 | 119,637 | 5,399 | 95.7 |
| | 도시첨단 | 6 | 720 | 720 | 374 | 67 | 67 | - | 100.0 |
| | 농공 | 401 | 63,925 | 63,660 | 49,808 | 43,820 | 42,676 | 1,144 | 97.4 |
| 전북 | 국가 | 3 | 65,586 | 22,818 | 16,282 | 16,282 | 15,855 | 427 | 97.4 |
| | 일반 | 17 | 46,719 | 46,700 | 28,429 | 14,230 | 14,145 | 85 | 99.4 |
| | 도시첨단 | 1 | 110 | 110 | 39 | 39 | 39 | - | 100.0 |
| | 농공 | 46 | 8,017 | 8,002 | 6,416 | 5,744 | 5,502 | 242 | 95.8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9.12)

〈표 2-10〉 전북 국가산업단지 개발현황

(단위 : 개, 천㎡, %)

| 단지명 | 지정 면적 | 관리 면적 | 산업시설구역 | | | | |
|---|---|---|---|---|---|---|---|
| | | | 전체면적 | 분양대상 | 분양 | 미분양 | 분양률 |
| 군산 | 13,702 | 6,828 | 5,577 | 5,577 | 5,577 | - | 100.0 |
| 군장 | 50,458 | 14,577 | 9,577 | 9,577 | 9,150 | 427 | 95.5 |
| 군장(구:군산지구) | 49,202 | 13,495 | 8,495 | 8,495 | 8,476 | 19 | 99.8 |
| 군산(자유무역) | 1,256 | 1,082 | 1,082 | 1,082 | 674 | 408 | 62.3 |
| 익산1 | 1,426 | 1,413 | 1,128 | 1,128 | 1,128 | - | 100.0 |
| 익산 | 1,128 | 1,116 | 831 | 831 | 831 | - | 100.0 |
| 익산(자유무역) | 298 | 297 | 297 | 297 | 297 | - | 100.0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9.12)

〈표 2-11〉 전북 일반산업단지 개발현황

(단위 : 개, 천㎡, %)

| 시군 | 단지명 | 조성 상태 | 지정 면적 | 관리 면적 | 산업시설구역 | | | | |
|---|---|---|---|---|---|---|---|---|---|
| | | | | | 전체면적 | 분양대상 | 분양 | 미분양 | 분양률 |
| 군산시 | 군산 | 완료 | 5,641 | 5,641 | 3,624 | 3,624 | 3,624 | - | 100.0 |
| | 새만금 | 미개발 | 18,700 | 18,700 | 10,120 | - | - | - | - |
| 김제시 | 김제순동 | 완료 | 262 | 262 | 186 | 186 | 186 | - | 100.0 |
| | 김제지평선 | 미개발 | 2,928 | 2,928 | 1,614 | - | - | - | - |
| 익산시 | 익산 | 미개발 | 2,794 | 2,794 | 1,580 | - | - | - | - |
| | 익산제2 | 완료 | 3,309 | 3,309 | 2,563 | 2,563 | 2,563 | - | 100.0 |
| | 익산종합의료과학 | 미개발 | 500 | 494 | 309 | - | - | - | - |
| 전주시 | 전주제1 | 완료 | 1,683 | 1,683 | 1,169 | 1,169 | 1,169 | - | 100.0 |
| | 전주제2 | 완료 | 687 | 687 | 531 | 531 | 531 | - | 100.0 |
| | 전주친환경첨단복합 | 조성중 | 290 | 290 | 157 | - | - | - | - |
| 정읍시 | 정읍제1 | 완료 | 202 | 202 | 153 | 153 | 153 | - | 100.0 |
| | 정읍제2 | 완료 | 999 | 999 | 668 | 668 | 661 | 7 | 99.0 |
| | 정읍제3 | 완료 | 1,025 | 1,025 | 757 | 757 | 757 | - | 100.0 |
| | 정읍첨단과학(RFT) | 미개발 | 898 | 897 | 419 | - | - | - | - |
| 부안군 | 부안신·재생에너지 | 조성중 | 356 | 356 | 143 | 143 | 71 | 72 | 49.7 |
| 완주군 | 완주 | 완료 | 3,371 | 3,359 | 2,615 | 2,615 | 2,615 | - | 100.0 |
| | 전주과학 | 완료 | 3,074 | 3,074 | 1,821 | 1,821 | 1,815 | 6 | 99.7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9.12)

〈표 2-12〉 전북 농공단지 개발현황

(단위 : 개, 천㎡, %)

| 시군 | 단지명 | 상태 | 지정면적 | 관리면적 | 산업시설구역 | | | | |
|---|---|---|---|---|---|---|---|---|---|
| | | | | | 전체면적 | 분양대상 | 분양 | 미분양 | 분양률 |
| 군산시 | 서수 | 완료 | 287 | 287 | 239 | 239 | 239 | - | 100.0 |
| | 성산 | 완료 | 142 | 142 | 126 | 126 | 126 | - | 100.0 |
| | 옥구 | 완료 | 140 | 130 | 103 | 103 | 103 | - | 100.0 |
| 김제시 | 대동전문 | 완료 | 331 | 331 | 247 | 247 | 247 | - | 100.0 |
| | 만경 | 완료 | 215 | 215 | 181 | 181 | 181 | - | 100.0 |
| | 봉황 | 완료 | 233 | 233 | 204 | 204 | 204 | - | 100.0 |
| | 서흥 | 완료 | 277 | 277 | 236 | 236 | 234 | 2 | 99.2 |
| | 월촌 | 완료 | 145 | 145 | 122 | 122 | 122 | - | 100.0 |
| | 황산 | 완료 | 73 | 73 | 55 | 55 | 55 | - | 100.0 |
| 남원시 | 광치 | 완료 | 140 | 139 | 117 | 117 | 117 | - | 100.0 |
| | 광치2 | 완료 | 113 | 112 | 96 | 96 | 96 | - | 100.0 |
| | 노암 | 완료 | 147 | 147 | 102 | 102 | 102 | - | 100.0 |
| | 노암제2 | 완료 | 167 | 167 | 115 | 115 | 5 | 110 | 4.4 |
| | 어현 | 완료 | 117 | 116 | 110 | 110 | 110 | - | 100.0 |
| | 인월 | 완료 | 51 | 50 | 31 | 31 | 31 | - | 100.0 |
| 익산시 | 낭산 | 완료 | 129 | 128 | 109 | 109 | 109 | - | 100.0 |
| | 삼기 | 완료 | 132 | 131 | 113 | 113 | 113 | - | 100.0 |
| | 왕궁 | 완료 | 330 | 330 | 246 | 246 | 246 | - | 100.0 |
| | 황등 | 완료 | 149 | 149 | 119 | 119 | 119 | - | 100.0 |
| | 익산금마(전문) | 미개발 | 329 | 326 | 251 | - | - | - | - |
| 정읍시 | 고부 | 완료 | 151 | 151 | 128 | 128 | 128 | - | 100.0 |
| | 농소 | 완료 | 186 | 185 | 176 | 176 | 176 | - | 100.0 |
| | 북면 | 완료 | 211 | 211 | 174 | 174 | 174 | - | 100.0 |
| | 신용전문 | 완료 | 143 | 143 | 105 | 105 | 96 | 9 | 91.4 |
| | 신태인 | 완료 | 150 | 150 | 120 | 120 | 120 | - | 100.0 |
| | 태인 | 미개발 | 240 | 241 | 188 | - | - | - | - |
| 고창군 | 고수 | 완료 | 105 | 105 | 80 | 80 | 80 | - | 100.0 |
| | 아산 | 완료 | 140 | 140 | 111 | 111 | 111 | - | 100.0 |
| | 흥덕 | 조성중 | 315 | 315 | 241 | 241 | 204 | 37 | 84.7 |
| 무주군 | 무주 | 완료 | 147 | 147 | 119 | 119 | 119 | - | 100.0 |
| | 안성 | 완료 | 94 | 94 | 79 | 79 | 79 | - | 100.0 |
| 부안군 | 부안 | 완료 | 149 | 149 | 116 | 116 | 116 | - | 100.0 |
| | 부안제2 | 조성중 | 338 | 345 | 255 | 255 | 255 | - | 100.0 |
| | 줄포 | 완료 | 89 | 89 | 68 | 68 | 68 | - | 100.0 |
| 순창군 | 가남 | 완료 | 83 | 82 | 61 | 61 | 61 | - | 100.0 |
| | 제2장류 | 완료 | 149 | 148 | 119 | 119 | 47 | 72 | 39.5 |
| | 풍산 | 완료 | 138 | 138 | 111 | 111 | 108 | 3 | 97.3 |
| 완주군 | 이서특별 | 완료 | 398 | 398 | 389 | 389 | 389 | - | 100.0 |
| 임실군 | 신평 | 완료 | 53 | 53 | 49 | 49 | 49 | - | 100.0 |
| | 오수 | 완료 | 132 | 132 | 93 | 93 | 93 | - | 100.0 |
| | 임실 | 조성중 | 147 | 147 | 118 | 76 | 76 | - | 100.0 |
| 장수군 | 장계 | 완료 | 290 | 289 | 204 | 204 | 195 | 9 | 95.6 |
| | 천천 | 완료 | 57 | 57 | 49 | 49 | 49 | - | 100.0 |
| 진안군 | 연장 | 완료 | 53 | 53 | 45 | 45 | 45 | - | 100.0 |
| | 진안제2 | 완료 | 146 | 146 | 105 | 105 | 105 | - | 100.0 |
| | 진안홍삼한방 | 조성중 | 266 | 266 | 191 | - | - | - | -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9.12)

〈표 2-13〉 전북 시군별 공장용지 변화 추이

(단위 : ㎡)

| 구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연평균 증가율 |
|---|---|---|---|---|---|---|---|
| 전주시 | 2,724,784 | 2,770,492 | 2,495,567 | 2,517,077 | 2,431,231 | 2,462,022 | -2.0% |
| 군산시 | 8,754,976 | 9,519,182 | 9,411,555 | 9,409,461 | 12,107,054 | 12,675,194 | 7.7% |
| 익산시 | 5,783,889 | 5,814,967 | 5,882,818 | 6,097,386 | 6,010,074 | 6,102,323 | 1.1% |
| 정읍시 | 2,185,859 | 2,406,038 | 2,607,894 | 2,716,103 | 2,539,380 | 2,666,500 | 4.1% |
| 남원시 | 1,123,748 | 1,255,612 | 1,329,601 | 1,388,360 | 1,272,213 | 1,290,833 | 2.8% |
| 김제시 | 2,169,480 | 2,270,278 | 2,392,483 | 3,184,467 | 2,673,931 | 2,740,164 | 4.8% |
| 완주군 | 3,849,151 | 3,993,951 | 4,289,710 | 4,539,592 | 4,876,241 | 5,093,412 | 5.8% |
| 진안군 | 265,576 | 291,442 | 289,714 | 326,771 | 384,783 | 433,007 | 10.3% |
| 무주군 | 182,137 | 194,963 | 199,274 | 210,281 | 190,705 | 319,197 | 11.9% |
| 장수군 | 151,656 | 189,762 | 202,755 | 237,913 | 296,126 | 414,497 | 22.3% |
| 임실군 | 351,298 | 378,042 | 387,181 | 398,999 | 407,487 | 438,720 | 4.5% |
| 순창군 | 414,478 | 419,283 | 461,168 | 464,927 | 483,074 | 537,577 | 5.3% |
| 고창군 | 522,489 | 536,449 | 574,656 | 536,005 | 543,927 | 719,222 | 6.6% |
| 부안군 | 427,582 | 427,582 | 627,202 | 718,670 | 815,332 | 802,185 | 13.4% |
| 전북합계 | 28,907,103 | 30,468,043 | 31,151,579 | 32,746,012 | 35,031,556 | 36,694,852 | 4.9% |

자료: 지식경제부,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FEMIS).

시·군중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 등이나 이들 지역의 산업용지 절대규모가 작아 전라북도 전체의 산업용지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가장 탁월한 증가세를 기록하는 지역은 군산시로 연평균 증가율이 7.7%로 높을 뿐 아니라 절대규모면에서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전주시의 공장용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량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익산시의 경우 정체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2-14〉 전북 공장용지의 시군별 비중 추이

(단위 : %)

| 구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전주시 | 9.4 | 9.1 | 8.0 | 7.7 | 6.9 | 6.7 |
| 군산시 | 30.3 | 31.2 | 30.2 | 28.7 | 34.6 | 34.5 |
| 익산시 | 20.0 | 19.1 | 18.9 | 18.6 | 17.2 | 16.6 |
| 정읍시 | 7.6 | 7.9 | 8.4 | 8.3 | 7.2 | 7.3 |
| 남원시 | 3.9 | 4.1 | 4.3 | 4.2 | 3.6 | 3.5 |
| 김제시 | 7.5 | 7.5 | 7.7 | 9.7 | 7.6 | 7.5 |
| 완주군 | 13.3 | 13.1 | 13.8 | 13.9 | 13.9 | 13.9 |
| 진안군 | 0.9 | 1.0 | 0.9 | 1.0 | 1.1 | 1.2 |
| 무주군 | 0.6 | 0.6 | 0.6 | 0.6 | 0.5 | 0.9 |
| 장수군 | 0.5 | 0.6 | 0.7 | 0.7 | 0.8 | 1.1 |
| 임실군 | 1.2 | 1.2 | 1.2 | 1.2 | 1.2 | 1.2 |
| 순창군 | 1.4 | 1.4 | 1.5 | 1.4 | 1.4 | 1.5 |
| 고창군 | 1.8 | 1.8 | 1.8 | 1.6 | 1.6 | 2.0 |
| 부안군 | 1.5 | 1.4 | 2.0 | 2.2 | 2.3 | 2.2 |
| 전북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28,907,103 | 30,468,043 | 31,151,579 | 32,746,012 | 35,031,556 | 36,694,852 |

자료: 지식경제부,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FEMIS).

또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등 5개 지역의 전년 대비 공장용지 증가규모를 살펴보면, 이들 지역의 공장용지 증가분이 전라북도 전체의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의 입지여건과 교통접근성,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등 향후 예상되는 대단위 국책사업을 고려할 경우 미래의 산업입지 수요도 당분간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5〉 전북 주요 산업지역의 공장용지 증가면적 추이

(단위: ㎡, %)

| 구분 | | 2001~2005 | 2001~2006 | 2001~2007 | 2001~2008 | 2001~2009 |
|---|---|---|---|---|---|---|
| 전북의 연평균 산업용지 증가면적 | | 1,560,940 | 683,536 | 1,594,434 | 2,285,543 | 1,663,296 |
| 군산+익산 | 증가면적 | 795,284 | -39775 | 212,473 | 2,610,281 | 660,390 |
| | 전북 증가면적중 비중 | 50.95 | -5.82 | 13.33 | 114.21 | 39.70 |
| 군산+익산+김제+정읍 | 증가면적 | 1,116,261 | 284,285 | 1,112,666 | 1,923,021 | 853,742 |
| | 전북 증가면적중 비중 | 71.51 | 41.59 | 69.78 | 84.14 | 51.33 |
| 군산+익산+김제+정읍+완주 | 증가면적 | 1,261,061 | 580,045 | 1,362,548 | 2,259,670 | 1,070,914 |
| | 전북 증가면적중 비중 | 80.79 | 84.86 | 85.46 | 98.87 | 64.39 |

자료: 지식경제부,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FEMIS).

# 제 2 절 전북의 산업입지 수급전망

## 1. 산업입지 수요 전망

전북의 산업입지 수요전망은 국토해양부(2007)와 한국산업단지공단(2007), 산업연구원(2006), 전라북도(2009) 등에서 추정한 기존의 장기수요 전망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4가지의 수요전망 중 가장 보수적인 전망은 산업연구원의 수요추정치로, 산업연구원(2006)에 의하면 2009년도 우리나라의 공장용지는 610㎢로 추정되었으며, 2015년도의 경우 65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2009년~2015년 중 공장용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1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2-16〉 산업연구원의 산업입지관련 지표전망 결과

| 구분 | 2003 | 2009 | 2015 | 연평균 증가율 | |
|---|---|---|---|---|---|
| | | | | 2003-2009 | 2009-2015 |
| 사업체수 | 112,662 | 134,810 | 163,245 | 3.04 | 3.24 |
| 종사자수(천인) | 2,735 | 3,009 | 2,886 | 1.60 | -0.69 |
| 생산액(억원) | 6,773,713 | 11,242,323 | 16,555,093 | 8.81 | 6.66 |
| 부지면적(㎢) | 529 | 610 | 654 | 2.40 | 1.16 |

국토해양부(2007)에서는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용지는 연평균 1.7%, 절대규모로는 연간 약 10㎢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북의 산업용지 수요는 2017년에 27.4~33.3㎢로 2007~2017년까지 신규 산업용지 수요는 4.2~9.3㎢로 추정하였다.

〈표 2-17〉 국토해양부의 산업용지 전망치

(단위: ㎢)

| 구분 | 현황 | 순수요 | | | 순수요 증가량 | | |
|---|---|---|---|---|---|---|---|
| | 2003 | 2007 | 2011 | 2017 | 07-'11 | '11-'17 | '07-'17 |
| 전국 | 520.8 | 564.2~567.6 | 605.2~611.9 | 664.2~672.7 | 37.6~47.7 | 59.0~60.8 | 96.6~108.5 |
| 전북 | 23.5 | 24.0~25.2 | 27.4~27.4 | 29.4~33.3 | 2.2~3.4 | 2.0~5.9 | 4.2~9.3 |
| 경기 | 99.1 | 109.2~112.8 | 122.0~121.1 | 134.3~138.0 | 9.2~11.9 | 13.2~16.0 | 25.1~25.2 |
| 강원 | 14.3 | 16.3~18.5 | 18.1~20.8 | 21.4~23.8 | 1.8~2.3 | 3.0~3.3 | 5.1~5.3 |
| 충북 | 33.5 | 36.0~36.4 | 39.2~41.5 | 43.5~43.7 | 3.2~5.1 | 2.0~4.5 | 7.1~7.7 |
| 충남 | 50 | 53.4~53.8 | 57.7~58.7 | 63.4~64.7 | 3.9~5.3 | 5.7~6.0 | 9.6~11.3 |
| 전남 | 46.4 | 48.8~50.9 | 52.0~53.6 | 53.8~54.9 | 1.1~4.8 | 1.3~1.8 | 2.9~6.1 |
| 경북 | 62.6 | 67.1~67.4 | 69.9~71.2 | 73.36~78.5 | 2.5~4.1 | 3.4~7.3 | 5.9~11.4 |
| 경남 | 59.3 | 66.0~67.8 | 70.5~72.1 | 77.3~82.7 | 2.7~6.1 | 6.8~10.6 | 9.5~16.7 |
| 제주 | 1.5 | 1.4~1.6 | 1.6~1.8 | 1.4~2.0 | 0.2~0.2 | -0.2~0.2 | 0.0~0.4 |

자료: 국토해양부, 2007,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

한국산업단지공단(2007)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용지 수요는 783.2㎢로, 2003년 대비 254.0㎢의 신규수요가 발생하여 연평균 14.9㎢가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북의 2020년 산업용지 수요는 약 35.4㎢로, 2003~2020년까지 신규 산업용지 수요는 약 11.8㎢로 추정하였다.

〈표 2-18〉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용지 수요전망

(단위: 천㎡)

| 구분 | 추정 면적(총량) | | | | 증가량 | |
|---|---|---|---|---|---|---|
| | 2003년 | 2010년 | 2015년 | 2020년 | 2003-10년 | 2003-20년 |
| 전국 | 529,198 | 626,837 | 705,094 | 783,240 | 97,639 | 254,042 |
| 전북 | 23,580 | 28,734 | 32,094 | 35,369 | 5,154 | 11,788 |
| 경기 | 99,399 | 114,623 | 127,290 | 139,230 | 15,224 | 39,831 |
| 강원 | 14,583 | 15,179 | 15,705 | 15,800 | 595 | 1,217 |
| 충북 | 33,752 | 44,479 | 53,136 | 62,469 | 10,727 | 28,717 |
| 충남 | 51,990 | 71,688 | 87,600 | 105,566 | 19,699 | 53,576 |
| 전남 | 50,049 | 55,944 | 59,290 | 61,946 | 5,895 | 11,897 |
| 경북 | 63,152 | 77,538 | 91,473 | 105,626 | 14,385 | 42,473 |
| 경남 | 59,417 | 66,123 | 71,540 | 76,233 | 6,706 | 16,817 |
| 제주 | 1,533 | 1,780 | 1,902 | 2,004 | 246 | 471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2007, 기업의 입지동향과 산업용지 수급 전망.

전라북도(2009)에서는 2010~202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가 연평균 4.26%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46.4~53.4㎢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총 12.9~19.0㎢, 연평균 1.3~1.9㎢의 신규 산업용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2-19〉 전라북도의 전북 산업용지 공급면적 추정(2010-2020)

(단위: ㎢)

| 구분 | 2007년 | 2010년 | 2020년 | | 증가분 | |
|---|---|---|---|---|---|---|
| | | | 수요 | 공급 | '10-'20간 총공급면적 | 연평균공급면적 |
| 면적 | 32.7 | 35.9~37.8 | 46.4~53.4 | 48.8~56.8 | 12.9~19.0 | 1.3~1.9 |

자료: 전라북도, 2009,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2009~2018).

이상의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전북의 신규 산업용지 수요전망치는 전라북도가 가장 낙관적으로 추정하였고 국토해양부가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대·최소 전망치 범위를 신규 산업용지로 간주하면 연평균 0.4~1.8㎢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2-21>. 따라서 신규 산업용지 수요 중 70%를 계획적으로 공급할 경우 전북은 2010~2020년까지 총 2.9~12.3㎢, 연평균 0.29~1.23㎢의 산업단지 신규 산업시설용지 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단지 중 산업시설면적의 비중을 60%로 가정할 경우 전북은 2010~2020년까지 10년간 매년 0.48~2.10㎢의 신규 산업단지 공급이 필요하여 총 4.8~20.5㎢의 산업단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0〉 전북 산업용지 수요추정 종합

(단위: ㎢)

| 구분 | 추정기간 | 2003년 면적 (A) | 2020년 추정면적 (총량)(B) | 총 증가면적 (B-A) | 연평균 증가면적 ((B-A)/17) |
|---|---|---|---|---|---|
| 국토해양부 | 2007~2017 | 23.6 | 30.6~35.4 | 7.0~11.8 | 0.4~0.7 |
| 한국산업단지공단 | 2003~2020 | | 35.4 | 11.8 | 0.7 |
| 전라북도 | 2010~2020 | | 46.4~53.4 | 22.8~29.8 | 1.3~1.8 |

주: 국토해양부(2007)의 2020년 추정면적은 국토해양부가 추정한 전북의 2017년 수요(29.4~33.3㎢)를 기준으로 한 2003~2017년간 연평균 증가면적(0.58~0.97㎢)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 2. 산업입지 수급 전망

전북지역에서 기 지정된 산업단지 중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의 면적은 미착수 또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분양예정 면적과 기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중 미분양 면적을 통하여 산출할 수 있다[1].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전북의 공급 가능한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2009년 말 현재 18.0㎢이다[2]. 이중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개발 중인 새만금산업단지가 10.1㎢,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가 2.4㎢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기 지정된 산업단지 중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 면적은 5.5㎢에 달한다.

〈표 2-21〉 전라북도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향후 공급가능면적(2009년말 현재)

(단위: 천㎡)

| 단 지 명 | 시군구 | 지정면적 | 지정일자 | 조성상태 | 분양상태 | 산업시설용지면적 | 분양면적 | 향후공급가능면적 |
|---|---|---|---|---|---|---|---|---|
| 군장국가산업단지 | 군산시 | 50,458 | 1989-08-10 | 완료 | 분양중 | 7,318 | 7,262 | 427 |
| 정읍제2일반산업단지 | 정읍시 | 999 | 1991-04-18 | 완료 | 분양중 | 668 | 661 | 7 |
| 신용전문농공단지 | 정읍시 | 143 | 2004-03-25 | 완료 | 분양중 | 105 | 96 | 9 |
| 노암제2농공단지 | 남원시 | 167 | 2008-06-17 | 완료 | 분양중 | 115 | 5 | 110 |
| 서흥농공단지 | 김제시 | 277 | 1988-04-20 | 완료 | 분양중 | 236 | 234 | 2 |
|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 완주군 | 3,074 | 1991-12-05 | 완료 | 분양중 | 1,821 | 1,815 | 6 |
| 장계농공단지 | 장수군 | 290 | 2001-09-11 | 완료 | 분양중 | 204 | 195 | 9 |
| 제2장류농공단지 | 순창군 | 149 | 2007-09-11 | 완료 | 분양중 | 119 | 47 | 72 |
| 풍산농공단지 | 순창군 | 138 | 2004-01-07 | 완료 | 분양중 | 111 | 108 | 3 |
|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단(1) | 전주시 | 290 | 2008-01-31 | 조성중 | 분양계획 | 157 | 0 | 157 |
|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 익산시 | 500 | 2008-03-14 | 조성중 | 분양계획 | 309 | 0 | 309 |
| 익산일반산업단지 | 익산시 | 2,794 | 2008-04-25 | 조성중 | 분양계획 | 1,580 | 0 | 1,580 |
| 지평선일반산업단지 | 김제시 | 2,928 | 2008-09-05 | 조성중 | 분양계획 | 1,614 | 0 | 1,614 |
| 흥덕농공단지 | 고창군 | 315 | 2006-10-04 | 조성중 | 분양중 | 241 | 204 | 37 |
| 부안신·재생에너지일반산단 | 부안군 | 356 | 2007-12-21 | 조성중 | 분양계획 | 143 | 71 | 72 |
| 새만금산업단지(경자구역) | 군산시 | 18,700 | 2008-05-06 | 미착수 | 분양계획 | 10,120 | 0 | 10,120 |
| 익산금마(전문)농공단지 | 익산시 | 315 | 2008-08-11 | 미착수 | 분양계획 | 251 | 0 | 251 |
| 국가식품클러스터* | 익산시 | 3,967 | 2009 | 미착수 | 분양계획 | 2,390 | 0 | 2,390 |
| 정읍첨단과학(RFT)일반산단 | 정읍시 | 898 | 2007-06-29 | 미착수 | 분양계획 | 419 | 0 | 419 |
| 태인농공단지 | 정읍시 | 240 | 2008-10-23 | 미착수 | 분양계획 | 188 | 0 | 188 |
|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 진안군 | 266 | 2009-04-01 | 미착수 | 분양계획 | 191 | 0 | 191 |
| 전라북도 합계 | | 87,264 | | | | 28,300 | 10,698 | 17,973 |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농림수산식품부, 2010)'을 참고하여 추가함.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9년 4/4분기).

1) 전북에서 2009년말 현재 지정되어 개발 중이거나 미착수 상태에 있는 산업단지는 총 12개 단지로, 이중 조성 중인 단지가 6개, 미착수 상태인 단지가 6개임.
2) 익산시에 조성계획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참고하여 추가하였음.

따라서 기 조성이 확정된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공급면적(18.0㎢)은 앞에서 분석한 2020년까지의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수요 추정면적(2.9~12.3㎢)을 5.7~15.1㎢ 초과하고 있어 산업단지 과잉 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이에 따른 신규 산업용지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도 기 확정된 산업용지 공급면적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3].

전북 내 지역별로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공급가능 산업용지의 분포를 보면 18.0㎢ 중 17.5㎢는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정읍 등 전북지역의 주요 산업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0.5㎢만이 그 외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표 2-22〉 전북지역 기 지정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공급가능면적(2009년말 현재)

(단위: 천㎡)

| | 시군구 | 개발완료 산업단지 | 조성중 산업단지 | 미착수 산업단지 | 향후공급가능 면적합계 |
|---|---|---|---|---|---|
| 주요 산업 지역 | 전주시 | | 157 | | 157 |
| | 군산시 | 427 | | 10,120 | 10,547 |
| | 익산시 | | 1,889 | 2,641 | 4,530 |
| | 정읍시 | 16 | | 607 | 623 |
| | 김제시 | 2 | 1,614 | | 1,616 |
| | 완주군 | 6 | | | 6 |
| | 소계 | 451 | 3,660 | 13,368 | 17,479 |
| 그 외 지 역 | 남원시 | 110 | | | 110 |
| | 진안군 | | | 191 | 191 |
| | 무주군 | | | | 0 |
| | 장수군 | 9 | | | 9 |
| | 임실군 | | | | 0 |
| | 순창군 | 75 | | | 75 |
| | 고창군 | | 37 | | 37 |
| | 부안군 | | 72 | | 72 |
| | 소계 | 194 | 109 | 191 | 494 |
| 전라북도 합계 | | 645 | 3,769 | 13,559 | 17,973 |

* 익산시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9년 4/4분기).

3) 새만금 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지역의 산업단지와 투자유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한편 전라북도(2009)에서 추정한 시군별 산업단지 수요추정면적을 보면 군산시가 2.6~3.68㎢, 익산시 1.59~2.53㎢, 김제시 1.11~2.53㎢, 완주군 1.15~1.54㎢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개 시군의 계획입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1.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3〉 전라북도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안)

(단위: ㎢)

| 구 분 | 총공급 규모 | 계획입지 | 개별입지 |
|---|---|---|---|
| 전 북 | 12.9~19.0 | 9.0~13.3 | 3.87~5.7 |
| 전주시 | 1.00~1.95 | 0.70~1.37 | 0.30~0.59 |
| 군산시 | 3.71~5.25 | 2.6~3.68 | 1.11~1.58 |
| 익산시 | 2.27~3.62 | 1.59~2.53 | 0.68~1.09 |
| 정읍시 | 1.16~2.02 | 0.81~1.41 | 0.35~0.61 |
| 남원시 | 0.56~0.67 | 0.39~0.47 | 0.17~0.20 |
| 김제시 | 1.59~3.47 | 1.11~2.42 | 0.47~1.04 |
| 완주군 | 1.65~2.21 | 1.15~1.54 | 0.5~0.66 |
| 진안군 | 0.12~0.32 | 0.08~0.22 | 0.04~0.096 |
| 무주군 | 0.06~0.19 | 0.04~0.13 | 0.018~0.057 |
| 장수군 | 0.06~0.22 | 0.04~0.15 | 0.018~0.066 |
| 임실군 | 0.14~0.16 | 0.09~0.11 | 0.042~0.048 |
| 순창군 | 0.09~0.29 | 0.06~0.20 | 0.027~0.087 |
| 고창군 | 0.23~0.33 | 0.16~0.23 | 0.069~0.099 |
| 부안군 | 0.29~1.03 | 0.20~0.71 | 0.087~0.309 |

자료: 전라북도, 2009,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

기 조성이 확정된 시군별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공급가능 면적과 전라북도(2009)에서 추정한 시군별 산업단지 수요추정면적을 비교하면, 새만금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군산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익산시의 공급확정 면적이 수요추정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4〉 전북 시·군별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수급전망

(단위: ㎢)

| 시 군 | '09년 말 현재 산업용지 면적[1] | '09년 말 현재 기 확정 공급면적 (A) | '09~'18년간 수요추정면적[2] (B) | '09~'18년간 수급전망[3] (A-B) |
|---|---|---|---|---|
| 전주시 | 2.37 | 0.16 | 0.70~1.37 | + 0.54 ~ + 1.21 |
| 군산시 | 26.53 | 10.55 | 2.60~3.68 | + 7.95 ~ + 6.87 |
| 익산시 | 4.83 | 4.53 | 1.59~2.53 | + 2.94 ~ + 2.00 |
| 정읍시 | 2.92 | 0.62 | 0.81~1.41 | - 0.19 ~ - 0.79 |
| 남원시 | 0.42 | 0.11 | 0.39~0.47 | - 0.28 ~ - 0.36 |
| 김제시 | 1.21 | 1.62 | 1.11~2.42 | + 0.51 ~ - 0.80 |
| 완주군 | 6.83 | 0.01 | 1.15~1.54 | - 1.14 ~ - 1.53 |
| 진안군 | 0.20 | 0.19 | 0.08~0.22 | + 0.11 ~ - 0.03 |
| 무주군 | 0.09 | 0 | 0.04~0.13 | - 0.04 ~ - 0.13 |
| 장수군 | 0.35 | 0.01 | 0.04~0.15 | - 0.03 ~ - 0.14 |
| 임실군 | 0.19 | 0.13 | 0.09~0.11 | + 0.04 ~ + 0.02 |
| 순창군 | 0.08 | 0.08 | 0.06~0.20 | + 0.02 ~ - 0.12 |
| 고창군 | 0.25 | 0.04 | 0.16~0.23 | - 0.12 ~ - 0.19 |
| 부안군 | 0.24 | 0.07 | 0.20~0.71 | - 0.13 ~ - 0.64 |

주 1) 지식경제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9년 4/4분기).
2) 전라북도(2009,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추정면적임.
3) 기 확정 공급면적 대비 수급전망임. '+'는 '09년 말 현재 기 확정된 산업단지 공급면적이 수요추정면적을 초과했음을, '-'는 수요추정면적에 비해 부족함을 의미함.

## 제3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과 수급전망을 검토하여 전북의 3개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 전망에 대해 개관 하였다.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을 보면 2000년대에 들어와 산업구조가 음식료, 섬유의복, 비금속 등의 업종에서 자동차, 화학, 음식료, 조립금속 등의 업종으로 전환되면서 전북의 산업구조가 전국의 산업구조에 수렴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전북의 산업이 2000년대 이전에 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북의 산업구조는 IT 등 첨단산업의 발전이 미약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산업발전 속도도 여전히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의 산업발전은 공간적으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등 전북의 서부발전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중반이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조성되었던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미분양 용지의 대부분이 분양되고, 산업구조도 크게 변화되었다. 대기업의 투자는 주로 자동차, 기계, 비금속, 화학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기업과 관련 기업의 전북지역 투자 증가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와 산업용지 수요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해양부(2007)와 한국산업단지공단(2007)의 중장기 산업용지 수요전망을 보면 전북의 산업용지 수요는 전국평균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대의 전북 산업구조의 변화추이를 볼 때 향후의 산업용지 수요는 자동차, 기계, 조선, 조립금속, 화학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부문들로 전북의 산업용지 수요 발생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의 산업용지 수급전망을 보면 산업용지 공급의 과잉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2007), 한국산업단지공단(2007), 전라북도(2009) 등에서 추정한 2010~2020년의 10년 간 발생하는 신규 산업용지 수요면적과 2010년 현재 전북지역에서 조성이 계획된 산업용지 면적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 산업단지를 포함시킬 경우 별도의 투자유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산업용지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의 전북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제조업 성장속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획기적인 전북 제조업의 성장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지역에 대한 새로운 투자수요 창출이 어려울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의 주요 산업지역인 군산과 익산에 위치한 이들 산업단지들은 전북의 기존 산업단지와 투자유치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들 산업단지를 포함한 전북지역 산업단지의 미분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제 3 장

# 전북지역 투자환경 분석

제 1 절 지역투자환경 결정요인
제 2 절 분석방법
제 3 절 전북지역 투자환경 분석 결과
제 4 절 소결

# 제 3 장 전북지역 투자환경 분석

## 제 1 절 지역투자환경 결정요인

기업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부터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Weber(1909)와 Lösch(1954)로 대표되는 초기의 산업입지이론 연구에서는 입지결정자인 인간을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가정하고 기업의 최적입지는 비용의 최소화 또는 시장수요의 최대화를 통하여 이윤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라고 주장하였다(산업연구원, 1987).

이러한 고전적인 산업입지이론은 준최적입지를 지향하는 인간의 행태적 측면에 대한 고려, 다국적 기업 등 기업조직의 성장 등에 따른 기업 경영목표의 다양화,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운송비의 중요성 감소, 고기술제품의 등장에 따른 정보 및 고급노동력의 중요성 증대, 노동조합의 성장에 따른 노동환경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지유인정책 및 규제정책 등 기업입지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입지이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입지이론들은 결과적으로 기업환경의 변수가 확대되는 정도로 이후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구체적인 입지경쟁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Roger(1998)는 기업입지의 결정요인으로 교통, 원재료, 시장, 노동조건, 외부경제,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자본, 토지 및 건물, 환경, 정부정책 등 11가지 요인을 일반적인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국토연구원(1987)에서는 용지, 용수, 노동력, 원재료, 기업의 집적, 시장, 정보 등 생산지원기능, 항만, 공항, 도로 등 수송기반, 주택, 상수도, 교육환경 등 종업원 정착기반, 정부정책 및 노조활동 등 기타요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연구원·대우경제연구소(1992)는 자연환경, 인력, 기술, 정보, 산업연과, 배후도시, 판매시장, 수송인프라, 전력·용수, 지가, 정부정책 등을 일반적인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3-1〉 Roger(1998)의 기업의 입지결정요인

| 입지요인 | 구체적 양상 | 추상적 양상 |
|---|---|---|
| 교통 | 화물수송료 | 신뢰도, 빈도, 손상정도, 활용도 |
| 원재료 | 생산비용, 교통비용 | 안전성, 질 |
| 시장 | 교통비용, 서비스비용 | 개인적 접촉, 소비자의 취향, 경쟁 |
| 노동조건 | 임금, 임금 외의 편익, 고용비용 | 태도, 노동조합, 기술, 형태, 이동주기, 활용도 |
| 외부경제 | - | 외부효과(긍정적, 부정적), 노동 숙련도, 정보공유, 공공서비스, 명성 |
| 에너지 | 비용 | 신뢰도, 다양성 |
| 사회간접자본 | 자본, 세금 | 질, 다양성 |
| 자본 (고정, 재무) | 건설비용, 임대비용, 리스비용 | 활용도, 투자시기 |
| 토지/건물 | 비용 | 크기, 모양, 접근성, 서비스, 돈이 들어가는 시기 |
| 환경 (쾌적성, 정책) | 비용, 세금 | 지역주민의 태도, 노동자들의 선호도 |
| 정부정책 | 보조금, 세금, 벌금 | 태도, 안전성, 기업여건 등 |

자료: 박용규, 2004,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p.10 재인용.

〈표 3-2〉 대우경제연구소(1992)의 입지결정요인

| 입지결정요인 | 내 용 |
|---|---|
| 자연환경 | • 깨끗한 공기와 물(반도체) • 깊은 수심의 해안(조선) |
| 인력 | • 기술인력, 숙련, 비숙련 기능인력의 확보 및 유지 가능성 |
| 기술 | • 대학 및 기술연구소,산학연 네트워크,업계와의 연계 가능성 |
| 정보 | • 경영정보 획득 용이성 • 대정부업무의 효율적 처리 가능성 |
| 산업연관 | • 주변지역에서 부품 및 재료 조달의 용이성 |
| 배후도시 | • 종업원이 정착할 수 있게끔 배후도시의 여건 조성 정도 |
| 판매시장 | • 판매시장과의 인접정도 |
| 수송인프라 | • 항만, 도로, 공항, 철도 등 교통수단과의 연계 용이성 |
| 전력 • 용수 | • 전력 및 용수공급의 양과 질 |
| 지가 | • 공장부지의 확보 가능성 • 공장부지 가격의 저렴성 |
| 정책 | • 조세, 금융, 등의 지원정도 • 지자체의 유치인센티브 부여 정도 |

자료: 대우경제연구소, 1992, 지역간 기업활동여건 및 입지비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p.24.

이러한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입지요인은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협력업체의 집적이나 시장 수요 등 산업집적, 교통, 통신, 유틸리티, 연구개발기반 등 인프라, 교육, 위료, 주거 등 정주환경, 그리고 정부의 정책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이 입지결정시 고려하는 요인은 업종에 따라 상대적인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토연구원·대우경제연구소(1992)는 입지결정에 핵심적인 요인을 같이 하는 업종부류별로 묶어서 장치산업은 자연환경, 수송인프라, 전력, 용수, 조립가공산업은 인력, 산업연관, 수송, 부품산업은 인력, 판매처, 수송, 첨단기술산업은 기술인력, 기술, 정보, 노동집약 경공업은 기능인력, 배후도시, 수송, 내수성 소비재산업은 판매시장, 수송, 전력 및 용수가 핵심적인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국토연구원(2005)은 기초자원형, 금속가공형, 지방자원형, 잡화형으로 업종군을 분류하고 각 업종군별 세부업종별로 입지요인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산업단지에서 유치업종인 식품산업은 판매시장, 수송(간선도로), 전력 및 용수, 자동차부품 및 기계는 기능인력, 산업연관, 수송(간선도로, 항만), 용지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산업별 입지요인 특성(대우경제연구소, 1992)

| 산업구분 | | 핵심적인 입지 고려 요소 | |
|---|---|---|---|
| 장치산업 | 철강 | 항만, 전력, 용수 | 자연환경<br>수송인프라<br>전력, 용수 |
| | 정유, 석유화학 | 항만, 전력, 용수 | |
| | 조선 | 해안, 전력, 기능인력 | |
| | 시멘트 | 원재료 매립지 | |
| 조립가공산업 | 가정용전자 | 인력, 산업연관, 수송 | 기능인력<br>산업연관<br>수송 |
| | 전기 | 인력, 산업연관, 수송 | |
| | 자동차 | 인력, 산업연관, 수송 | |
| | 일반기계 | 인력, 산업연관, 수송 | |
| 부품산업 | 전자부품 | 인력, 판매처, 수송 | 인력<br>판매처<br>수송 |
| | 자동차부품 | 인력, 판매처, 수송 | |
| 첨단지식기술산업 | 반도체 | 깨끗한 환경, 기술인력 | 기술인력<br>기술<br>정보 |
| | 정보·통신·컴퓨터 | 기술인력, 기술, 정보 | |
| | 신소재, 정밀화학, 의학 | 기술인력, 기술, 정보 | |
| | 항공 | 기술인력, 넓은 부지 | |
| 노동집약 경공업 | 섬유 | 능인력, 배후도시, 수송 | 기능인력<br>배후도시<br>수송 |
| | 신발 | 기능인력, 배후도시, 수송 | |
| 내수성 소비재산업 | 음식료품 | 판매시장, 수송, 전력, 용수 | 판매시장<br>수송<br>전력, 용수 |
| | 제지, 가구 | 판매시장, 수송, 전력, 용수 | |
| | 일반의약품 | 판매시장, 수송, 전력, 용수 | |

〈표 3-4〉 산업별 입지요인 특성(국토연구원 2005)

| 유형 | 산업분류 | 제품 | 생산기반 | | | 교통기반 | | | | 노동력 | | 기술환경 | | | 통신정보기반 | 도시생활환경 | 정보집적 | 원자재 | 시장접근성 | 환경용량 |
|---|---|---|---|---|---|---|---|---|---|---|---|---|---|---|---|---|---|---|---|---|
| | | | 용지 | 용수 | 전력 | 항만 | 간선도로 | 철도 | 공항 | 기능 | 고급 | 연관기업집적 | 유저등의존재 | 연구기관의존재 | | | | | | |
| 기초자원형 | 철강철강 | 고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강압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철금속 | 동제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아연제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루미늄제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루미늄압연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선·케이블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 | 석유화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유·석탄 | 석유정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속가공형 | 전기기계 | 전자응용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신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부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계측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정용전자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밀기계 | 광학기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송기계 | 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공기 및 부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속제품 | 난방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철골·교량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기계 | 보일러 원동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광산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속공작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자원형 | 요업·토석 | 시멘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지 | 펄프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품 | 맥주 | | ○ | | | ◎ | | | | | | | | | | | | ◎ | |
| | 목재 | 합판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구 | 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잡화형 | 섬유 | 면방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복 | 여성·아동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판인쇄 | 인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죽제품 | 가죽 | ◎ | ◎ | | | | | | ◎ | | | | | | | | | | |
| | 고무제품 | 고무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플라스틱제품 | | | | | | | | ◎ | | | | | | | | | ◎ | |

주 1) ◎는 매우 중요한 요인을 ○는 중요한 요인을 의미
2) 전자부품의 *는 IC산업에 한함

## 제 2 절 분석방법

### 1. 지역투자환경 측정지표 구성

지역투자환경이란 기업의 투자와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지역의 제반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지역의 투자환경이란 기업의 투자 비용이나 수익 및 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지방정부의 정책 효율성, 투입요소의 공급과 관련된 기초투자환경, 인프라, 기술혁신 환경 등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되는 요인,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수익 달성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련되는 제반 요소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의 투자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 측정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투자환경 분석을 위해 지식경제부(2007)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원용하여 지역별 투자환경을 분석하였다[4]. 지식경제부(2007)에서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익성 증대와 이를 달성하는데 따르는 위험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수익성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용 절감 요소와 수익 증대 요소로 구성된다. 수익성 달성에 따르는 위험요인으로는 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 관행적 요인 등이 있으며, 기업의 소유구조나 지배구조 등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지역 간 투자환경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투자환경의 구성요소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투자환경 구성요소에서 기업의 투자 및 입지결정에 지역 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역 투자환경을 측정하는 구성요소를 구성하였다. 즉, 수익성 증대와 관련된 요인들 중 자금조달 비용(이자율), 환율, 경기변동 등과 같은 거시 경제지표, 수익성 달성에 따르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국가 전체의 제도적 요인, 관행적 요인, 정치적 요인, 기업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등에 관련된 사항 등은

4) 이하의 분석방법은 지식경제부(2007)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것임.

거의 모든 지역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역 투자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분석지표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정책적 요인의 경우 지역 간 투자유치경쟁으로 인해 세제, 보조금 등 정량적 지원내용이 수렴되는 경향으로 지역 간 차별화가 낮은 반면, 행정적 지원 등 비정량적 지원은 계량화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역시 지표에서 제외하였다[5]. 이에 따라 지역 투자환경을 생산요소 환경, 산업집적 환경, 인프라 환경의 3대 분야로 구분하여 세부 측정항목을 선정하였다.

지역별 투자환경을 측정하고, 이를 지역 간에 비교하기 위해 지역의 투자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투자환경지수를 사용하였다. 투자환경지수는 투자환경을 구성하는 생산요소 환경, 산업집적 환경, 인프라 환경 등 3대 분야의 측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투자환경지수를 구성하는 3대 분야의 세부항목은 투자환경의 측정이 양(quantity), 질(quality), 비용(cost), 접근성(accessability)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를 반영하는 3대 분야의 8개 구성항목을 측정하는 23개 세부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표 3-5> <표 3-6>. 8개 세부 구성항목을 보면, 생산요소 환경은 인력, 토지, 금융, 산업집적 환경은 협력업체 집적, 시장수요, 인프라 환경은 물적 인프라, 지식 인프라, 생활 인프라 등이다.

## 2. 분석방법

지역 투자환경의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투자환경지수는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들 지표들은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청 등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수집하여 공표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투자환경지수의 지표들은 지역 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표준화하였다. 또한 투자환경지수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들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중요도가 상이할 것이므로 세부 측정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 하였다.

또한 지역 투자환경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2000년과 2008년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각 분석단계별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

5) 정성적 측면의 정책환경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하여 보완하였음

〈표 3-5〉 투자환경지수 구성요소

| 분야 | 구성 항목 | 항목의 세부 내역 |
|---|---|---|
| 생산요소 환경 | 인력(노동) | 적정 인력 조달, 인건비, 노사관계 |
| | 토지(입지) | 적정 입지 확보, 지가(분양 및 임대료) |
| | 금융(자본) | 자금 접근성, 조달 비용 |
| 산업집적 환경 | 협력업체 집적 | 원료 및 부품조달, 설비, 장비, S/W 업체,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집적 |
| | 시장수요 | 대기업 등 수요업체, 일반 소비자, 고객 |
| 인프라 환경 | 물적 인프라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교통체증)<br>전화, 인터넷<br>유틸리티 확보 용이성 |
| | 지식 인프라 | 대학, 공공연구소 |
| | 생활 인프라 | 주거, 교육, 의료, 레저, 복지 등 시설<br>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문화 |

자료 : 지식경제부(2007)에서 일부 수정.

## 1) 투자환경지수 측정 지표

투자환경지수의 산출을 위해 사용한 측정지표는 총 22개의 정량적 지표로 구성하였다. 정량적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다[6].

- 생산요소에서 인력은 생산인력과 전문인력의 가용성은 각각 생산활동인구와 대졸자이상 인구의 비중을, 인건비는 1인당 평균임금을, 노동시장의 불안요소는 사업체당 노사분규 발생 건수를 이용하여 측정
- 토지에서 토지확보의 가용성은 경제활동면적중 공장용지 비중과 산업단지 면적 중 유휴산업단지면적 비중을 이용하고, 토지의 가격은 평균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측정. 산단 면적 중 미분양면적은 잔여토지의 확보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고, 경제활동면적 대비 공장용지 비중은 지역 내에서 가용한 공장용지의 규모를 측정 가능
- 금융에 대한 접근성은 경제활동면적 대비 금융서비스업체수를, 지역 금융의 발전수준은 GRDP 대비 기업대출액을, 자금조달의 불안요인은 어음부도율을 이용하여 측정

6) 지식경제부(2007)의 측정지표 중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함.

- 산업집적에서 협력업체의 집적은 제조업 집적도와 비즈니스서비스업 집적도를 이용하여 측정
- 시장수요는 소비시장을 측정하기 위해 경제활동면적 대비 인구수를 사용하고, 기업수요시장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 내 사업체 중 중견업체 수(300인 이상 업체 수)의 비중을 사용
- 인프라에서 물적 인프라는 도로율(행정구역면적 대비 도로길이), 경제활동면적 대비 운송관련업체수 비중, 기업정보화 수준 등을 이용. 경제활동면적 대비 운송관련업체수 비중은 물류 및 유통시설에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대리지표로 이용
- 지식 인프라는 연구인력 수, 특허출원건수 등과 함께 GRDP 대비 무형고정자산 지출비중을 이용하여 측정
- 생활 인프라는 교원 수와 의료인력 수를 이용하여 측정

〈표 3-6〉 투자환경 측정지표 및 자료 원천

| 분야 | 구성 항목 | 측정 지표 | 출처(또는 이용 기초통계) |
|---|---|---|---|
| 생산요소 | 인력(노동) | 전국 경제활동인구 중 비중<br>15세이상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대졸자 이상 비중<br>전국평균대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br>사업체 일만개 당 노사분규 발생 건수 | - 인구총조사(통계청)<br>-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br>- 매월노동통계(고용노동부)<br>- 노동백서(고용노동부) |
| | 토지(입지) |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면적 중 비중<br>경제활동면적 중 공업용지 비중<br>공업지역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 - 산업단지통계(한국산업단지공단)<br>- 지적공부등록지(국토해양부)<br>- 공시지가현황(국토해양부) |
| | 금융(자본) | 총사업체 중 금융서비스 사업체 비중<br>GRDP 대비 기업대출액<br>어음부도율 | -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br>- 시도별 예금 및 대출금(한국은행)<br>- 시도별 어음부도율(한국은행) |
| 산업집적 | 협력업체 집적 | 총사업체 중 제조업 종사자 비중<br>총사업체 중 사업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 -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
| | 시장수요 | 인구비중<br>총사업체 중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br>전국대비 소비지출 비율 | - 인구총조사(통계청)<br>-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br>- 지역내총생산 |
| 인프라 | 물적 인프라 | 국토면적당 도로연장<br>전국평균대비 기업정보화 수준<br>운송업체수 비중 | - 지적통계(행정안전부)<br>- 도로현황통계(국토해양부)<br>- 정보화실태조사(인터넷진흥원)<br>-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
| | 지식 인프라 | 인구 1만명당 연구인력수<br>인구 1만명당 특허출원건수<br>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 - 과학기술통계(교육과학기술부)<br>- 특허통계(특허청)<br>-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교육과학기술부) |
| | 생활 인프라 | 초중고 학생 수 1천명당 교원수<br>인구 1만명명당 병상수 | - 교육통계(각 시도)<br>- 의료기관실태보고(보건복지부)<br>- 인구총조사(통계청) |

자료 : 지식경제부(2007)에서 일부 수정

### 2) 자료의 표준화 방법

투자환경지수의 지역 간 상호비교를 위해 자료를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측정지표의 표준화 방법은 최대치-최소치 이용 표준화 방법(Max-Min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의하면 표준화된 지표의 값이 0과 1사이에 있게 되어 측정지표에 따라 정(+)·부(-)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부호의 문제를 해결하여 상대적 비교가 유리한 장점이 있다.

최대치-최소치 이용 표준화 방법(Max-Min 방법)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 $Z = \frac{(X_i - X_{\min})}{(X_{\max} - X_{\min})}$

$X_i$ : $i$ 번째 값

$X_{\max}$ : 최대값

$X_{\min}$ : 최소값

### 3) 가중치의 산정

투자환경지수를 구성하는 4대 분야는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중요도가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환경지수 구성요소별 중요도를 조사하여 이를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구성요소별 중요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7].

설문조사에서는 먼저 4대 분야별 중요도를 파악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다음으로 분야별로 세부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4대 분야별 10대 구성항목 및 23개 측정지표별 가중치는 <표 3-7>과 같다.

7) 지식경제부(2007)의 설문조사 결과를 준용함. 본 설문조사는 구조적 설문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설문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원기업 중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할당하여 추출한 전국의 5,000개 기업으로 선정하였음. 회수된 설문지는 3,651개(회수율 73.0%)임.

〈표 3-7〉 측정지표의 가중치

| 부문 | 투자 환경 | 통계자료 | 가중치 |
|---|---|---|---|
| 생산요소 | 인력 | 생산활동인구 비중 | 0.070 |
| | | 대졸자 이상 인구 비중 | 0.047 |
| | | 전국대비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 | 0.039 |
| | | 사업체 1만개당 노사분규발생건수 | 0.017 |
| | 토지 | 산단 미분양면적의 전국 비중 | 0.019 |
| | | 공장용지 면적의 전국 비중 | 0.019 |
| | | 공업지역 표준지 평균공시지가 수준 | 0.024 |
| | 금융 | 금융서비스업체수 비중 | 0.025 |
| | | GRDP 대비 매출액 비중 | 0.025 |
| | | 어음부도율 | 0.025 |
| 산업집적 | 협력 업체 | 제조업 집적도 | 0.111 |
| | | 사업서비스업 집적도 | 0.033 |
| | 시장 수요 | 중견업체수 비중 | 0.077 |
| | | 인구비중 | 0.025 |
| | | 인구밀도(=인구수/경제활동면적) | 0.025 |
| 인프라 | 물적 인프라 | 도로율(=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 | 0.081 |
| | | 운수업체수 비중 | 0.081 |
| | | 전국대비 기업정보화 수준 | 0.031 |
| | 지식 인프라 | 인구 1만명당 연구인력수 | 0.005 |
| | | 인구 1만명당 특허출원건수 | 0.005 |
| | | GRDP대비 연구개발투자비 | 0.005 |
| | 생활 인프라 | 초중고 학생 수 1천명당 교원수 | 0.015 |
| | | 인구 1만명당 병상수 | 0.015 |

자료 : 지식경제부(2007)에서 일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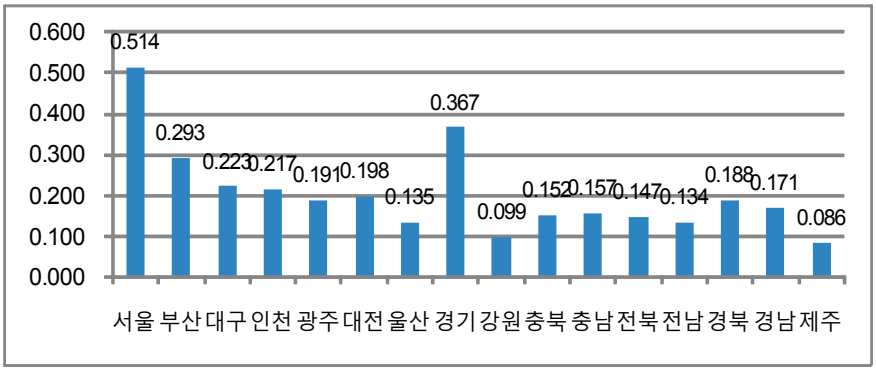
## 제 3 절 전북지역 투자환경 분석 결과

### 1. 연도별 투자환경

#### 1) 2000년도

지역별 투자환경 지수의 산출 결과 2000년도에 투자환경 상위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지역이며 하위지역은 제주, 강원, 전남, 울산, 전북 등으로, 울산을 제외한 하위지역은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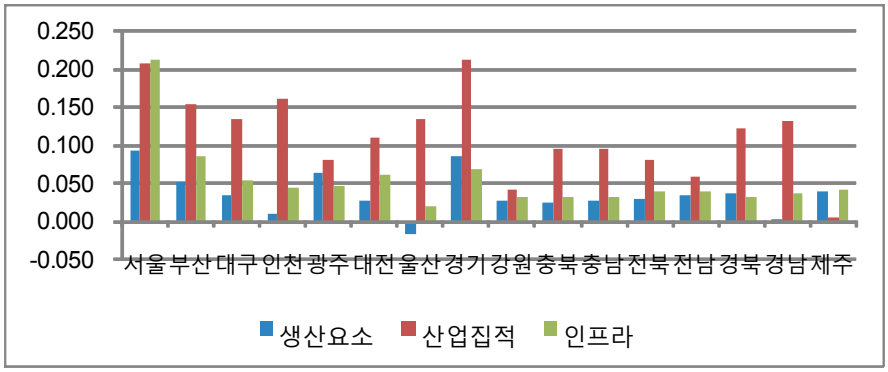
전북의 투자환경은 전체적으로 16개 시·도 중 12위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생산요소환경과 인프라환경은 각각 9위와 10위로, 산업집적환경(12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생산요소환경에 있어서는 인력과 토지에 있어서는 양호하나 금융환경이 취약한 상태이다. 산업집적환경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집적이 취약하여 전북의 부진한 산업발전 상태를 보여준다. 인프라환경의 경우 생활인프라는 양호하나, 지식인프라는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2000년도 지역별 투자환경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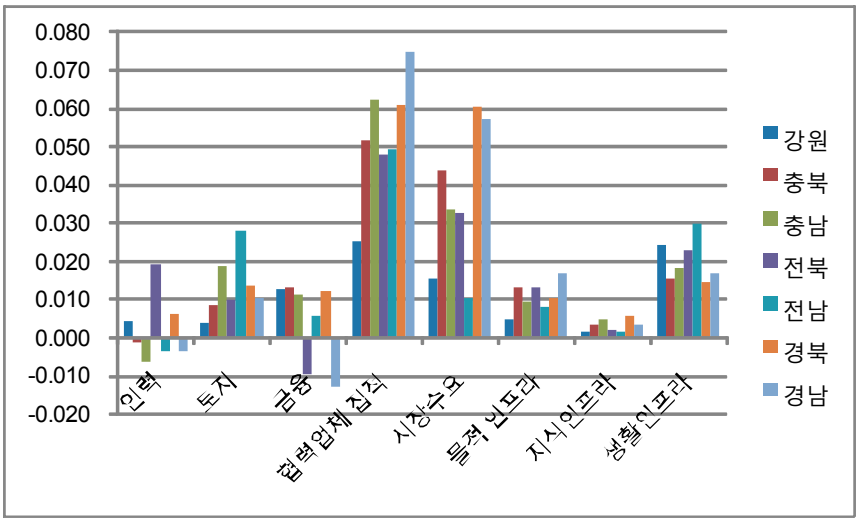
〈표 3-8〉 2000년도 지역별 투자환경지수

| 정량 | 생산요소 | | 산업집적 | | 인프라 | | 종합 | |
|---|---|---|---|---|---|---|---|---|
| | 값 | 순위 | 값 | 순위 | 값 | 순위 | 값 | 순위 |
| 서울 | 0.093 | 1 | 0.207 | 2 | 0.214 | 1 | 0.514 | 1 |
| 부산 | 0.052 | 4 | 0.155 | 4 | 0.054 | 5 | 0.293 | 3 |
| 대구 | 0.034 | 8 | 0.135 | 5 | 0.045 | 7 | 0.223 | 4 |
| 인천 | 0.011 | 14 | 0.161 | 3 | 0.046 | 6 | 0.217 | 5 |
| 광주 | 0.065 | 3 | 0.080 | 13 | 0.019 | 16 | 0.191 | 7 |
| 대전 | 0.026 | 12 | 0.110 | 9 | 0.062 | 4 | 0.198 | 6 |
| 울산 | -0.018 | 16 | 0.134 | 6 | 0.040 | 9 | 0.135 | 13 |
| 경기 | 0.086 | 2 | 0.212 | 1 | 0.085 | 2 | 0.367 | 2 |
| 강원 | 0.027 | 11 | 0.041 | 15 | 0.037 | 11 | 0.099 | 15 |
| 충북 | 0.024 | 13 | 0.095 | 11 | 0.033 | 12 | 0.152 | 11 |
| 충남 | 0.028 | 10 | 0.096 | 10 | 0.032 | 13 | 0.157 | 10 |
| 전북 | 0.028 | 9 | 0.081 | 12 | 0.038 | 10 | 0.147 | 12 |
| 전남 | 0.034 | 7 | 0.060 | 14 | 0.031 | 15 | 0.134 | 14 |
| 경북 | 0.036 | 6 | 0.121 | 8 | 0.069 | 3 | 0.188 | 8 |
| 경남 | 0.001 | 15 | 0.132 | 7 | 0.031 | 14 | 0.171 | 9 |
| 제주 | 0.040 | 5 | 0.004 | 16 | 0.042 | 8 | 0.086 | 16 |




〈그림 3-2〉 2000년도 투자환경 분야별 지수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전북과 경쟁관계에 있는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등과 비교하면 전북은 인력환경이 우수하며, 생활인프라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토지환경에 있어서도 강원, 충남에 비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지방 6개 지역과 비교한 전북의 투자유치환경(2000)

## 2) 2008년도

지역별 투자환경 지수의 산출 결과 2008년도에 투자환경 상위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인천, 울산 등 대도시로 나타났으며 하위지역은 경북, 강원, 제주, 전남, 충남, 경남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투자환경은 전체적으로 16개 시도 중 11위로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북과 투자유치 경쟁관계에 있는 강원(15위), 충남(13위), 전남(16위), 경남(12위) 등에 비해서는 다소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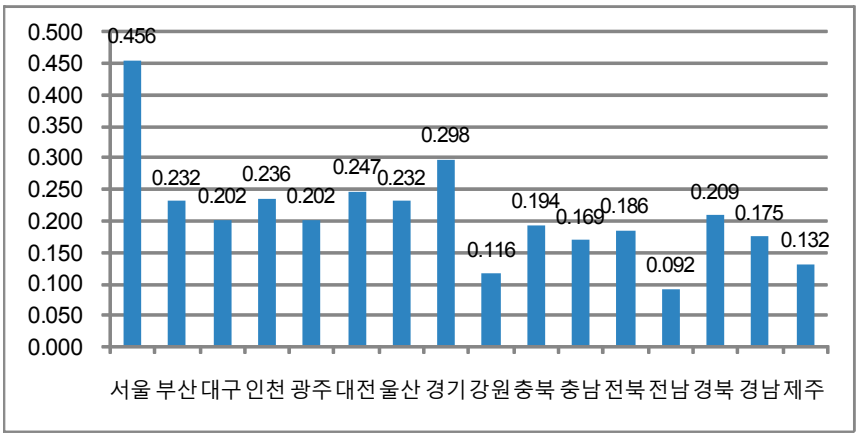
분야별로는 생산요소환경(4위)이 양호하며, 인프라환경(8위)도 비교적 양호한 반면, 산업집적환경(13위)이 취약하다. 생산요소환경에 있어서는 토지환경(3위)이 양호하고 금융환경이 2000년의 13위에서 9위로 개선된 반면, 인력환경은 6위에서 10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생산요소환경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등 '90년대에 조성되어 미분양 상태에 있던 산업단지의 분양가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토지경쟁력이 강화된 반면, 2007년 이후 대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생산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인력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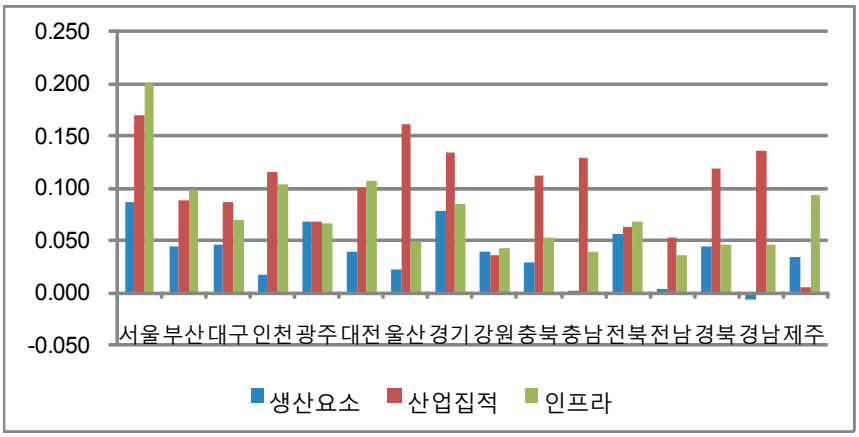
산업집적환경은 2000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2000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제조업 집적 환경은 다소 양호해진 반면, 시장수요는 다소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환경은 전반적으로 2000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식인프라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인프라의 개선은 전북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9〉 2008년도 지역별 투자환경지수

| 정량 | 생산요소 | | 산업집적 | | 인프라 | | 종합 | |
|---|---|---|---|---|---|---|---|---|
| | 값 | 순위 | 값 | 순위 | 값 | 순위 | 값 | 순위 |
| 서울 | 0.086 | 1 | 0.169 | 1 | 0.200 | 1 | 0.456 | 1 |
| 부산 | 0.044 | 7 | 0.089 | 10 | 0.099 | 4 | 0.232 | 6 |
| 대구 | 0.046 | 5 | 0.086 | 11 | 0.070 | 7 | 0.202 | 9 |
| 인천 | 0.017 | 13 | 0.115 | 7 | 0.104 | 3 | 0.236 | 4 |
| 광주 | 0.068 | 3 | 0.067 | 12 | 0.067 | 9 | 0.202 | 8 |
| 대전 | 0.039 | 8 | 0.100 | 9 | 0.108 | 2 | 0.247 | 3 |
| 울산 | 0.022 | 12 | 0.162 | 2 | 0.049 | 11 | 0.232 | 5 |
| 경기 | 0.079 | 2 | 0.135 | 4 | 0.085 | 6 | 0.298 | 2 |
| 강원 | 0.038 | 9 | 0.036 | 15 | 0.042 | 14 | 0.116 | 15 |
| 충북 | 0.029 | 11 | 0.112 | 8 | 0.053 | 10 | 0.194 | 10 |
| 충남 | 0.001 | 15 | 0.129 | 5 | 0.040 | 15 | 0.169 | 13 |
| 전북 | 0.056 | 4 | 0.062 | 13 | 0.067 | 8 | 0.186 | 11 |
| 전남 | 0.004 | 14 | 0.053 | 14 | 0.035 | 16 | 0.092 | 16 |
| 경북 | 0.044 | 6 | 0.119 | 6 | 0.046 | 12 | 0.209 | 7 |
| 경남 | -0.006 | 16 | 0.135 | 3 | 0.046 | 13 | 0.175 | 12 |
| 제주 | 0.034 | 10 | 0.006 | 16 | 0.093 | 5 | 0.132 |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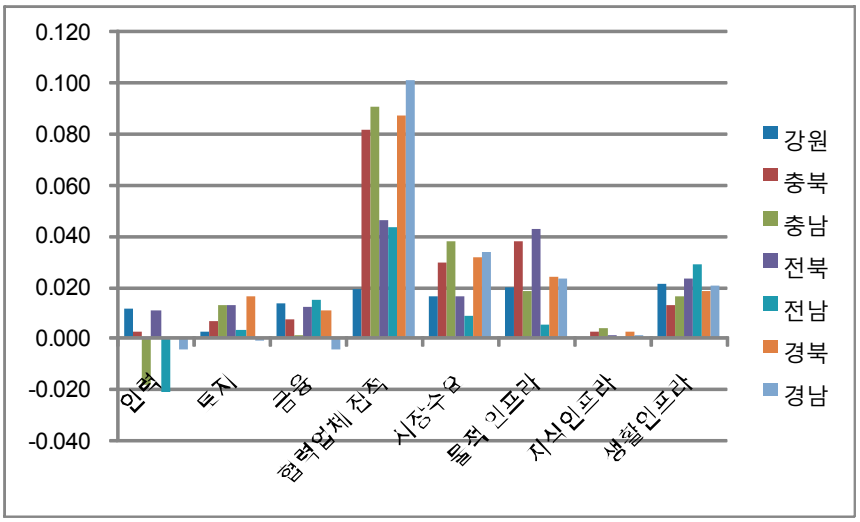



〈그림 3-4〉 2008년도 지역별 투자환경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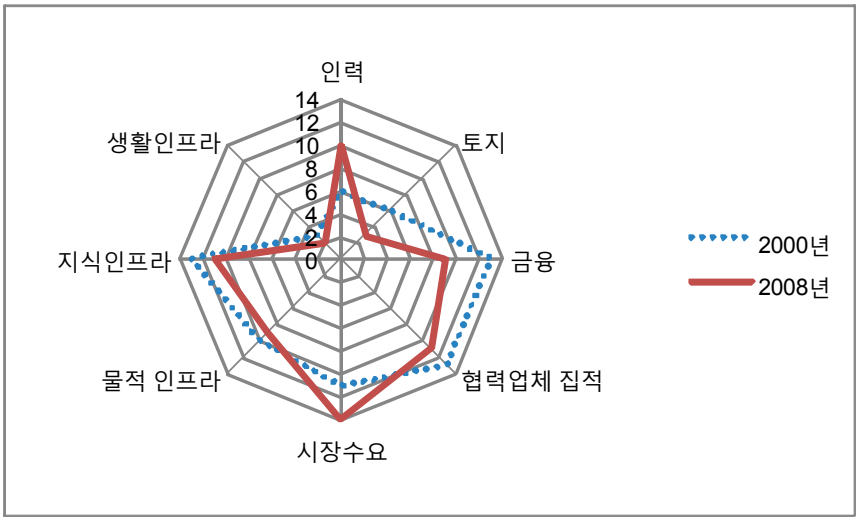



〈그림 3-5〉 2008년도 투자환경 분야별 지수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전북과 경쟁관계에 있는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등과 비교하면 전북의 투자환경은 산업집적 및 시장환경을 제외하고는 인력, 토지, 금융, 물적인프라, 생활인프라 등 대부분의 투자환경지표에서 비교적 우수하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개통(2001년)과 익산-장수간고속도로 개통(2007년)과 함께 광역교통환경이 개선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물적인프라의 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집적환경은 여전히 충남, 충북과 경남, 경북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6〉 지방 6개 지역과 비교한 전북의 투자유치환경(2008)




〈그림 3-7〉 전북의 투자유치환경 구성요소별 순위 변화

## 제 4 절 소 결

기업의 입지결정은 일반적으로 보다 넓은 지역으로부터 점차 범위를 좁혀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특정 산업단지의 입지환경은 산업단지가 입지한 주변 지역의 입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면에서 본 장에서는 전북 주요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전북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북지역의 투자환경은 생산요소환경, 산업집적환경, 인프라환경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정책 또한 중요한 투자환경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는 정량화에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생산요소환경은 인력, 토지, 금융, 산업집적환경은 협력업체의 집적, 시장 수요, 인프라환경은 물적 인프라, 지식 인프라, 생활 인프라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전북의 투자환경은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투자환경을 전북과 투자유치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충남, 충북, 강원, 경남, 경북, 전남 등 지방의 6개 도와 비교하면 경북과 충북을 제외한 4개 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시기별로는 2000년의 12위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투자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환경 구성분야별로는 생산요소 환경은 전북이 유리하나, 산업집적환경은 불리하며, 인프라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산요소환경의 경우 토지여건은 양호한 반면 금융 및 인력여건은 취약하다. 산업집적환경은 전북의 투자환경 가운데 제일 열악한 상태로, 제조업의 부진한 발전에 따른 산업집적여건이 불리한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인프라환경의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2000년과 비교하여 특히 지식인프라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방의 6개 도 지역과 비교하면 전북은 산업집적 및 시장환경을 제외한 인력, 토지, 금융, 물적인프라 및 생활인프라 등 대부분의 투자환경지표에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교통망의 개통과 함께 물적인프라의 여건이 개선된 반면, 산업집적환경은 다른 도지역에 비해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북의 투자환경을 볼 때 전북의 투자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은 저렴한 지가와 풍부한 부지의 제공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에도 이러한 토지측면의 강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산업용지의 수급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전북의 가장 큰 약점인 산업집적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집적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기업의 투자활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북지역 내 산업발전지역인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정읍 등을 중심으로 전북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된 산업집적지 형성의 촉진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

#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분석

제 1 절 전북 주요산단 현황
제 2 절 전북 주요산단의 투자유치여건

# 제 4 장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분석

## 제 1 절 전북 주요산단 현황

### 1. 새만금 산업단지

#### 1) 개요

새만금 산업단지는 새만금간척사업지구(이하 새만금)의 북측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공식명칭은 '새만금지구 산업단지'이다. 새만금은 세계경제중심으로 급부상하는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만금특별법에 의한 규제완화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자연, 물, 인간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계획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지구로 조성될 계획이다.

#### 2) 주요 현황

새만금산업단지는 2008~2018년까지 11년동안 총사업비 1조 9,437억원, 1,870ha (566만평)의 규모로 새만금간척지구에 조성될 계획이다.

〈그림 4-1〉 새만금산업단지 위치

## 3) 사업내용

| 구 분 | |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 총 합 계 | | 18,700,000 | 100.0 | | |
| 산업물류시설용지 | 소계 | | 9,364,871 | 50.1 | |
| | 산업시설 | 산업시설(일반 | 4,929,578 | 26.4 | |
| | | 산업시설(임대) | 2,000,000 | 10.7 | |
| | 연구시설 | 신재생에너지 | 1,264,839 | 6.8 | |
| | | R&D | 974,923 | 5.2 | |
| | 물류시설 | 물류시설 | 195,531 | 15.5 | |
| 상업업무시설용지 | 소계 | | 1,092,088 | 5.8 | |
| | 상업 | 중심상업 | 249,135 | 1.3 | |
| | 업무 | 소개 | 275,571 | 1.5 | |
| | | 국제업무 | 209,842 | 1.1 | |
| | | 공공업무 | 65,729 | 0.4 | |
| | 주상복합 | | 241,577 | 1.3 | |
| | 지원시설 | | 325,805 | 1.7 | |
| 주택건설용지 | 소계 | | 593,446 | 3.2 | |
| | 단독주택 | | 107,953 | 0.6 | |
| | 공동주택 | 소계 | 485,493 | 2.6 | |
| | | 연립주택용지 | 95,372 | 0.5 | |
| | | 아파트용지 | 390,121 | 2.1 | |
| 공공시설용지 | 소계 | | 7,318,518 | 39.1 | |
| | 도시기반시설 | 도로 | 2,861,505 | 0.5 | |
| | | 보행자전용도로 | 50,893 | 0.3 | |
| | | 주차장 | 113,696 | 0.6 | |
| | | 광 장 | 30,878 | 0.2 | |
| | | 공 원 | 2,725,103 | 14.6 | |
| | | 완충녹지 | 574,901 | 3.1 | |
| | | 연결녹지 | 193,453 | 1.0 | |
| | | 경관녹지 | 313,514 | 1.7 | |
| | | 하 천 | - | 0.0 | |
| | | 공급시설(열·전기) | 95,929 | 0.5 | |
| | | 학 교 | 64,929 | 0.3 | |
| | | 공공청사 | 12,916 | 0.1 | |
| | | 폐기물처리장 | 157,700 | 0.8 | |
| | | 폐수종말 | 48,360 | 0.3 | |
| | 주유소충전소 | | 9,907 | 0.1 | |
| | 에코센터 | | 4,218,542 | 22.6 | |
| 유보지 | | | 331,077 | 1.8 | |

### 4) 투자유치여건

새만금 산업단지는 비행거리 3.5시간 내에 인구 100만 이상의 51개 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동해안 경제특구에서 최단거리(580㎞)에 위치하고 있다. 새만금은 새만금 기본구상에 따라 최대 73.9㎢까지 산업용지의 제공이 가능하고 군산공항 증축, 새만금 신항만, 군산항,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예정되어 있어 산업생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장기 임대산업단지 100년간 임대 가능하고 국내 최고수준의 인센티브인 최대 1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제공되며, 새만금 특별법에 의한 추가적 규제완화로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5) 분양계획

새만금산업단지는 매립공사 및 단지조성 등 개발시기에 따라 2010년부터 공구별로 순차분양할 예정이며, 입주자격은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공공업무시설 등 특정용도의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2010년 분양대상면적은 1공구 1,071천$m^2$으로 산업시설용지 997천$m^2$, 지원시설용지 6천$m^2$,1 공공청사 5천$m^2$, 주차장 8천$m^2$규모이다.

## 2.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 1) 개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역 경제기반을 육성하고 한미 FTA 등 대외개방 대비 농업의 위기극복 및 농업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관련 기관, 연구소, 기업체 등을 식품 전용 산업단지로 구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중이다.

## 2) 주요 현황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09~2015년 7년 동안 왕궁면 흥암지구에 약 2,390천m²(72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주거·상업용지를 포함할 경우 총 면적은 최대 3,967천m²(120만평)).

사업비는 총 5,798억원(국고 1,557억원, 지방비 614억원, 민자 3,627억원)으로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성하는 주거·상업용지를 포함할 경우, 사업비는 최대 8,100억원 수준이다.

〈그림 4-2〉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위치

## 3) 사업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전통발효식품, 기능성식품 등 국내 농수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성장과 수출이 가능한 국내외 식품기업 145개와 민간연구소 10개 이상을 유치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산·학·연간 클러스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기반시설 및 운영활성화(S/W) 사업을 지원하고, 식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3대 핵심 R&D기반으로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패키징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식품품질안전센터는 총사업비 329억원에 2층 2,500$m^2$ 규모로 식품품질안전 관련 기술 개발,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 검사, 컨설팅 등 안전한 식품생산·수출을 위한 일체의 기능 수행한다. 식품기능성평가센터는 총사업비 315억원에 3층 2,500$m^2$ 규모로 기능성평가 및 신소재개발 등 기능성 식품을 통한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식품패키징센터는 총사업비 176억원에 1층 3,300$m^2$규모로 친환경 포장소재 연구, 포장설계기술, 포장 표준화 작업 등 포장관련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형공장(총사업비 : 169억원, 규모 : 3층 9,000$m^2$), Pilot Plant (총사업비 : 258억원, 규모 : 1층 4,000$m^2$) 등 2개 기업지원시설과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시설을 총괄 관리할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특화기술 R&D, 식품기능성평가,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 등 4개 기업지원 사업을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 4) 투자유치여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88고속도로,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익산~포항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2시간 20분), 부산(3시간 30분), 인천(2시간 30분) 등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호남고속철도(KTX) 역사가 위치하고 있어 전국적 교통망이 탁월하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이전기업에게는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기업지원이 이루어지며, 기업 당 5억원의 고용보조금과 기업 당 5억원의 교육훈련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5) 분양계획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5년 준공예정이며, 식품기업 및 연구소 110개사 유치와 식품관련연구소 10개사, 국내외식품기업 100개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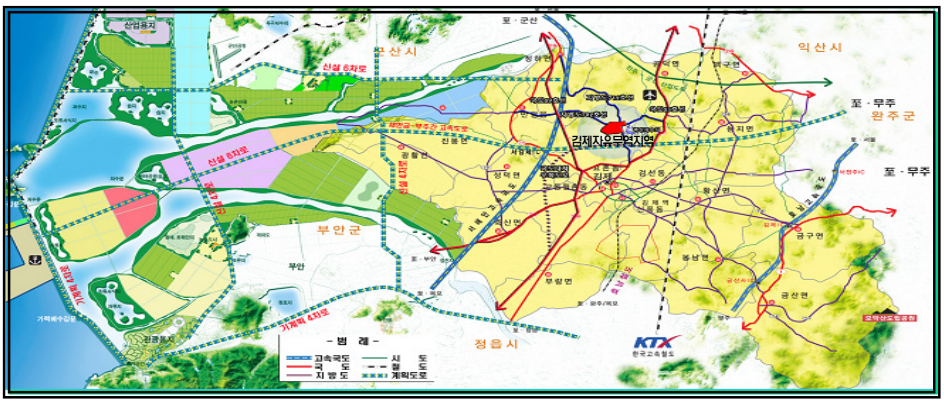
## 3. 김제자유무역지역

### 1) 개요

김제자유무역지역은 김제지평선산업단지의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 배후지역으로써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이끌어갈 신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키고, 농경도시인 김제시를 농경과 어우러진 산업도시의 전환의 시금석으로 삼기위해 조성중이다.

### 2) 주요 현황

김제자유무역지역은 2009~2011까지 7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백산면 부거리 일대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 내 992천m²(30만평)규모로 조성된다.




〈그림 4-3〉 김제자유무역지역 위치

### 3) 사업내용

| 구 분 |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 합 계 | | 991,740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소 계 | 813,227 | 82.0% | |
| | 식품산업 | 130,116 | 13.1% | |
| | 생물산업 | 32,529 | 3.3% | |
| | 자동차부품 | 216,860 | 21.9% | |
| | 기계/농기계 | 189,753 | 19.1% | |
| | 신소재 | 27,108 | 2.7% | |
| | 정밀화학 | 27,108 | 2.7% | |
| | 전자부품 | 54,215 | 5.5% | |
| | 물류 | 81,323 | 8.2% | |
| | 지원서비스 | 54,215 | 5.5% | |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178,513 | 18.0% | |
| | 도 로 | 124,959 | 12.6% | |
| | 공원, 녹지, 배수로 | 53,554 | 5.4% | |

### 4) 투자유치여건

김제시는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고속 교통망과 항만, 공항 등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잘 구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주요 도시들인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와 접해 있어 노동력 공급이 용이하다. 또한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입주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되고 외국인투자와 수출 기업 유치에 유리한 각종 세제혜택과 인허가 관련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 5) 분양계획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 기계부품을 비롯한 전자, IT 산업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 제 2 절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 1.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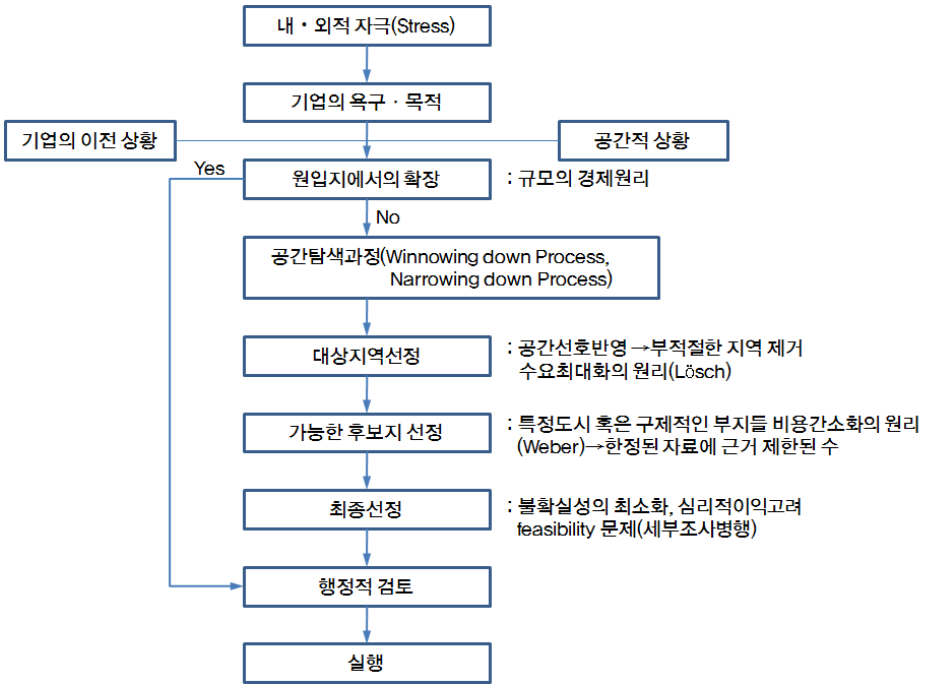
#### 1) 투자유치여건 비교 요인

기업의 입지결정은 보다 넓은 지역으로부터 특정지역, 특정지점으로 점차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는 공간탐색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이러한 입지결정과정의 단계에 따라 중요시하는 입지결정요인도 변화하게 된다(Stafford, 1972). 기업이 새로운 공장의 건설이나 기존 공장의 이전 등 새로운 입지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을 경우 먼저 공장의 입지를 위한 지역(region)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시하는 입지결정요인은 수요요인으로 기업은 수요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지역을 탐색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지역내에서 입지가 용이한 몇 개의 공장부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최소비용의 원리가 중요시되어 부지 구입비용이나 임금, 물류비용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중요시한다. 마지막으로 최종입지는 선정된 몇 개의 부지 가운데 불확실성을 줄이고 심리적 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순차적 입지선정과정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들 간의 투자유치여건에 대한 비교에서 중요시되는 입지결정요소는 수요요인보다는 비용요인에 비중을 두고, 또한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가 입지한 시·군 내지 통근권 단위에서 분석되는 것이 적절하다[8]. 이러한 면에서 본 분석에서는 전북의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여건의 비교분석을 위한 주요 입지요인으로 생산요소, 산업집적환경, 인프라, 정주환경 등을 구성하는 주요 입지결정항목 중 비용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8) 그러나 기업의 입지결정은 입지탐색의 각 과정에서 수요요인, 비용요인, 심리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산업단지의 선정단계에서도 비용요인뿐만 아니라 수요요인이나 심리적 요인도 간과되어서는 안됨. 즉, 공간탐색과정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요최대화의 원리가 적용되기 전에 이미 입지결정자가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인식에 의해 입지대상 범위가 크게 제한되는 경향을 보임(산업연구원, 1987).




〈그림 4-4〉 순차적 입지결정과정 모형(산업연구원, 1987)

먼저 생산요소의 경우 토지의 취득비용 및 취득 용이성과 임금수준 및 인력 고용의 용이성을 비교하였다. 산업집적요소의 경우 전북의 주요 산단의 유치대상업종의 집적수준을 비교하였다.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요구되는 전후방산업은 기업의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혁신성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인프라의 경우 물류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만, 공항, 그리고 시장 접근성을 비교하였다. 정주환경은 주거비용, 지역의 가계소비지출, 의료 및 교육여건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정주환경 구성요소들은 종업원의 생활비용을 감소시켜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고용 용이성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표 4-1〉 산업단지 비교 요인 및 측정지표

| 분야 | 구성항목 | | 측정지표 | 자료의 공간단위 |
|---|---|---|---|---|
| 생산요소 | 토지 | 용지취득여건 | 산업단지 규모 | 산업단지 |
| | | 지가 | 산업단지 분양가 | 산업단지 |
| | 노동 | 임금 |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 | 산업단지 입지 시·도 |
| | | 인력 수급여건 | 구직배율 | 산업단지 입지 시·도 |
| | | 생산인력 수급여건 | 전문계고·전문대학 학생 수 | 산업단지 통근권역 |
| | | 전문인력 수급여건 | 대학·대학원 학생 수 | 산업단지 통근권역 |
| 산업집적 | 제조업 집적도 | | 식품산업 입지계수(LQ) | 산업단지 통근권역 |
| | | | 화학·비금속·기계·자동차산업 입지계수(LQ) | 산업단지 통근권역 |
| 인프라 | 접근성 | 시장 접근성 | 서울까지의 시간거리 | 산업단지 입지 시·군 |
| | | | 전국 시·도 접근성 | 산업단지 |
| | | 항만 접근성 | 주요 수출입항만 접근성 | 산업단지 |
| | | | 인근 수출입 항만까지의 시간거리 | 산업단지 |
| | | 공항 접근성 | 인천공항까지의 시간거리 | 산업단지 |
| | | | 인근 공항까지의 시간거리 | 산업단지 |
| 정주환경 | 교육환경 | 초중등 교육환경 |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 | 산업단지 입지 시·군 |
| | | | 수능 1~4등급 평균 비율 | 산업단지 입지 시·도 |
| | | 대학 교육환경 | 아시아 100위 이내 대학수 | 산업단지 입지 시·도 |
| | 의료환경 | |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 산업단지 입지 시·군 |
| | | | 종합병원 수 | 산업단지 통근권역 |
| | 주택구입 환경 | | 아파트 매매가 | 산업단지 입지 시·군 |
| | 생활비용 환경 | |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액 | 산업단지 입지 시·도 |

주 : 산업단지 통근권역은 산업단지 소재 시·군으로부터 도로통행시간 45분 이내에 속한 주변 시·군을 포함한 지역을 의미함.

## 2) 비교대상 산업단지의 선정

비교대상 산업단지의 선정은 첫째, 전북의 주요 산업단지 특성과의 연계성이 있는 산업단지, 둘째, 전북과 투자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 셋째, 개발이 진행 중으로 향후 투자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산업단지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산업단지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전북의 주요 비교대상 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자유무역지역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였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으며 해안에 접한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외자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으

로 부지가 중규모이다. 이러한 면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의 비교대상 산업단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 산업단지)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산업단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대송산업단지)을 선정하였다. 또한 김제자유무역지역과 비교대상 산업단지는 동해자유무역지역과 율촌자유무역지역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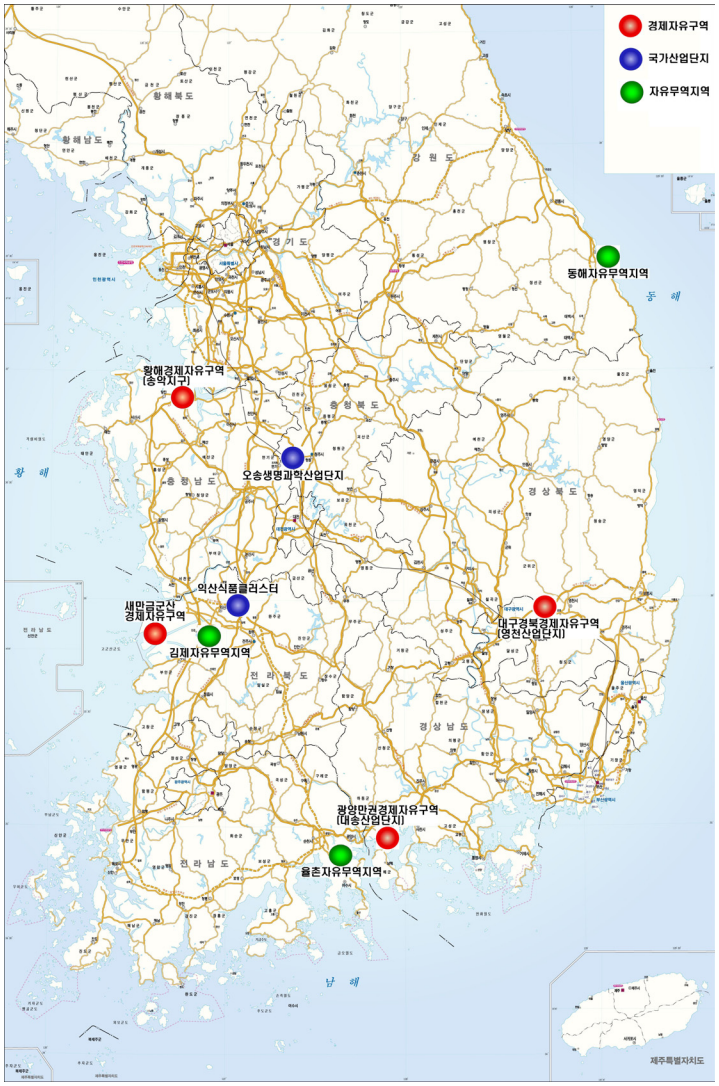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 연구소 및 기관을 유치하여 식품산업으로 특화된 과학연구단지의 성격을 지닌 산업단지이다. 이와 관련되는 산업단지로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를 선정하였다.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생명산업 특화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과학연구단지이다.

둘째, 전북과 투자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시·도로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을 선정하였다. 충남, 충북, 강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이며 산업집적지인 수도권과 근접하여 지방의 시·도 가운데 상대적으로 투자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도 2000년대에 들어와 수도권 기업의 주요 이전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북과의 투자유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남과 경북은 70년대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산업투자와 함께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등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전북의 주요 산업에서 투자유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셋째,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향후 전북의 주요 산업단지와 투자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산업단지들 가운데 비교대상 단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의 비교대상 산업단지들 가운데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를 제외한 5개 산업단지는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들로 투자유치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다. 다만,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는 기 조성되어 분양이 완료되어 가는 단계에 있으나 이 단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식품관련산업으로 특화된 대규모 산업단지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 4-2〉 비교대상 산업단지 선정 결과

| 전북의 주요 산단 | 비교대상산단 | 선정 근거 |
|---|---|---|
| 새만금 산업단지 |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 | 경제자유구역 입지, 서해안 입지, 대규모 산단, 신규 조성, 충남 입지 |
|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산업단지) | 경제자유구역 입지, 내륙 입지, 경북 입지 |
|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대송산단) | 경제자유구역 입지, 신규 조성, 경남 입지 |
| 국가식품클러스터 |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 생명산업특화 과학연구단지, 충북 입지 |
| 김제자유무역지역 | 동해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 신규 조성, 강원 입지 |
| | 율촌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 신규 조성, 전남 입지 |




〈그림 4-5〉 비교대상 산업단지의 입지

## 2. 주요 입지요인 비교

### 1) 생산요소 환경

#### (1) 토지

가. 산업용지 취득 여건

산업용지의 취득 용이성은 투자유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산업단지의 조성시기 및 규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산업단지의 조성 시기는 새만금산업단지를 제외한 비교 대상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2013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며,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최종 완공이 2020년이나 1단계 사업이 2015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모든 산업단지가 유치를 추진 중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단지의 규모는 면적이 클수록 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용지의 공급에 보다 자유로우며, 관련산업의 집적도가 높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유치에 보다 용이하다. 이러한 면에서 전북의 3개 산업단지는 투자유치여건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면적이 18.7㎢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규모면에서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여건이 크게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에도 4.0㎢의 규모로 비교적 대규모 산업단지로 투자유치에 양호하다. 산업단지 면적이 1.0㎢ 규모로 비교적 소규모인 김제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도 다른 자유무역지역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 편이다.

나. 산업단지 분양가(임대료)

전북의 3개 산업단지는 다른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산업단지 분양가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가는 15만원/$m^2$ 이하를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이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산단)(12만9천원/$m^2$)보다는 높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의 24만~36만원/㎡나 광양만경제자유구역(대송산단)의 18만~27만원/㎡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김제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월 43-85원/$m^2$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해자유무역지역이나 율촌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표 4-3〉 산업단지별 조성면적 및 분양가(임대료)

| 구분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 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생명 과학산단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조성기간 | 2008-2020 | 2009-2011 | 2009-2013 | 2008-2025 | 2009-2012 | 2006-2012 | 2006-2010 | 2006-2009 | 2003-2008 |
| 조성면적 (천㎡) | 18,700 | 992 | 3,967 | 13,029 | 1,374 | 1,471 | 248 | 344 | 4,634 |
| 분양가 | 151,000원 /㎡ 이하로 예상 | 임대료: 월 43-85 원/㎡으로 예상 | 151,000원 /㎡ 이하로 예상 | 24만-36만 원/㎡으로 예상 | 18만-27만 원/㎡으로 예상 | 129,313원 /㎡ | 자기공장 : 월 69원/㎡ 표준공장 중공업동평균: 월 607원/㎡ 경공업동평균: 월 868원/㎡ | 임대료: 월 98원 /㎡ | 155,554원 /㎡ |

주: 분양가가 미확정된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관련 산업단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추정함.

### (2) 노동

#### 가. 임금

임금수준은 산업단지 입지 시·도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을 비교하였다. 전북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은 비교 대상 산업단지 중 가장 높은 전남의 81.9% 수준으로 임금 측면에서 전북의 제조업 근로자 노동시장의 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2009년 4월 현재 199만 8,236원으로 비교대상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시·도 중 오송생명과학산단이 속한 충북(188만 2,392원)과 동해자유무역지역이 속한 강원(191만 1,236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비교대상 산업단지가 속한 시·도 중 근로자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대송산단)과 율촌자유무역지역이 속한 전남으로 243만 9,617원이며, 다음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이 속한 충남이 213만 7,78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일반산단)이 속한 경북이 212만 4,415원이다.

〈표 4-4〉 산업단지별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

(단위 : 원)

| 구분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생명과학산단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평균 임금 | 1,998,236 | 1,998,236 | 1,998,236 | 2,137,978 | 2,439,617 | 2,124,415 | 1,911,236 | 2,439,617 | 1,882,392 |
| 최고 대비 비중(%) | 81.9 | 81.9 | 81.9 | 87.6 | 100.0 | 87.1 | 78.3 | 100.0 | 77.2 |

주 : 산업단지가 속한 시·도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2009년 4월 기준).

## 나. 인력수급

인력수급 여건은 구직배율과 생산직 및 전문직의 잠재노동력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구직배율은 산업단지 입지 시·도의 자료이며, 생산직 및 전문직의 잠재노동력 공급량은 산업단지가 입지한 통근권역의 자료이다.

구직배율은 신규 구직인원대비 신규 구직자수의 비중으로 구직배율이 100을 넘으면 구직자가 구인인원에 비해 많음을 의미하므로, 구직배율이 100 이상으로 높을수록 해당지역의 인력공급이 원활함을 의미한다. 전라북도의 구직배율은 235.1%로 동해자유무역지역의 339.4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일반산단)이 191.3, 오송생명과학산단이 178.9, 율촌자유무역지역이 176.9,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이 148.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대송산단)이 129.6 등으로 전라북도의 3개 산업단지 및 동해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단지들은 모두 200.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구직배율이 235인 전라북도 산업단지들은 여타의 산업단지들에 비해 기업의 인력 충원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5〉 산업단지별 구직배율

(단위 : %)

| 구분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생명과학산단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구직배율 | 235.1 | 235.1 | 235.1 | 148.1 | 129.6 | 191.3 | 339.4 | 176.9 | 178.9 |

주 : 산업단지 입지 시·도의구직배율임. 구직배율 = (신규구직자수/신규구인인원)×100
자료 : 워크넷 통계연보, 한국고용정보원, 2008.

전북지역의 인력공급 여건에 대한 분석은 생산인력과 전문인력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생산인력의 공급가능성은 산업단지별 통근권역 내에 소재한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학생 수를 분석하였으며, 전문인력은 대학 및 대학원 학생 수를 분석하였다.

생산인력의 경우 전북지역 3개 산업단지별 통근권역 내 전문계 고교 및 전문대학 학생 수는 4만 6천여명 정도로 비교적 풍부하다. 비교 대상 산업단지 가운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일반산단)이 13만여명, 오송생명과학산단이 7만여명으로 생산인력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산단)은 전북지역의 산업단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해자유무역지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대송산단), 율촌자유무역지역은 3만명 미만으로 학생 수가 작다.

전문인력의 경우 전북지역 3개 산업단지의 통근권역별 대학 및 대학원 학생 수는 7만~11만여명으로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계 고교 및 전문대학 학생 수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전북지역 산업단지의 대학 및 대학원 학생 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오송생명과학산단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일반산단)에 비해서는 크게 작은 수준이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대송산단)과 동해자유무역지역 및 율촌자유무역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많은 수준이다.

〈표 4-6〉 통근권역별 잠재 노동력현황

(단위 : 명)

| 구분 |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생명과학산단 |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생산인력 | 계 | 46,904 | 46,265 | 46,168 | 45,406 | 19,474 | 133,676 | 9,236 | 29,086 | 74,609 |
| | 전문계고교 학생 수 | 24,775 | 24,356 | 24,259 | 24,433 | 8,378 | 43,995 | 4,695 | 13,879 | 34,317 |
| | 전문대학 학생 수 | 22,129 | 21,909 | 21,909 | 20,973 | 11,096 | 89,681 | 4,541 | 15,207 | 40,292 |
| 전문인력 | 소계 | 75,308 | 75,981 | 112,737 | 76,817 | 17,417 | 224,827 | 18,875 | 17,314 | 284,195 |
| | 대학 학생 수 | 66,434 | 67,107 | 101,039 | 71,771 | 11,632 | 203,637 | 18,397 | 15,790 | 253,075 |
| | 대학원 학생 수 | 8,874 | 8,874 | 11,698 | 5,046 | 5,785 | 21,190 | 478 | 1,524 | 31,120 |

주 : 통근권역은 2007년 기준 도로-통행시간 45분 이내의 거리로 구분함(부록1 참고).
자료: 각 시·군 통계연보. 2008.

## 2) 산업집적 환경

산업집적 환경은 전북의 3개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각 산업단지의 산업집적도를 분석하였다. 전북의 새만금산업단지와 김제자유무역지역의 중점투자유치 대상업종은 신재생에너지, 첨단부품소재,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조선기자재산업 등으로 화학제품, 비금속제품, 기계, 자동차, 운송장비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집적도를 분석하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식품관련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통해 식품산업 특화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식품산업의 집적도를 분석하였다. 산업집적도는 각 산업단지의 통근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입지계수를 분석하였다.

### (1) 새만금산업단지 및 김제자유무역지역

새만금산업단지 및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주요유치업종인 화학제품, 비금속제품, 기계, 자동차, 운송장비산업의 입지계수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1.2 이상으로 비교적 특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비교대상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대송산단)이 2.0으로 새만금산업단지 및 김제자유무역지보다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는 전북의 새만금산업단지 및 김제자유무역지역의 경우와 특화도가 유사하다. 이를 제외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일반산단), 동해 및 율촌 경제자유구역과 오송생명과학산단의 특화도는 전북에 비해 낮다.

〈표 4-7〉 통근권역별 주요 유치대상 업종의 특화도

(단위 : 개사, 명)

| 구분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 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생명 과학산단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사업체수 | 551 | 534 | 612 | 2,048 | 350 | 1,577 | 40 | 237 | 1,149 |
| LQ | 1.21 | 1.20 | 1.18 | 1.25 | 2.03 | 0.99 | 0.87 | 1.15 | 1.03 |
| 종사자수 | 32,220 | 31,513 | 34,660 | 114,724 | 14,164 | 67,272 | 2,300 | 14,783 | 51,052 |
| LQ | 1.25 | 1.24 | 1.15 | 1.09 | 1.76 | 0.75 | 1.16 | 1.07 | 0.70 |

주 : 주요유치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임.
자료 :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종사자 10인이상), 2008.

### (2)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주요 유치업종인 식품산업의 입지계수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2.7 이상으로 특화도가 매우 높다. 비교 대상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동해자유무역지역이 5.0~7.0 수준으로 식품산업의 특화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율촌자유무역지역이 2.0~3.6 수준으로 역시 특화도가 높다. 그러나 생명산업 중심의 특화산업지역인 오송생명과학산단은 1.7 정도로 상대적으로 특화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대송산단)은 1.6~2.3 수준으로 비교적 특화도가 높게 나타난다. 기타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일반산단)은 1.0 미만으로 특화도가 낮다.

〈표 4-8〉 통근권역별 식품제조업 산업집적

(단위 : 개사, 명)

| 구분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생명 과학산단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사업체수 | 275 | 277 | 323 | 295 | 88 | 221 | 72 | 167 | 440 |
| LQ | 2.70 | 2.78 | 2.78 | 0.80 | 2.27 | 0.62 | 6.96 | 3.62 | 1.76 |
| 종사자수 | 13,375 | 13,648 | 15,045 | 13,609 | 2,283 | 9,380 | 1,745 | 4,802 | 22,255 |
| LQ | 2.95 | 3.07 | 2.85 | 0.74 | 1.62 | 0.60 | 5.05 | 1.98 | 1.74 |

자료 :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종사자 10인이상), 2008.

## 3) 인프라 환경

인프라 환경은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환경은 교통, 통신,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시설 등 다양한 물리적 인프라가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인프라를 제외한 통신,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단지의 수요에 맞추어 시설이 구비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별로 차별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산업단지별로 차별화되는 요소인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통인프라에서 중요한 요소는 소비시장 및 항만, 공항과의 접근성이다. 소비시장 접근성은 수도권 접근성과 전국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도권 접근성은 산업단지로부터 서울간의 시간거리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접근성은

산업단지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시·도청 소재지 간의 시간거리에 각 시·도의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한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항만과 공항 접근성은 우리나라 주요 항만 및 공항까지의 거리와 산업단지 인근의 주요 무역항 및 국제공항까지의 거리로 분석하였다. 주요 항만까지의 거리는 우리나라 주요 컨테이너 수출입 항만인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까지의 시간거리에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을 가중치로 한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주요 공항은 인천공항까지의 거리로 계산하였다.

소비시장 접근성을 보면 전북의 3개 산업단지는 비교 대상 산업단지에 비해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수도권 접근성의 경우 전북의 3개 산업단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과 오송생명과학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산업단지에 비해 접근성이 크게 좋다. 전북의 3개 산업단지의 서울까지의 시간거리는 150~179분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의 101분, 오송생명과학산단의 112분에 비해서는 시간거리가 길다. 그러나 이들 2개 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단지들은 서울까지의 시간거리가 230~280분으로 전북의 산업단지에 비해 80~90분 정도 더 길게 나타난다.

〈표 4-9〉 소비시장 접근성

(단위 : km, 분)

| 구분 |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 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생명 과학산단 |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수도권 접근성 | 서울까지 거리 | 230.5 | 223.7 | 193.6 | 90.3 | 374.6k | 354.8 | 276.6 | 374.1 | 131.4 |
| | 서울까지 소요시간 | 175 | 169 | 157 | 101 | 273 | 256 | 235 | 280 | 112 |
| 전국 접근성 | 전국 시·도청 접근성 | 272.5 | 253.1 | 220.9 | 260.1 | 280.0 | 254.3 | 428.1 | 290.1 | 209.3 |

주 1) 전국 접근성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청까지의 시간거리에 각 시·도의 인구를 가중치로 곱한 값의 평균값임
2) naver의 길찾기(http:/map.naver.com)를 이용하여 계산함

전국 접근성의 경우 전북의 3개 산단은 비교 대상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자유무역지역의 전국 접근성은 매우 우수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전국 접근성은 220.9,

김제자유무역지역은 253.1로 오송생명과학산단(209.3)을 제외하고 가장 접근성이 우수하며, 새만금 산업단지(272.5)는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260.1)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일반산단)(254.3)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북 3개 산업단지의 항만 접근성은 우리나라 주요 항만과의 접근성은 매우 불리한 반면, 인근 항만과의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과의 접근성은 새만금산업단지 91.8, 김제자유무역지역 79.9, 국가식품클러스터 70.3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과 오송생명과학산단과는 비슷하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대송산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일반산단), 율촌자유무역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근 항만과의 접근성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군산항까지 1시간 14분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새만금산업단지는 21분, 김제자유무역지역은 44분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항만 및 공항 접근성

| 구분 |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 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생명 과학산단 |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항만 | 주요 항만 접근성 | 91.8 | 79.9 | 70.3 | 88.6 | 49.1 | 42.7 | 112.4 | 50.7 | 70.6 |
| | 부산항 | 297.2km, 5시간 0분 | 305.5km, 4시간 19분 | 271.7km, 3시간 42분 | 393.2km, 4시간 51분 | 161.7km, 2시간 22분 | 115.6km, 1시간 43분 | 301.8km, 5시간 37분 | 181.9km, 2시간 28분 | 286.5km, 3시간 43분 |
| | 인천항 | 245.1km, 3시간 9분 | 238.3km, 3시간 4분 | 216.4km, 2시간 58분 | 92.3km, 1시간 28분 | 397.4km, 4시간 56분 | 383.3km, 4시간 39분 | 299.1km, 4시간 7분 | 396.8km, 5시간 5분 | 154.1km, 2시간 15분 |
| | 광양항 | 214.0km, 2시간 42분 | 183.0km, 2시간 20분 | 194.0km, 2시간 34분 | 338.4km, 4시간 0분 | 24.6km, 42분 | 242.4km, 3시간 6분 | 410.2km, 7시간 12분 | 18.7km, 32분 | 262.8km, 3시간 19분 |
| | 인근 수출입 항만 | 군산항 | 군산항 | 군산항 | 평택항 | 광양항 | 포항항 | 동해항 | 광양항 | 팽택항 |
| | | 113.6km 21분 | 30.9km 44분 | 39.9km 1시간 14분 | 24.4km 30분 | 24.6km, 42분 | 59.1km 1시간 9분 | 3.1km 7분 | 18.7km 32분 | 103.0km 1시간 23분 |
| 공항 | 인천공항 | 260.7km 3시간 40분 | 253.9km 3시간 33분 | 231.9km 3시간 15분 | 107.8km 1시간 59분 | 412.0km 5시간 6분 | 398.9km 5시간 2분 | 314.7km 5시간 8분 | 412.3km 5시간 24분 | 173.8km 2시간 33분 |
| | 인근 국제공항 | 군산공항 | 군산공항 | 군산공항 | 청주공항 | 김해공항 | 대구공항 | 양양공항 | 무안공항 | 청주공항 |
| | | 11.3km 약 15분 | 39.2km 46분 | 50.5km 1시간 24분 | 117.3km 1시간 39분 | 147.0km 2시간 21분 | 71.4km 53분 | 91.1km 1시간 20분 | 150.5km 1시간 58분 | 20.6km 35분 |

주: 거리와 시간은 네이버(http://map.naver.com)의 길찾기를 이용하여 제시하였음

공항의 경우 전북의 3개 산업단지는 인천공항까지 3시간 30분여가 소요되어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와 오송생명과학산단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낮지만

그 외의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근 공항까지의 접근성은 새만금산업단지가 15분, 김제자유무역지역이 46분으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도 1시간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여 비교적 양호하다. 비교대상 산업단지와 비교할 때에도 전북의 3개 산업단지의 인근 공항 접근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 4) 정주환경

### (1) 교육환경

교육환경은 초중등 교육환경과 대학 교육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초중등 교육환경은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북 3개 산단 중 김제자유무역지역은 9.4명으로 우수하나, 새만금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각각 17.5명과 16.5명으로 다른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학생 수가 작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초중등 교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지 시·도의 수능시험 성적을 분석하였다. 산업단지가 입지한 시·도의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영역의 1~4등급 평균비율을 볼 때 전북은 40.4%로 동해자유무역지역이 속한 강원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북의 초중등 교육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학 교육환경은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 결과(2009년 5월)'를 이용하여 산업단지 입지 시·도에 소재한 대학 중 아시아 대학 순위 100위권과 200위권 이내에 속한 대학의 수를 비교하였다. 아시아 100위권 이내에 속한 대학은 전북과 경북에만 각각 1개 대학이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의 대학 교육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접 광역시를 포함할 경우 100위권 이내의 대학은 전남의 경우 광주가 포함되어 2개, 충남의 경우 대전이 포함되어 3개, 경북의 경우 대구가 포함되어 2개가 되어 전북의 대학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1〉 산업단지별 교육환경

(단위 : 명)

| 구분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 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생명 과학산단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1] | 17.5 | 9.4 | 16.5 | 15.8 | 7.7 | 13.8 | 17.4 | 18.4 | 15.8 |
| 수능 1~4등급 비율[2] | 40.4 | 40.4 | 40.4 | 36.6 | 39.4 | 37.7 | 42.7 | 39.4 | 38.4 |
| 아시아 100위 이내 대학수[3] | 1 | 1 | 1 | 0 (대전: 3) | 0 (광주: 2) | 1 (대구: 1) | 0 | 0 (광주: 2) | 0 |

주 1) 군산, 익산, 경북영천, 충북청원의 자료는 2009년, 그 외 시군의 자료는 2008년 기준임.(자료: 각 시·군 통계연보)

2) 산업단지 입지 시·도의 2009학년도 수능성적 중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의 4개 영역의 1~4등급 비율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대학신문, http://www.unn.net)

3) 산업단지 입지 시·도에 소재한 대학수임. ( )는 산업단지 입지 시·도에 인접한 광역시의 대학수임. (자료: 2010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 결과, http://www.topuniversities.com)

### (2) 의료환경

의료환경은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수와 종합병원수로 분석하였다.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수는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환경을 대표하는 지표이며, 종합병원은 지역의 의료환경의 질을 대표하는 지표이다.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수는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환경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산업단지 입지 시·군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종합병원은 의료환경의 질을 대표하는 지표로 보다 광역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산업단지의 통근권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4-12〉 의료환경

단위 : 병상, 명

| 구분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 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생명 과학산단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인구1000명당 의료인력[2] | 2.9 | 2.5 | 2.3 | 7.0 | 2.0 | 2.4 | 6.6 | 3.5 | 5.3 |
| 종합병원수[1] | 13 | 12 | 12 | 9 | 4 | 22 | 7 | 13 | 20 |

주 1) 산업단지 입지 시·군 기준임.

2) 산업단지 통근권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수임.

자료: 각 시·군 통계연보. 2008.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수는 전북의 3개 산단이 여타의 산업단지에 비해 작아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종합병원 수의 경우에는 전북의 3개 산업단지가 12~13개소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산단)과 오송생명과학산단을 제외한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많아 비교적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아파트 매매가

전북지역 3개 산업단지가 소재한 시·군의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7월 현재 $m^2$당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김제자유무역지역이 소재한 김제시가 65만원으로 비교 대상 산업단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과 익산의 아파트 매매가도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볼 때 중간정도의 가격인 100~110만원대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다. 특히 충남 당진, 충북 청원, 전남 순천 등과 비교해서는 전북 3개 산업단지의 아파트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산업단지 입지 시·군의 아파트매매가

단위 : 만원/$m^2$

| 구분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 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생명 과학산단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매매가 | 109 | 65 | 118 | 159 | 71 | 84 | 90 | 129 | 122 |

주 : 2010년 7월 기준 산업단지 입지 시·의 아파트 평균매매가임.
자료 : 한국감정원(http://www.ret.co.kr)

### (3)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액

지역의 생활비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인 가계최종소비지출액은 산업단지 입지 시·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라북도의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액은 690,918원으로 전남(647,874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이는 전북의 1인당 생활비 부담이 타지역에 비하여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북의 3개 산업단지가 생활비 부담 면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4〉 산업단지 입지 시·도의 1인당 월평균 가계최종소비지출액

단위 : 만원

| 구분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 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생명 과학산단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가계최종소 비지출액 | 69.1 | 69.1 | 69.1 | 76.1 | 82.0 | 72.9 | 75.3 | 64.8 | 72.6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 3. 종합비교

전북의 3개 산업단지와 전북 외부 지역의 6개 비교대상 산업단지의 입지요인별 여건을 종합하면 <표 4-15>와 같다. 전체적으로 전북의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자유무역지역 등 3개 산업단지는 6개 비교대상 산업단지에 비해 비교적 산업입지여건이 유리하다.

산업단지별로 살펴보면, 새만금 산업단지는 토지여건에 있어서 조성면적이 넓어 용지 취득의 용이성 측면에서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또한 산업단지 분양가가 낮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인력여건에 있어서는 제조업 근로자 평균임금이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영천산단)과 오송생명과학산단을 제외한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생산인력과 전문인력의 공급이 풍부하고, 구직배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인력수급여건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나났다. 전북지역의 산업집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새만금산업단지의 주요 유치대상업종과 관련되는 산업의 특화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접근성에 있어서는 소비시장 및 공항과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부산항 등 주요 수출입 항만과의 접근성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근항만과의 접근성은 매우 양호하다. 정주환경은 아파트 매매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자유무역지역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에도 새만금산업단지와 토지여건, 인력여건, 정주여건이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산업단지는 소비시장과의 접근성과 주요 수출입항만 및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이 새만금산업단지에 비해 더욱 양호하다. 반면, 인근 수출입항만과 공항과의 접근성은 새만금산업단지에 비

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주요 유치업종인 식품산업의 특화도가 매우 높아 관련 산업의 유치에 더욱 유리한 여건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산업단지 입지여건 종합 비교

| 구분 | | |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 생명과학산단 |
|---|---|---|---|---|---|---|---|---|---|---|---|---|
|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조성지역 | | | | 전라북도 군산시 | 전라북도 김제시 | 전라북도 익산시 | 충청남도 당진군 | 경상남도 하동군 | 경상북도 영천군 | 강원도 동해시 | 전라남도 순천시 | 충청북도 청원군 |
| 조성기간 | | | | 2008-2020 | 2009-2011 | 2009-2013 | 2008-2025 | 2009-2012 | 2006-2012 | 2006-2010 | 2006-2009 | 2003-2008 |
| 토지 | 조성면적(천㎡) | | | 18,700 | 992 | 3,967 | 13,029 | 1,374 | 1,471 | 248 | 344 | 4,634 |
| | ㎡당 분양가(자유무역지역은 월 임대료) | | | 151,400원 이하로 예상 | 43-85원으로 예상 | 136,260-151,400원으로 예상 | 24만-36만원으로 예상 | 18만-27만원으로 예상 | 129,313원 | 69원 | 98원 | 155,554원/㎡ |
| 인력 | 제조업 근로자 평균임금(시도)(만원) | | | 199.8 | 199.8 | 199.8 | 213.8 | 244.0 | 212.4 | 191.1 | 244.0 | 188.2 |
| | 구직배율(%) | | | 235.1 | 235.1 | 235.1 | 148.1 | 129.6 | 191.3 | 339.4 | 176.9 | 178.9 |
| | 생산인력 (통근권역) | 소계(명) | | 46,904 | 46,265 | 46,168 | 45,406 | 19,474 | 133,676 | 9,236 | 29,086 | 74,609 |
| | | 제조업 종사자수 대비 학생 수 | | 0.62 | 0.63 | 0.53 | 0.15 | 0.83 | 0.51 | 1.61 | 0.72 | 0.35 |
| | | 전문계고등학교 학생 수(명) | | 24,775 | 24,356 | 24,259 | 24,433 | 8,378 | 43,995 | 4,695 | 13,879 | 34,317 |
| | | 전문대학 학생 수(명) | | 22,129 | 21,909 | 21,909 | 20,973 | 11,096 | 89,681 | 4,541 | 15,207 | 40,292 |
| | 전문인력 (통근권역) | 소계(명) | | 75,308 | 75,981 | 112,737 | 76,817 | 17,417 | 224,827 | 18,875 | 17,314 | 284,195 |
| | | 제조업 종사자수 대비 학생 수 | | 1.00 | 1.03 | 1.29 | 0.25 | 0.75 | 0.86 | 3.28 | 0.43 | 1.34 |
| | | 대학 학생 수(명) | | 66,434 | 67,107 | 101,039 | 71,771 | 11,632 | 203,637 | 18,397 | 15,790 | 253,075 |
| | | 대학원 학생 수(명) | | 8,874 | 8,874 | 11,698 | 5,046 | 5,785 | 21,190 | 478 | 1,524 | 31,120 |
| 산업 집적 | 식품산업 LQ지수(통근권역) | | 사업체수(개) | 2.70 | 2.78 | 2.78 | 0.80 | 2.27 | 0.62 | 6.96 | 3.62 | 1.76 |
| | | | 종사자수(명) | 2.95 | 3.07 | 2.85 | 0.74 | 1.62 | 0.60 | 5.05 | 1.98 | 1.74 |
| | 화학·비금속·기계·자동차 산업 LQ지수(통근권역) | | 사업체수(개) | 1.21 | 1.20 | 1.18 | 1.25 | 2.03 | 0.99 | 0.87 | 1.15 | 1.03 |
| | | | 종사자수(명) | 1.25 | 1.24 | 1.15 | 1.09 | 1.76 | 0.75 | 1.16 | 1.07 | 0.70 |
| 인프라 | 소비시장 접근성 | 수도권 접근성 | 서울까지 거리(㎞) | 230.5 | 223.7 | 193.6 | 90.3 | 374.6 | 354.8 | 276.6 | 374.1 | 131.4 |
| | | | 서울까지 소요시간(분) | 175 | 169 | 157 | 101 | 273 | 256 | 235 | 280 | 112 |
| | | 전국 접근성 | 전국 시·도청 접근성 | 272.5 | 253.1 | 220.9 | 260.1 | 280.0 | 254.3 | 428.1 | 290.1 | 209.3 |

| 구분 | | | |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 생명과학산단 |
|---|---|---|---|---|---|---|---|---|---|---|---|---|---|
| |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산단) | 동해 | 율촌 | |
| 인프라 | 항만 접근성 | 주요 항만 접근성 | | | 91.8 | 79.9 | 70.3 | 88.6 | 49.1 | 42.7 | 112.4 | 50.7 | 70.6 |
| | | | 부산항 | 거리(㎞) | 297.2 | 305.5 | 271.7 | 393.2 | 161.7 | 115.6 | 301.8 | 181.9 | 286.5 |
| | | | | 소요시간(분) | 300 | 259 | 222 | 291 | 142 | 103 | 337 | 148 | 223 |
| | | | 인천항 | 거리(㎞) | 245.1 | 238.3 | 216.4 | 92.3 | 397.4 | 383.3 | 299.1 | 396.8 | 154.1 |
| | | | | 소요시간(분) | 189 | 184 | 178 | 88 | 296 | 279 | 247 | 305 | 135 |
| | | | 광양항 | 거리(㎞) | 214 | 183 | 194 | 338.4 | 24.6 | 242.4 | 410.2 | 18.7 | 262.8 |
| | | | | 소요시간(분) | 162 | 140 | 154 | 240 | 42 | 186 | 432 | 32 | 199 |
| | | 인근수출입항 접근성 | 항만명 | | 군산항 | 군산항 | 군산항 | 평택항 | 광양항 | 포항항 | 동해항 | 광양항 | 팽택항 |
| | | | 거리(㎞) | | 113.6 | 30.9 | 39.9 | 24.4 | 24.6 | 59.1 | 3.1 | 18.7 | 103 |
| | | | 소요시간(분) | | 21 | 44 | 74 | 30 | 42 | 69 | 7 | 32 | 83 |
| | 공항 접근성 | 인천공항 | 거리(㎞) | | 260.7 | 253.9 | 231.9 | 107.8 | 412 | 398.9 | 314.7 | 412.3 | 173.8 |
| | | | 소요시간(분) | | 220 | 213 | 195 | 119 | 306 | 302 | 308 | 324 | 153 |
| | | 인근공항4) | 공항명 | | 군산공항 | 군산공항 | 군산공항 | 청주공항 | 김해공항 | 대구공항 | 양양공항 | 무안공항 | 청주공항 |
| | | | 거리(㎞) | | 11.3 | 39.2 | 50.5 | 117.3 | 147 | 71.4 | 91.1 | 150.5 | 20.6 |
| | | | 소요시간(분) | | 15 | 46 | 84 | 99 | 141 | 53 | 80 | 118 | 35 |
| 정주 환경 | 교육 환경 |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시군)(명) | | | 17.5 | 9.4 | 16.5 | 15.8 | 7.7 | 13.8 | 17.4 | 18.4 | 15.8 |
| | | 수능 1~4등급 평균 비율(시도)(%) | | | 40.4 | 40.4 | 40.4 | 36.6 | 39.4 | 37.7 | 42.7 | 39.4 | 38.4 |
| | | 아시아 100위 이내 대학수(시도)(개) | | | 1 | 1 | 1 | 0 (대전: 3) | 0 (광주: 2) | 1 (대구: 1) | 0 | 0 (광주: 2) | 0 |
| | 의료 환경 |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시군)(명) | | | 2.9 | 2.5 | 2.3 | 7.0 | 2.0 | 2.4 | 6.6 | 3.5 | 5.3 |
| | | 종합병원수(통근권역)(개) | | | 13 | 12 | 12 | 9 | 4 | 22 | 7 | 13 | 20 |
| |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10년7월)(시군)(만원) | | | | 109 | 65 | 118 | 159 | 71 | 84 | 90 | 129 | 122 |
| | 1인당 월평균 가계최종소비지출액(시도)(원) | | | | 690,918 | 690,918 | 690,918 | 761,070 | 819,523 | 729,009 | 752,855 | 647,874 | 726,077 |

주 : (시군)은 산업단지 소재 시・군, (시도)는 산업단지 소재 시・도, (통근권역)은 산업단지 소재 시・군으로부터 도로통행시간 45분 이내에 속한 주변 시・군을 포함한 권역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제 5 장

#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 방안

제 1 절 전북 이전기업의 입지환경 인식
제 2 절 전북지역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 제 5 장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 제 1 절 전북 이전기업의 입지환경 인식

### 1. 분석자료

전북 이전기업의 전북지역 입지환경에 대한 인식 분석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 설문조사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2009년 5월 중에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동기, 입지여건 만족도,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시책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것으로, 전북지역의 투자유치여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 투자유치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 응답기업은 전북지역으로 이전하여 운영 중인 42개 기업으로 2000년 이전에 이전한 기업이 20개, 2000년대에 이전한 기업이 21개 기업이며 이전시기가 파악되지 못한 기업은 1개 기업이다. 규모별로는 종사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5개, 50~100인인 중기업이 10개,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2개 기업이다. 매출액으로는 1조원 이상의 기업이 2개, 1천억~1조원 사이가 3개 이며 100~1,000억 사이가 17개, 100억 미만이 18개 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기계, 금속, 조립금속 산업이 19개, 정밀기기가 5개, 화학제품이 6개, 기타 12개 기업이다.

### 2. 전북의 입지환경 인식

전북 이전기업들은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해서 저렴한 지가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꼽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 이전기업들은 전북으로의 이전 동기에 대해서 저렴한 용지(임대료)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

치단체의 투자유인정책과 제반 지원과 고객 및 시장 확보로 응답하고 있어서 전북지역의 투자유치여건으로 지가와 지자체의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 전북으로 이전 동기

| 구 분 | 이전 동기 | 비 율(%) |
|---|---|---|
| 1순위 | 저렴한 용지(임대료) | 23.1 |
| 2순위 | 자치단체의 유인정책・제반혜택 | 15.7 |
| 3순위 | 고객 및 시장 확보 | 14.0 |

자료: 전북발전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09.5월)

저렴한 지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의 중요성은 전북으로 이전한 이후 이전기업들이 인식하는 전북의 기업입지여건에 대한 설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북지역의 기업유치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저렴한 용지(임대료)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전체가 보통 또는 만족하고 있다. 응답결과를 보면 매우 만족이 15.0%, 만족이 30.0%인 반면, 불만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의 저렴한 지가는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유인과 제반 혜택에 대해서도 35.0%가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인 기업은 15.0%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전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외에 이전기업들은 노무비, 노사관계, 주변환경의 쾌적성,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전북의 투자유치환경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서 인력, 토지, 생활인프라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분석되었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표 5-2〉 전북의 기업유치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전북의 기업유치 여건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 통 | 만 족 | 매우 만족 |
|---|---|---|---|---|---|
| 저렴한 용지(임대료) | 0.0 | 0.0 | 55.0 | 30.0 | 15.0 |
| 저렴한 노무비(급여 등) | 0.0 | 10.0 | 67.5 | 22.5 | 0.0 |
| 편리한 교통접근 | 2.5 | 32.5 | 40.0 | 25.0 | 0.0 |
| 고객 및 시장 확보용이 | 7.5 | 27.5 | 37.5 | 27.5 | 0.0 |
| 원만한 노사관계 | 2.5 | 10.0 | 62.5 | 25.0 | 0.0 |
| 쾌적한 주변지역 여건 | 0.0 | 22.5 | 40.0 | 37.5 | 0.0 |
| 유사동종업체 집적지역 | 10.0 | 22.5 | 47.5 | 20.0 | 0.0 |
| 전문인력 확보용이 | 17.5 | 42.5 | 37.5 | 2.5 | 0.0 |
| 협력업체와의 관계 원활 | 2.5 | 12.5 | 45.0 | 37.5 | 2.5 |
| 교육 및 경영컨설팅 용이 | 0.0 | 33.3 | 56.4 | 7.7 | 2.6 |
| 연구기관과 교류용이 | 5.1 | 23.1 | 59.0 | 12.8 | 0.0 |
| 자치단체의 유인·제반혜택 풍부 | 10.0 | 5.0 | 50.0 | 35.0 | 0.0 |
| 자원(원재료 등) 확보용이 | 7.7 | 30.8 | 59.0 | 2.6 | 0.0 |
| 금융권 사업자금 대출용이 | 0 | 20.5 | 66.7 | 12.8 | 0 |
| 지역 특성과 지명도 우수 | 0 | 25.6 | 69.2 | 5.1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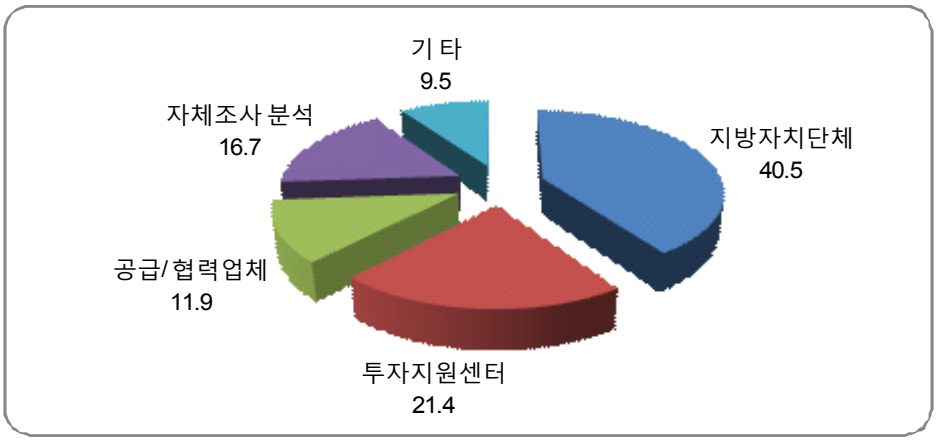
자료: 전북발전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09.5월)

그러나 이전기업들은 교통 접근성, 사장 접근성, 유사동종업체의 집적수준, 전문인력의 확보, 교육 및 경영컨설팅, 자원(원재료 등)의 확보, 금융 환경, 지역의 지명도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는 35%의 기업들이 불만족하고 있는 반면, 만족 기업은 25.0%에 그치고 있으며, 고객 및 시장 확보의 용이성에 대해서도 35.0%가 불만족, 27.5%가 만족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유사동종업체의 집적에 대해서는 32.5%가 불만족, 20.0%가 만족, 자원(원재료 등)의 확보 용이성에 대해서는 38.5%가 불만족, 2.6%가 만족, 금융권의 사업자금 대출 용이성에 대해서는 20.5%가 불만족, 12.8%가 만족, 지역 특성과 지명도 우수성에 대해서는 25.6%가 불만족, 5.1%가 만족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전문인력의 확보 용이성에 대해서는 60.0%가 불만족을 표시하고 2.0%만이 만족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전북지역의 전문인력 공급의 문제가 중요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및 경영컨설팅의 용이성, 연구기관과의 교류 용이성 등에 대해서도 불만족

이 더욱 높게 나오고 있어서 전북지역의 사업지원서비스 및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도 중요한 개선사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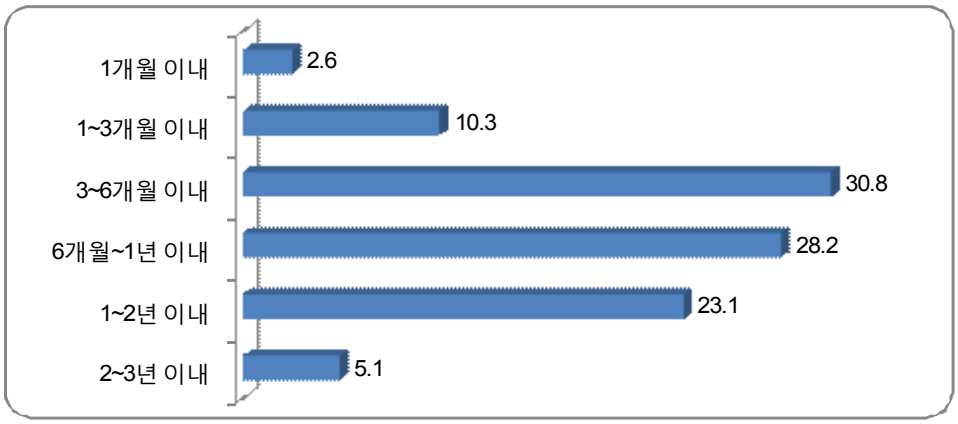
응답기업들이 전북지역의 입지여건에 대해 높은 불만족을 느끼는 요인들은 앞의 전북지역 투자유치환경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났던 문제들로 전북의 산업발전 지체에 따른 낮은 산업집적수준에 기인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동종업체의 부족, 원재료 확보의 어려움 등 직접적인 관련 요인들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의 부족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 부족 등 요인들도 낮은 산업집적도에 따른 수요 부족 및 지역혁신환경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의 입지정보 원천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40.5%가 지방자치단체로 응답하고 있으며 이외에 투자지원센터(중기청, 중진공 등)가 21.4%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역의 입지환경에 대한 홍보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북으로 이전 시 제반 이전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보면 6개월 이내가 40.5%, 6개월~1년 이내가 26.2%인 반면, 1~2년이 소요된 경우도 21.4%이며 2년 이상이 소요된 경우도 4.8%로 나타나고 있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전북발전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09.5월)

〈그림 5-1〉 이전기업의 입지선정 정보획득(다중응답)




자료: 전북발전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09.5월)

〈그림 5-2〉 제반 이전절차에 소요된 기간

## 제 2 절 전북지역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 1.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과 개선방향

전북지역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여건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장점은 저렴한 지가, 산업용지 취득의 용이성, 낮은 임금수준, 안정적인 노사관계, 양호한 정주환경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에 대한 기업홍보를 강화하여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저렴한 산업용지 지가 및 용지 취득의 용이성은 전북지역의 투자유치 여건 중 가장 우수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가의 경우 수도권은 물론이고 경남 및 경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또한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분양 및 산업단지의 조성이 가능한 토지가 풍부하다는 점은 전북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전북의 임금수준은 산업발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전북 이전기업들도 전북의 임금수준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사관계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노사갈등에 따라 야기되는 경영 불안정성을 감소시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므로 기업의 입지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전북은 정주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전북은 지가가 낮고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 전북의 투자유치환경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이전기업의 인식도 조사에서 전북의 정주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 분양가, 지가, 교육 및 의료환경, 생활편의시설 등 정주환경에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북은 서해안고속도로, 익산-천안 간 고속도로,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의 구축과 함께 광역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광역교통여건의 개선과 함께 전북지역은 수도권과 및 영남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서 투자유치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북의 광역접근성의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의 전북지역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북지역의 투자유치여건에 있어서 단점으로 꼽히는 요인은 산업집적의 부족, 시장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및 사업서비스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전북의 취약한 산업집적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후방 협력업체의 부족, 원재료의 확보 어려움, 전문인력의 확보 어려움 및 사업서비스 제공의 부족 등은 전반적인 산업집적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산업집적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기계, 식품, 신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산업의 집적이 형성되고, 적극적인 관련 하부구조 구축 정책이 추진되면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북의 취약한 산업집적환경을 극복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전북지역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집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LS엠트론과 같은 대기업들은 관련 협력업체의 동반이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에서는 이들 산업부문의 전북지역 집적기반을 홍보하고 기업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생산인력 수급여건 분석에서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력공급이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의 전북이전 대기업의 채용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대기업에 있어서는 생산인력 구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9].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인력의 구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10]. 이러한 중소기업 생산인력의 공급부족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북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북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9) 2009년도 초에 시행되었던 전북지역 모 대기업의 기술연수생 모집 경쟁률은 6.4:1 수준이었음.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에도 숙련노동력의 수급에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0) 전북지역 대기업의 채용증가와 함께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중소기업 경영인 면담결과).

셋째, 이전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문인력 공급의 문제는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문인력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의 강화를 통해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 및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 1) 전략산업 특화지역 조성

분석대상인 3개 산단은 특화된 산업육성 전략 하에서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자동차 및 기계, 조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관련 산업을,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자동차 및 기계산업 중심으로 특화 육성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투자유치여건 가운데 산업집적 환경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3개 산업단지의 특화산업 육성과 함께 이를 포함하는 전북 서부권을 전략산업 중심의 특화산업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산업집적을 촉진하여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 2) 생산기반기업 육성

분석대상 3개 산업단지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제외한 새만금 산업단지와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자동차 및 기계, 조선 등을 중점 유치대상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후방 연관산업 등 산업집적이 중요하다. 특히, 후방연관산업인 주조, 금형, 도금, 소성가공 등 생산기반산업의 견실한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이들 생산기반산업의 발전이 취약하여 협력업체의 부족이 기업활동의 중요한 애로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생산기반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 3) 산학연협력을 통한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전북지역의 인력공급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전문인력의 확보는 기업들의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대학 및 기업지원기관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협력 성과를 대학 및 기업지원기관의 지원을 위한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보조금 지원

현재 전북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세제감면, 금융알선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제도는 기업의 이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북에서 지원되는 투자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에 대한 이전기업의 공헌도를 감안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이전보조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와 같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공개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지원액을 비공개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공동물류센터 조성

전북지역의 취약한 물류기반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만의 경우 새만금신항만이 건설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항만인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고, 지역 내 물류회사의 발전이 취약하다. 따라서 새만금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자유무역지역은 공간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였으므로, 이들 3개 산단이 공동으로 이용

이 용이한 장소에 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취약한 물류기반을 보완함으로써 물류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6) 지역이미지 구축 및 홍보

기업의 입지결정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심리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지대상지역의 이미지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요소의 하나로 작용한다. 전북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이 보유한 산업자원, 안정적인 노사문화, 지자체의 기업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북이 기업의 활동에 유리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3개 산단이 위치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등 전북의 서부지역은 전북의 산업집적지로 산업발전기반이 양호하며, 노동력이 풍부하고 생활환경이 양호한 지역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산업단지별 장점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우 새만금지역의 발전과 연계하여 풍부하고 저렴한 산업용지의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지역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차원에서 육성되는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특화 과학산업단지로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예정인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비전의 제공이 필요하다. 김제자유무역지역은 군산, 익산, 전주, 완주 등 전북의 산업집적지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생산기반 기업과 기계 및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7) 핵심 유치대상기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전북의 투자유치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자료의 제작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주요 산업입지요인 중 전북의 강점으로 나타나는 저렴한 지가, 산업용지 취득의 용이성, 낮은 임금수준, 안정적인 노사관계, 양호한 정주환경, 지자체의 지원 등에 대해 전북과 투자유치 경쟁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타 지역

과의 체계화된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5-3>.

특히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여건 정보 제공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5-3〉 전북 주요산단의 투자유치여건 설명자료(예시)

| 구분 | | | 새만금 산업단지 | 김제 자유무역지역 | 국가식품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오송 생명과학산단 |
|---|---|---|---|---|---|---|---|---|---|---|---|
| | | | | | | 황해 (송악지구) | 광양만권 (대송산단) | 대구경북 (영천일반산단) | 동해 | 율촌 | |
| 조성지역 | | | 전라북도 군산시 | 전라북도 김제시 | 전라북도 익산시 | 충청남도 당진군 | 경상남도 하동군 | 경상북도 영천군 | 강원도 동해시 | 전라남도 순천시 | 충청북도 청원군 |
| 조성기간 | | | 2008-2020 | 2009-2011 | 2009-2013 | 2008-2025 | 2009-2012 | 2006-2012 | 2006-2010 | 2006-2009 | 2003-2008 |
| 토지 | 조성면적(천㎡) | | 18,700 | 992 | 3,967 | 13,029 | 1,374 | 1,471 | 248 | 344 | 4,634 |
| | ㎡당 분양가(자유무역지역은 월 임대료)(원) | | 150,000 | 64 | 140,000 | 300,000 | 220,000 | 130,000 | 69 | 98 | 150,000 |
| 인력 | 제조업 근로자 평균임금(시도)(만원) | | 199.8 | 199.8 | 199.8 | 213.8 | 244.0 | 212.4 | 191.1 | 244.0 | 188.2 |
| | 구직배율(시도)(%) | | 235.1 | 235.1 | 235.1 | 148.1 | 129.6 | 191.3 | 339.4 | 176.9 | 178.9 |
| | 생산인력(통근권역)(명) | | 46,904 | 46,265 | 46,168 | 45,406 | 19,474 | 133,676 | 9,236 | 29,086 | 74,609 |
| | 전문인력(통근권역)(명) | | 75,308 | 75,981 | 112,737 | 76,817 | 17,417 | 224,827 | 18,875 | 17,314 | 284,195 |
| 산업 집적 | 식품산업 LQ지수(통근권역) | 사업체수(개) | 2.70 | 2.78 | 2.78 | 0.80 | 2.27 | 0.62 | 6.96 | 3.62 | 1.76 |
| | | 종사자수(명) | 2.95 | 3.07 | 2.85 | 0.74 | 1.62 | 0.60 | 5.05 | 1.98 | 1.74 |
| | 화학·비금속·기계·자동차산업 LQ지수(통근권역) | 사업체수(개) | 1.21 | 1.20 | 1.18 | 1.25 | 2.03 | 0.99 | 0.87 | 1.15 | 1.03 |
| | | 종사자수(명) | 1.25 | 1.24 | 1.15 | 1.09 | 1.76 | 0.75 | 1.16 | 1.07 | 0.70 |
| 인프라 | 서울까지 소요시간(분) | | 175 | 169 | 157 | 101 | 273 | 256 | 235 | 280 | 112 |
| | 인근수출입항만까지 소요시간(분) | | 21 | 44 | 74 | 30 | 42 | 69 | 7 | 32 | 83 |
| | 인근 공항까지 소요시간(분) | | 15 | 46 | 84 | 99 | 141 | 53 | 80 | 118 | 35 |
| 정주 환경 | 주요 영역 수능 1~4등급 평균 비율(시도)(%) | | 40.4 | 40.4 | 40.4 | 36.6 | 39.4 | 37.7 | 42.7 | 39.4 | 38.4 |
| | 아시아 100위 이내 대학수(시도)(개) | | 1 | 1 | 1 | 0 | 0 | 1 | 0 | 0 | 0 |
| | 종합병원수(통근권역)(개) | | 13 | 12 | 12 | 9 | 4 | 22 | 7 | 13 | 20 |
| |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10년7월)(시군)(만원) | | 109 | 65 | 118 | 159 | 71 | 84 | 90 | 129 | 122 |
| | 1인당 월평균 가계최종소비지출액(시도)(만원) | | 69 | 69 | 69 | 76 | 82 | 73 | 75 | 65 | 73 |

주 1) (시군)은 산업단지 소재 시·군, (시도)는 산업단지 소재 시·도, (통근권역)은 산업단지 소재 시·군으로부터 도로통행시간 45분 이내에 속한 주변 시·군을 포함한 권역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2) 분양가 중 최저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제시된 경우는 중간값으로 제시함.

제 6 장

# 요약 및 정책제언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제 2 절 정책제언

# 제 6 장 요약 및 정채제언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1. 전북지역 산업용지 수급전망

전북지역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수요전망을 보면 2010~2020년까지 총 2.8~13.3㎢의 신규 산업용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9년말 현재 전북지역에서 기 지정된 산업단지 중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의 면적은 18.1㎢로 2020년까지의 수요 추정면적을 4.8~15.3㎢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산업용지 수요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 한 전북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용지 수급전망을 고려할 때 새만금산업단지, 김제자유무역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산업단지는 주변 산업단지와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미분양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2. 전북지역 투자유치 환경

전북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해 생산요소환경, 산업집적환경, 인프라환경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북의 투자환경은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투자환경을 전북과 투자유치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충남, 충북, 강원, 경남, 경북, 전남 등 지방의 6개 도와 비교하면 경북과 충북을 제외한 4개 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분야별로는 생산요소 환경은 전북이 유리하나, 산업집적환경은 매우 불리하며, 인프라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다. 전북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방의 6개 도 지역과 비교하면 전북은 산업집적 및 시장환경을 제외한 인력, 토지, 금융, 물적인프라 및 생활인프라 등 대부분의 투자환경지표에서 비교적 우수하다. 특히 광역교통망의 개통과 함께 물적인프라의 여건이 개선된 반면, 산업집적환경은 다른 도지역에 비해 크게 취약하다.

## 3.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전북의 새만금산업단지, 김제자유무역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이들 산업단지와 투자유치 경쟁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의 6개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지표는 생산요소, 산업집적, 인프라, 정주환경 등 4개 분야의 21개 지표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전북의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자유무역지역 등 3개 산업단지는 6개 비교대상 산업단지에 비해 비교적 산업입지여건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3개 산업단지 모두 용지취득이 용이하고 지가가 저렴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력여건과 정주여건도 대체로 양호하며 유치대상 업종의 특화도도 높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주요 수출입 항만과의 접근성이 불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4.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 1)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방향

전북지역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여건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장점은 저렴한 지가, 산업용지 취득의 용이성, 낮은 임금수준, 안정적인 노사관

계, 양호한 정주환경, 광역접근성의 개선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에 대한 기업홍보를 강화하여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전북지역의 투자유치여건에 있어서 산업집적의 부족, 시장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및 사업서비스 부족 등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2)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전북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전략산업 특화지역 조성, ②생산기반기업 육성, ③산학연협력을 통한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④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보조금 지원, ⑤공동물류센터 조성, ⑥지역이미지 구축 및 홍보, ⑦ 핵심 유치대상기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제 2 절 정책제언

### 1. 산업용지 공급시기 조정

전북지역 산업용지 수급전망을 보면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조성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조성이 미착수된 산업단지에 대해 조성시기를 새만금산업단지 1단계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로 연기하고 산업용지 수급추이를 반영하여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 지정되었으나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성이 지연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장기적인 조성지연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선 토지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토지 매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투자보조금액 비공개제도 도입

전북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대규모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기여도 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역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에 대한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액을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투자유치 펀드 조성

전북의 취약한 산업집적수준을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역내·외의 유망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투자유치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반기업, 전략산업분야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지원을 담당하는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투자유피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산학연 협력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도입

지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여 전북의 부족한 투자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학 및 기업지원기관의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지만 전북의 산학연 협력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 산학연 협력성과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 5. 투자유치 애로해소 사례집 발간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애로해소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지역의 지가, 인프라, 산업환경, 정주환경 등 투자여건뿐만 아니라 투자지역 지자체의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지원은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제도적 지원도 투자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요소로 작용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제도적 지원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된 애로해소 사례들을 유형별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국토개발연구원・대우경제연구소, 1992, 지역간 기업활동여건 및 입지비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기업의 입지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센터, 2010, 2009 전국산업단지통계.

국토해양부, 2007,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

권영섭・김은란・김대종・구정은, 2009,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영표, 2007, 경남의 기업투자환경 실태와 발전방안, 경남발전연구원.

김용웅・박형서・권태형, 1992, 지역간 제조업 활동여건 격차에 대한 행태분석, 국토개발연구원.

김현주・박재룡, 1996, 민간기업의 공업단지개발 참여확대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농림수산식품부, 2010,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

박용규, 2004,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삼성경제연구소.

박재곤, 2006, 지방투자 추이분석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 2006년 12월호.

박재곤・정준호, 2007, 지역별 설비투자의 추이와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62호, 산업연구원.

박재룡 외. 1996.6, 주요 국가 공업단지 경쟁력 비교, CEO Information, 제 51호,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1996, 주요 국가 공업단지 경쟁력 비교,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박용규・송영필, 1999, IMF시대의 지방첨단산업단지개발 효율화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변필성, 2009,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1987, 기업의 입지결정요인분석.

이권형・박종민, 2005, 인천지역 지방산업단지의 실태와 혁신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이병기, 2005,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전라북도, 2009,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

전북발전연구원, 2009, 전북 이전기업 의식조사.

지식경제부, 2007,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최미희・임도진, 2010,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산업단지공단, 2003, 중장기 산업단지 발전비전과 추진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2007, 기업의 입지동향과 산업용지 수급전망.

한국산업단지공단. 2009,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각년도.

한국은행 충북본부, 2008, 충북지역 산업단지 현황 및 시사점.

Roger, H., 1998., The Dynamics of Industrial Location: The Factory, the Firm and the Production System, John Wiley & Sons.

Stafford, H. A., 1972, The Geography of Manufacturers, Progress in Geography, vol.4, pp.181~215.

J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 부 록

〈부록 1〉 권역구분
〈부록 2〉 산업집적(LQ)
〈부록 3〉 산업단지 유형별 지원제도 비교
〈부록 4〉 SGFEZ 인센티브

## 〈부록 1〉 권역구분

| | | | | | | | | | | | | | | |
|---|---|---|---|---|---|---|---|---|---|---|---|---|---|---|
| 군산시 | 충남<br>보령 | 충남<br>논산 | 충남<br>부여 | 충남<br>서천 | 전북<br>전주 | 전북<br>군산 | 전북<br>익산 | 전북<br>정읍 | 전북<br>김제 | 전북<br>완주 | 전북<br>부안 | | | |
| 시간거리 | 38.38 | 34.98 | 26.80 | 15.53 | 31.65 | 0 | 16.74 | 39.25 | 16.99 | 36.25 | 35.18 | | | |
| 김제 | 충남<br>논산 | 충남<br>부여 | 충남<br>서천 | 전북<br>전주 | 전북<br>군산 | 전북<br>익산 | 전북<br>정읍 | 전북<br>김제 | 전북<br>완주 | 전북<br>진안 | 전북<br>임실 | 전북<br>부안 | | |
| 시간거리 | 41.55 | 44.83 | 35.32 | 13.96 | 17.66 | 18.77 | 22.06 | 0 | 27.88 | 37.44 | 42.69 | 21.86 | | |
| 익산 | 충남<br>논산 | 충남<br>계룡 | 충남<br>금산 | 충남<br>연기 | 충남<br>부여 | 충남<br>서천 | 전북<br>전주 | 전북<br>군산 | 전북<br>익산 | 전북<br>정읍 | 전북<br>김제 | 전북<br>완주 | 전북<br>진안 | 전북<br>부안 |
| 시간거리 | 24.14 | 41.80 | 45.60 | 68.14 | 28.86 | 33.20 | 20.97 | 17.66 | 0 | 41.58 | 18.44 | 11.16 | 35.72 | 37.52 |
| 당진 | 경기<br>평택 | 경기<br>화성 | 충남<br>천안 | 충남<br>아산 | 충남<br>서산 | 충남<br>홍성 | 충남<br>예산 | 충남<br>태안 | 충남<br>당진 | | | | | |
| 시간거리 | 36.03 | 44.48 | 42.60 | 26.65 | 10.61 | 29.63 | 14.46 | 34.49 | 0 | | | | | |
| 하동 | 전남<br>구례 | 경남<br>진주 | 경남<br>사천 | 경남<br>고성 | 경남<br>남해 | 경남<br>하동 | 경남<br>산청 | | | | | | | |
| 시간거리 | 40.10 | 30.38 | 5.18 | 39.04 | 42.29 | 0 | 15.99 | | | | | | | |
| 영천 | 대구 | 경북<br>포항 | 경북<br>경주 | 경북<br>구미 | 경북<br>영천 | 경북<br>경산 | 경북<br>군위 | 경북<br>의성 | 경북<br>청도 | | | | | |
| 시간거리 | 42.92 | 44.65 | 22.61 | 39.07 | 0 | 23.26 | 9.60 | 29.70 | 43.83 | | | | | |
| 청원 | 대전 | 충북<br>청주 | 충북<br>청원 | 충북<br>보은 | 충북<br>옥천 | 충북<br>진천 | 충북<br>괴산 | 충북<br>음성 | 충북<br>증평 | 충남<br>천안 | 충남<br>공주 | 충남<br>논산 | 충남<br>계룡 | 충남<br>연기 |
| 시간거리 | 31.98 | 10.42 | 0 | 20.34 | 36.14 | 16.33 | 22.34 | 24.67 | 6.79 | 41.17 | 25.59 | 42.04 | 40.39 | 15.32 |
| 동해 | 강원<br>강릉 | 강원<br>동해 | 강원<br>태백 | 강원<br>삼척 | | | | | | | | | | |
| 시간거리 | 30.85 | 0 | 42.22 | 19.85 | | | | | | | | | | |
| 순천 | 전북<br>남원 | 전남<br>여수 | 전남<br>순천 | 전남<br>광양 | 전남<br>담양 | 전남<br>곡성 | 전남<br>구례 | 전남<br>고흥 | 전남<br>보성 | 전남<br>화순 | 전남<br>장흥 | | | |
| 시간거리 | 36.17 | 40.35 | 0 | 16.06 | 44.74 | 10.98 | 17.61 | 24.13 | 24.32 | 19.50 | 37.42 | | | |

주 1) 권역은 2007년 기준 도로_통행시간 45분 이내의 거리로 구분함
2)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통학 소요시간을 보면 45분이내의 시간이 83.3%정도로 나타남

# 〈부록 2〉 산업집적(LQ)

## ◇ 권역 사업체수 LQ

| 구분 | 군산 | 김제 | 익산 | 당진 | 하동 | 영천 | 청원 | 동해 | 순천 |
|---|---|---|---|---|---|---|---|---|---|
| 제조업 | | | | | | | | | |
| 식료품 제조업 | 2.70 | 2.78 | 2.78 | 0.80 | 2.27 | 0.62 | 1.76 | 6.96 | 3.62 |
| 음료 제조업 | 2.44 | 2.50 | 2.65 | 0.48 | 4.16 | 0.49 | 2.16 | 2.83 | 3.49 |
| 담배 제조업 | 0.00 | 0.00 | 0.00 | 0.94 | 8.93 | 0.00 | 5.53 | 0.00 | 0.00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0.94 | 0.88 | 0.82 | 0.37 | 0.95 | 2.97 | 0.77 | 0.24 | 0.29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60 | 1.60 | 1.37 | 0.11 | 0.07 | 0.49 | 0.31 | 0.38 | 0.17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0.10 | 0.10 | 0.13 | 0.04 | 0.13 | 0.11 | 0.33 | 0.00 | 0.00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2.06 | 2.11 | 1.89 | 0.85 | 0.25 | 0.65 | 0.57 | 2.83 | 1.38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35 | 1.38 | 1.47 | 1.14 | 0.79 | 0.89 | 1.32 | 0.74 | 0.89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30 | 0.31 | 0.32 | 0.31 | 0.00 | 0.37 | 0.49 | 0.27 | 0.06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0.87 | 0.89 | 1.02 | 0.72 | 0.00 | 1.16 | 0.95 | 17.23 | 2.58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1.79 | 1.78 | 1.96 | 1.39 | 0.61 | 0.80 | 1.83 | 0.65 | 2.87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37 | 1.30 | 1.68 | 2.34 | 0.72 | 0.31 | 3.08 | 0.00 | 0.60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0.74 | 0.76 | 0.83 | 1.59 | 0.28 | 1.01 | 1.22 | 0.37 | 0.75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57 | 2.48 | 2.42 | 1.07 | 2.25 | 0.88 | 1.45 | 3.98 | 3.21 |
| 1차 금속 제조업 | 0.65 | 0.65 | 0.74 | 0.85 | 0.76 | 1.29 | 0.78 | 0.47 | 1.45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0.68 | 0.66 | 0.66 | 1.16 | 0.59 | 1.28 | 0.72 | 0.37 | 1.18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22 | 0.24 | 0.26 | 0.85 | 0.05 | 0.74 | 1.20 | 0.10 | 0.06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0.26 | 0.23 | 0.31 | 0.71 | 0.23 | 0.95 | 1.39 | 0.87 | 0.49 |
| 전기장비 제조업 | 0.39 | 0.40 | 0.43 | 1.11 | 0.17 | 0.62 | 1.07 | 0.00 | 0.39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44 | 0.45 | 0.44 | 1.24 | 1.38 | 0.95 | 0.88 | 0.32 | 0.41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18 | 2.18 | 2.00 | 1.76 | 2.01 | 1.51 | 0.92 | 0.00 | 0.33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35 | 0.33 | 0.33 | 0.14 | 8.21 | 0.52 | 0.07 | 1.14 | 1.02 |
| 가구 제조업 | 0.57 | 0.61 | 0.63 | 0.69 | 0.08 | 0.53 | 0.55 | 0.28 | 0.50 |
| 기타 제품 제조업 | 0.66 | 0.63 | 0.65 | 0.47 | 0.22 | 0.38 | 0.69 | 0.82 | 0.09 |

## ◇ 권역 종사자수 LQ

| 구분 | 군산 | 김제 | 익산 | 당진 | 하동 | 영천 | 청원 | 동해 | 순천 |
|---|---|---|---|---|---|---|---|---|---|
| 제조업 | | | | | | | | | |
| 식료품 제조업 | 2.95 | 3.07 | 2.85 | 0.74 | 1.62 | 0.60 | 1.74 | 5.05 | 1.98 |
| 음료 제조업 | 2.21 | 2.24 | 1.89 | 0.15 | 0.58 | 0.28 | 1.62 | 0.00 | 0.27 |
| 담배 제조업 | 0.00 | 0.00 | 0.00 | - | 0.00 | 0.00 | - | 0.00 | 0.00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1.01 | 0.95 | 0.92 | 0.29 | 0.79 | 2.72 | 0.75 | 0.00 | 0.09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03 | 0.96 | 0.81 | 0.08 | 0.00 | 0.43 | 0.26 | 1.22 | 0.00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0.00 | 0.00 | 0.00 | - | 0.00 | 0.05 | - | 0.00 | 0.00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1.38 | 1.41 | 1.19 | 0.60 | 0.00 | 0.43 | 0.21 | 3.30 | 0.54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93 | 1.97 | 1.98 | 0.89 | 1.82 | 0.78 | 1.70 | 0.00 | 0.50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15 | 0.15 | 0.13 | 0.17 | 0.00 | 0.33 | 0.26 | 0.00 | 0.00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0.00 | 0.00 | 0.00 | - | 0.00 | 0.28 | - | 2.14 | 0.00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3 | 2.15 | 2.09 | 1.00 | 0.32 | 0.61 | 1.42 | 0.00 | 6.22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0.79 | 0.81 | 1.17 | 2.23 | 0.00 | 0.13 | 2.25 | 0.00 | 0.00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0.58 | 0.59 | 0.99 | 1.13 | 0.39 | 1.02 | 1.28 | 0.12 | 0.34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25 | 2.22 | 2.26 | 1.13 | 1.63 | 1.24 | 1.21 | 10.77 | 1.83 |
| 1차 금속 제조업 | 0.79 | 0.81 | 0.76 | 0.72 | 0.38 | 1.90 | 0.38 | 0.87 | 3.94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0.54 | 0.50 | 0.53 | 0.86 | 0.74 | 1.23 | 0.68 | 0.48 | 1.14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28 | 0.29 | 0.41 | 1.40 | 0.00 | 1.43 | 1.48 | 0.00 | 0.00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0.04 | 0.04 | 0.13 | 0.73 | 0.00 | 0.95 | 1.43 | 0.00 | 0.00 |
| 전기장비 제조업 | 0.34 | 0.34 | 0.39 | 1.36 | 0.05 | 0.71 | 1.49 | 0.00 | 0.12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49 | 0.50 | 0.46 | 1.15 | 1.45 | 0.75 | 0.85 | 0.44 | 0.43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01 | 1.98 | 1.76 | 1.67 | 0.57 | 1.02 | 0.52 | 0.00 | 0.04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11 | 0.11 | 0.10 | - | 5.50 | 0.12 | - | 0.22 | 0.18 |
| 가구 제조업 | 0.73 | 0.74 | 0.71 | 0.75 | 0.00 | 0.70 | 0.50 | 0.00 | 0.12 |
| 기타 제품 제조업 | 0.58 | 0.59 | 0.50 | 0.32 | 0.00 | 0.31 | 0.75 | 0.00 | 0.00 |

## ◇ 전국 시 · 도청까지의 시간거리

단위 : 분, %

| 구분 | 새만금 산업 단지 | 김제 자유 무역 지역 | 국가 식품 클러 스터 | 경제자유구역 | | | 오송 생명 과학 산단 | 자유무역지역 | | 자지 단체 인구 비중 |
|---|---|---|---|---|---|---|---|---|---|---|
| | | | | 황해 (송악 지구) | 광양만권 (대송 산단) | 대구경북 (영천일 반산단) | | 동해 자유무역 지역 | 율촌 자유무역 지역 | |
| 서울특별시청 | 179 | 172 | 154 | 96 | 274 | 235 | 116 | 231 | 276 | 0.20827 |
| 부산광역시청 | 277 | 248 | 210 | 276 | 133 | 108 | 216 | 334 | 151 | 0.07278 |
| 대구광역시청 | 218 | 203 | 173 | 205 | 148 | 55 | 145 | 276 | 162 | 0.05089 |
| 인천광역시청 | 176 | 169 | 164 | 77 | 285 | 243 | 122 | 223 | 284 | 0.05498 |
| 광주광역시청 | 102 | 80 | 94 | 174 | 103 | 203 | 154 | 344 | 81 | 0.02905 |
| 대전광역시청 | 119 | 116 | 68 | 101 | 178 | 203 | 51 | 240 | 192 | 0.03023 |
| 울산광역시청 | 288 | 282 | 246 | 273 | 171 | 81 | 213 | 311 | 193 | 0.02271 |
| 경기도청 | 169 | 162 | 146 | 64 | 264 | 218 | 107 | 198 | 269 | 0.23055 |
| 강원도청 | 242 | 237 | 222 | 161 | 334 | 234 | 183 | 181 | 351 | 0.03080 |
| 충청북도청 | 144 | 128 | 91 | 92 | 187 | 158 | 30 | 212 | 213 | 0.03102 |
| 충청남도청 | 130 | 118 | 72 | 113 | 168 | 143 | 53 | 240 | 183 | 0.04121 |
| 전라북도청 | 73 | 54 | 43 | 132 | 163 | 195 | 104 | 293 | 134 | 0.03789 |
| 전라남도청 | 133 | 112 | 152 | 207 | 163 | 265 | 210 | 399 | 144 | 0.03918 |
| 경상북도청 | 209 | 196 | 166 | 192 | 142 | 50 | 129 | 267 | 157 | 0.05459 |
| 경상남도청 | 231 | 223 | 185 | 263 | 109 | 125 | 198 | 360 | 127 | 0.06585 |

# 〈부록 3〉 산업단지 유형별 지원제도 비교

| 구분 | 경제자유구역 | 산업단지 | 자유무역지역 | 외국인투자지역 |
|---|---|---|---|---|
| 지정 목적 | 외국인 친화적 경영 생활환경 조성을통한 적극적 외자 유치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 발전 추진 | 무관세 등 자유로운 제조, 무역 활동 보장을 통해 외자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3천만불 이상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투자 우대 |
| 지정 | ·지식경제부장관<br>-시도지사 지정요청 가능 | ·국토해양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br>-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장은 지정요청 가능 | ·시·도지사<br>-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
| 요건 | 국제공항, 국제 항만 요건 삭제 | 지방산단 : 지사 국가산단 : 장관 | 항만, 공항주변 지역, 산업단지 | 제한 없음 |
| 입주자격 | ·외투기업<br>·제조업, 물류업, 주거, 의료, 교육, 외국방송, 금융 등 | 국내기업 | ·외투기업·내국기업<br>·제조업(수출주목적), 물류업, 무역업, 지원 서비스업 등 | ·외투기업<br>·제조업, 물류업 등<br>·외투지분 30% 이상(평동, 대불 10% 이상) |
| 현황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 지역(2003년)<br>·황해(평택·당진), 대구경북(대구, 경산, 영천, 구미), 새만금·군산(2008년) | | ·마산, 익산, 군산, 대불, 율촌, 북평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제 | ·개별형 (19곳)<br>·단지형 (10곳) 천안, 평동, 영암, 사천, 청원, 구미, 화성, 아산, 파주, 부산지사 |
| 조세감면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br>·지방세 8~15년<br>·감면조건<br>-첨단제조 및 관광 1,000만 달러<br>-물류 500만 달러 이상 | ·법인·소득세 감면없음<br>·취등록세 면제<br>·재산세 5년간 100%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br>·지방세 8~15년<br>·감면조건<br>-제조업 1,000만 달러 이상<br>-물류업 500만 달러 이상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br>·지방세 8~15년<br>·감면조건<br>-제조업 1,000만 달러<br>-물류업 500만 달러 |
| 관세 | ·자본재 3년간 관세면제 | | ·관세유보(수입물품, 자본재) | ·자본재 3년간 관세면제 |
| 임대료 | 부지가액의 1% | | 부지가액의 1% | ·부지가액의 1% |
| 임대료 감면 | ·감면율 미결정<br>(관리청이 결정) | | 외투기업 100% 감면 | ·고도기술 100%<br>·일반제조 75% |
| 행정지원 업무처리 | ·시도지사 직속 전담행정기구 설치<br>-경제자유구역청<br>-국가 위임 사무, 시도 사무 등 수행 | | ·출장소 설치<br>-관세·조세의 부과·징수, 출입국관리<br>-우편·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 | ·산단공(7) 관리<br>·지자체(3) 관리 |
| 기타지원 | ·분담 비율 미결정<br>·농지보전, 대체<br>·산림조성 50%<br>·초지조성 면제<br>·외투기업에 경영개선<br>·외국인 교육환경 등 개선 | ·농지보전 대체<br>·산림조성 대체<br>·초지조성 면제<br>·개발부담금, 공유수면사용료면제 | ·지정단계에서 부지매입분담 비율 결정<br>·국비 최대 75%<br>·입주업체 기술 개발 등 지원 | ·수도권 : 국비 40%<br>·비수도권 : 국비 75%<br>·입주업체, 교육 훈련, 고용보조 금 등 지원 |
| 기반 시설 |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지원도로 50% 국비지원 | 상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도로 100% 국비지원 | | |

# 〈부록 4〉 SGFEZ 인센티브

## ◇ 조세 감면

| 대상 | 세금종류 | | 감면기간 및 감면률 | 감면요건(투자금액 등) |
|---|---|---|---|---|
|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 국세 | 관세 | 3년간 100% | 수입자본재 |
| | |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100%<br>그 다음 2년 50%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1천만불 이상<br>물류업 5백만불 이상 /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
|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15년간 100% | |
|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 국세 |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 3년간 100% | 수입자본재 |
| | | 법인세, 소득세 | 5년간 100%,<br>그 다음 2년 50% | 물류업 1천만불 이상<br>제조업 3천만불 이상<br>관광업 2천만불 이상<br>물류업 및 SOC사업 1천만불 이상<br>연구시설 5백만불 이상이며 석사연구원 10명 이상 |
|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15년간 100% | |

## ◇ 보조금 지원

| 구분 | | 지원내용 | 한도액 | 지원 대상 기업 |
|---|---|---|---|---|
| 현금 지원 | | 투자금액의 5% 범위 내 | 기업당 50억원 |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 산업입지보조금 | | 임대료, 분양가 차액에 대한 지원(정상가액의 50%이내) | | |
| 고용보조금 | | 신규 채용 인원 20인 초과 1인당<br>월 50만원, 6개월 범위 내 | 기업당 5억원 | |
| 교육훈련보조금 | | 신규채용인원 1인당 월 10만원 이상<br>50만원, 6개월 범위 내 | 기업당 5억원 | |
|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시설 투자비 | 총 투자금액의 5% 범위<br>- 도내 기존 공장 취득 제외 | 기업당 20억원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br>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
| |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총 투자금액의 5%범위<br>- 도내 기존공장 취득 및 창업 제외 | 기업당 100억원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br>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
| 대규모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이전 기업 투자 보조금 | 투자금액의 5% 범위 내 | 단위사업장당 100억원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br>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 |
| | 이전 근로자 정착 지원금 | 주거비 1인당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 | 1인당 360만원 | 근로자 정착 제정 지원 가능 |
| | 창업 투자보조금 | 투자금액의 2% 범위 내 기업당 50억원 |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br>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 |

## ◇ 경영환경 지원

| 구분 | | 지원내용 | 한도액 | 지원 대상 기업 |
|---|---|---|---|---|
| 사업부지 지원 | |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 가능 | | |
| 매각대금 | 국유재산 | 1년 범위에서 연기 / 20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 | | |
| | 공유재산 | 20년 범위에서 3% 이자로 분할 납부 | | |
| 임대료 감면 | 국유지 | 감면비율 100% 범위내에서 관리청이 정함 | | |
| | 공유지 | 100% 감면 | 재산가액 10/1000 (임대료)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 | | 75% 감면 | | 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 |
| | | 50% 감면 | |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
| 임대기간 | | 50년 범위내 / 50년 추가 연장 가능 | | 새만금지구 최장100년까지 |
| 고용 및 노사환경 지원 | | · 월차 유급휴가 적용배제<br>· 유급생리휴가, 유급주휴제를 무급으로 전환<br>· 중소기업 고유업종 배제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의무고용제 배제<br>·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 파견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가능 | | |
| 금융환경 개선 | | 1만불의 범위내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지급 허용 | | |

## ◇ 정주여건 개선

| 구분 | 지원내용 |
|---|---|
| 외국어 서비스 제공 | ·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br>·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 제공 |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허용 |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br>· 외국교육기관(초·중·고·대학) 설립 가능<br>- 부지매입, 시설건축, 학교운영자금 지원 |
| 외국의료기관 허용 | · 일정자격 충족시 외국의료기관 허용<br>·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 |
| 기 타 | ·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br>· 외국방송 재송신 :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방송 채널별 30% 범위내 외국방송 재송신 |

*Jthink* 2010-PR-22

# 전라북도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발 행 인 |** 원 도 연

**발 행 일 |** 2010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전화:(063)280-7100 팩스:(063)286-9206

ISBN 978-89-6612-026-0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